

국립국어원 2015-01-45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607-01

2015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연구 책임자

최 흥 열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15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연구 책임자: 최홍열(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연구 기관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

연구 책임자 최홍열

공동 연구원 김학수, 엄태웅, 최윤, 홍단비, 최맹식

보조 연구원 박광길, 오유라, 박정모, 이장현, 안진심, 한훈

연구 협력 기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1
2. 2015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개요	10
II. 세부 진단 방법 및 절차	14
1. 진단 대상 보도 자료의 수집	14
2. 보도 자료 진단 절차	73
1) 정확성 진단	73
2) 시민 소통성 진단	79
3) 정확성·시민 소통성 진단 합산	80
4) 전문가 최종 진단	81
III. 진단 결과	84
1. 정확성 진단 및 시민 소통성 진단	84
1) 정확성 진단	84
2) 시민 소통성 진단	89
3) 정확성·시민 소통성 진단 합산	95
2. 전문가 최종 진단	100
IV. 2015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의 요약	107
1. 진단 대상 보도 자료	107
2. 진단 결과 분석	109
3. 기관별 보도 자료 오류의 특성	114
V. 보고서 활용 방안 및 정책 제언	184
1. 보고서 활용방안	184
2. 정책 제언	187

[국문 초록]

2015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2015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은 44개의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2015년의 공공언어 진단에서 주목할 점은 그동안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2014년에 처음 실시한 소통성 진단을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올해 연구에서는 민현식 외(2011), 구분관 외(2012), 최홍열 외(2013)의 방식을 취합하여 이용하되 소통성 진단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앙행정기관 44곳에 대한 소통성 진단은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으며, 3월부터 10월까지 생산된 보도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소통성 진단은 매달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문서 2건과 본 연구진이 선별한 문서 2건, 총 4건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6개월 동안 생산된 총 1,383건의 보도 자료를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하였다. 진단의 효율성을 위하여 44개의 중앙행정기관은 가군(14개 기관)과 나군(15개 기관), 다군(15개 기관)으로 나누어 문서를 수집·진단하였으며, 시민평가단의 소통성 진단이 1차로 이루어지고, 전문가평가단의 소통성 진단이 2차로 진행되었다.

시민평가단의 소통성 진단은 일반 시민에 의한 평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지만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객관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단은 정확성 평가를 시민평가단의 소통성 진단과 병행하여 자체적인 기준으로 보도 자료의 정확성을 진단한 후, 시민 평가단 점수와 합산하였다. 이어 전문가평가단은 1차 진단에서 합산한 점수를 바탕으로, 각 군의 상위 3개 기관과 하위 3개 기관에 대하여 소통성 진단을 실시하여, 최종으로 우수 기관과 미흡 기관을 선정하였다.

2015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결과, 각 기관의 우수 기관 선정 횟수와 미흡 기관 선정 횟수는 다음과 같다.

모듬	기관	우수 선정 횟수	미흡 선정 횟수
가군	국가인권위원회	0	8
	국민권익위원회	2	1
	국민안전처	1	4
	기상청	6	0

모듬	기관	우수 선정 횟수	미흡 선정 횟수
	농촌진흥청	2	1
	문화재청	3	0
	문화체육관광부	6	0
	법제처	1	0
	병무청	0	0
	산림청	2	0
	새만금개발청	0	5
	여성가족부	0	1
	통일부	0	3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1	1
나군	경찰청	0	0
	공정거래위원회	3	4
	국가보훈처	8	0
	국방부	0	5
	국세청	3	1
	대검찰청	2	0
	방위사업청	0	0
	법무부	0	3
	보건복지부	4	0
	식품의약품안전처	0	3
	인사혁신처	1	0
	조달청	1	1
	해양수산부	0	5
	행정자치부	1	0
환경부	0	2	
다군	고용노동부	1	0
	관세청	3	1
	교육부	7	0
	국토교통부	3	0
	금융위원회	1	0

모듬	기관	우수 선정 횟수	미흡 선정 횟수
	기획재정부	0	8
	농림축산식품부	0	2
	미래창조과학부	0	0
	산업통상자원부	0	2
	방송통신위원회	1	2
	외교부	2	3
	원자력안전위원회	0	4
	중소기업청	1	1
	통계청	2	1
	특허청	3	0

[표 1] 모듬별 우수·미흡 기관 선정 횟수

[주요어]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언어, 보도 자료, 시민평가단, 전문가평가단, 소통성, 정확성

[Abstract]

2015 Diagnosis of Public Language Use i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targets of the current study were a total of 44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crucial aspect of 2015 public language diagnosis is that it reinforced the diagnosis of communicative competence that had been initially carried out in 2014. While the current study still adopted the method used in previous studies (Min et al., 2011; Gu et al., 2012; Choi et al., 2013), it strived to overcome shortcomings found in the diagnosis of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developed a way to increase its objectivity and credibility.

The diagnosis of communicative competence for 44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tarted in April and finished in November and it was based on press releases produced from March to October. To be more specific, the main task of communicative competence diagnosis was to examine two documents that each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ubmitted every month and another two documents selected by researchers. Thus, a total of 1,383 press releases produced for six months were closely examined for the communicative competence diagnosis. To improve efficiency, 44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were classified into type Ga (14 agencies), type Na (15 agencies) and type Da (15 agencies) and data was collected and analyzed accordingly. The diagnosis of communicative competence was carried out first by citizen assessment team and later by expert assessment team.

The diagnosis of citizen assessment team on communicative competence had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at ordinary citizens participated in the procedure of communication assessment. However, since it primarily focused on the efficiency of diagnosis, it was in need of a way to increase the objectivity of diagnosis. Therefore,

researchers evaluated the accuracy of the press releases according to their own criteria and finally combined their results with those of citizen assessment team. In addition, based on the total score of the initial diagnosis, expert assessment team carried out the communicative competence diagnosis of three highest-ranking agencies and three lowest-ranking agencies in each type in order to finally determine superior and deficient agencies.

As a result of public language diagnosis for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in 2015, the number of selection as superior and deficient agencies is as follows:

Type	Agency	The number of selection as superior agency	The number of selection as deficient agency
G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0	8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2	1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1	4
	the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6	0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	1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3	0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6	0
	the Office of Legislation	1	0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0	0
	Korea Forest Service	2	0
	Korea Agency for Saemangeum Development	0	5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0	1
	Ministry of Unification	0	3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1	1
Na	the National Police Agency	0	0
	Fair Trade Commission	3	4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8	0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0	5

	National Tax Service	3	1
	Supreme Prosecutors' office	2	0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0	0
	Ministry of Justice	0	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	0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0	3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1	0
	Public Procurement Service	1	1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0	5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1	0
	Ministry of Environment	0	2
Da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1	0
	Korea Customs Service	3	1
	Ministry of Education	7	0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3	0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1	0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0	8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0	2
	Ministry of Science of ICT and Future Planning	0	0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0	2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1	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	3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0	4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	1
	Statistics Korea	2	1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3	0	

KEYWORDS: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etropolitan municipality, public language, press release, citizen assessment team, expert assessment team, communicative competence, accuracy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본 연구는 민현식 외(2010)에서 시작되었다. 민현식 외(2010)에서는 공공언어의 장르를 [표 1]과 같이 법률문, 보도 자료, 공고문, 기사문, 식사문, 안내문의 6개로 분류하고 이를 진단하기 위한 진단 항목을 [표 2]와 같이 체계화하였다.

공공언어의 장르	하위 유형
법률문	입법예고, 고시, 조례, 약관 등
보도 자료	일반 보도 자료, 해명 보도 자료 등
공고문	공모 공고, 인사 공고 등
기사문	
식사문	인사말, 축사, 신년사, 기념사 등
안내문	기관 안내, 업무 안내 등

[표 3] 공공언어의 장르

영역	요소	항목
1. 정확성 (범용 기준)	1.1. 표기의 정확성	1.1.1.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지켰는가?
		1.1.2. 띄어쓰기를 잘하였는가?
		1.1.3.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을 지켰는가?
	1.2. 표현의 정확성	1.2.1. 어휘를 의미에 맞게 선택하였는가?
		1.2.2. 문장을 어법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1.2.3. 문장을 우리말답게 표현하였는가?
2. 소통성 (가중치 기준)	2.1. 공공성	2.1.1.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2.1.2. 고압적·권위적 표현을 삼갔는가?
		2.1.3. 차별적 표현을 삼갔는가?
	2.2. 정보성	2.2.1. 정보의 형식이 적절한가?
		2.2.2. 정보의 양이 적절한가?
		2.2.3. 정보의 구성이 적절한가?
	2.3. 용이성	2.3.1.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였는가?
		2.3.2.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2.3.3. 시각적 편의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표 4] 민현식 외(2010)의 공공언어 진단 항목

또한, 이러한 진단 항목을 실제 진단 과정에 적용하기 위해 진단 지표(PDDI, Public Document Diagnosis Index)로 체계화하였는데, 이는 정확성 400점 만점, 소통성 600점 만점의 총 1000점 만점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정확성의 6개 진단 항목은 아래와 같은데, A에서 E까지의 5개 등급으로 항목별 진단을 실시한 후 이를 4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또한, 소통성의 9개 기준은 정확성에 비해 다소 복잡한 지표 환산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민현식 외(2010)에서 공공언어의 장르별로 소통성을 진단할 때, 각각의 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확성과 달리 소통성의 진단 기준은 모든 공공언어 범주에 동일한 배점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확성과 마찬가지로 9개의 진단 기준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계산되며, A에서 E까지의 5개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이 점수에 공공언어의 범주별로 상이한 가중치를 반영한 뒤, 그 합을 일정한 수식에 따라 6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요소	항목	배점	수식
1.1. 표기의 정확성	1.1.1.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지켰는가?	100	등급별 점수 부여
	1.1.2. 띄어쓰기를 잘하였는가?	100	
	1.1.3.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을 지켰는가?	100	
1.2 표현의 정확성	1.2.1. 어휘를 의미에 맞게 선택하였는가?	100	
	1.2.2. 문장을 어법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100	
	1.2.3. 문장을 우리말답게 표현하였는가?	100	
각 정확성 영역 합계		600	$C = \text{SUM}(G_{1.1.1} : G_{1.1.6})$
PDDI Correctness Criteria		400	$\{(C \times 0.666) + 0.4\}$

[표 5] 민현식 외(2010)의 정확성 영역 배점 방식

요소	항목	배점	수식	가중치
2.1. 공공성	2.1.1.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100	등급별 점수 부여	= G' × 가중치 변동값
	2.1.2. 고압적·권위적 표현을 삼갔는가?	100		
	2.1.3. 차별적 표현을 삼갔는가?	100		
2.2. 정보성	2.2.1. 정보의 형식이 적절한가?	100		
	2.2.2. 정보의 양이 적절한가?	100		
	2.2.3. 정보의 구성이 적절한가?	100		
2.3. 용이성	2.3.1.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였는가?	100		
	2.3.2.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100		
	2.3.3. 시각적 편의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100		
각 소통성 영역 합계		변동값	$C = \text{SUM}(G'_{2.1.1} : G'_{2.1.6})$	
PDDI Intelligibility Criteria		600	$C' = \{[\text{SUM}(G'_{2.1.1} : G'_{2.1.6})] \times \alpha\} + \beta$	

[표 6] 민현식 외(2010)의 소통성 영역 배점 방식

[표 4]에서 보도 자료의 가중치는 설문 조사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부여한 가중치(P)와 전문가들이 부여한 가중치(E)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였다.

세부 항목 내용	가중치 수식 $I = \{G_{\text{세부항목}} \times (P_{\text{가중치}} + E_{\text{가중치}})\}$	배점 (I보도 자료)
2.1.1.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I_1 = \{G_{2.1.1} \times (2.34+4.00)\}$	634
2.1.2. 고압적·권위적 표현을 삼갔는가?	$I_2 = \{G_{2.1.2} \times (2.69+4.29)\}$	698
2.1.3. 차별적 표현을 삼갔는가?	$I_3 = \{G_{2.1.3} \times (2.46+4.43)\}$	689
2.2.1. 정보의 형식이 적절한가?	$I_4 = \{G_{2.2.1} \times (2.58+4.57)\}$	715
2.2.2. 정보의 양이 적절한가?	$I_5 = \{G_{2.2.2} \times (2.62+3.86)\}$	648
2.2.3. 정보의 구성이 적절한가?	$I_6 = \{G_{2.2.3} \times (2.69+4.29)\}$	698
2.3.1.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였는가?	$I_7 = \{G_{2.3.2} \times (2.83+3.86)\}$	669
2.3.2.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I_8 = \{G_{2.3.2} \times (3.02+3.14)\}$	616
2.3.3. 시각적 편의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I_9 = \{G_{2.3.3} \times (3.12+4.43)\}$	755
	만점	6,122
I 합계	$\{6,122(I\text{보도 자료}) \times 0.098(\alpha) - 0.044(\beta)\}$	600

[표 7] 소통성 영역의 가중치 수식

이러한 진단 도구 개발을 실제 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보도 자료를 대상으로 적용한 연구가 민현식 외(2011)인데, 이 연구에서는 중앙행정기관 40곳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16곳의 보도 자료 4건씩을 선정하여 진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민현식 외(2011)에서는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였다.

등급	점수	해당 기관
1등급 (7곳)	총점 960점 이상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재청,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통계청
2등급 (28곳)	총점 940점 이상 960점 미만	행정안전부, 통일부, 법무부, 기상청, 특허청, 환경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토해양부,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조달청, 방위사업청, 보건복지가족부, 소방방재청, 국가보훈처, 해양경찰청, 국방부
3등급 (5곳)	총점 940점 미만	관세청, 산림청, 병무청, 외교통상부, 경찰청

[표 8] 2011년 중앙행정기관의 진단 결과

뒤 이어 구본관 외(2012)에서는 민현식 외(2011)와 같은 방식을 따르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 사항을 적용하여 ‘행정기관 공공언어의 진단’을 실시하였다.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중앙행정기관에 ‘국무총리실’을 추가하여, 중앙행정기관 41곳, 광역 지방자치단체 16곳의 총 57곳의 행정기관의 보도 자료를 진단한다.
- ② 2011년 진단에서는 기관별로 4건씩의 보도 자료를 선정하여 진단하였는데, 진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2년 진단에서는 기관별로 10건씩의 보도 자료를 진단한다. 이를 전반기 7건, 후반기 3건으로 나누어 진단한다.
- ③ 2011년 진단에서는 민현식 외(2010)에서 개발한 15개 진단 항목, 가중치 적용 방식, 배점 방식 등을 사용하였는데, 2012년 진단에서는 진단 대상이 크게 늘어남을 고려하여 진단 항목을 7개로 축소하고 가중치도 적용하지 않는다.
- ④ 2011년 진단에서는 세부 진단 항목별로, 등급 간 점수를 5점씩 차등하여 부여하였는데, 2012년 진단에서는 10점씩 차등하여 부여한다.

구본관 외(2012)에서는 2차에 걸친 연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단 결과를 등급화하였다.

등급	점수(700점 만점)	해당 기관(순위순)
1등급 (3곳)	총점 650점 이상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2등급 (31곳)	총점 600점 이상 650점 미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 기상청, 법제처, 병무청,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검찰청,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교육과학기술부, 해양경찰청, 경찰청, 중소기업청, 국방부, 통일부, 관세청, 농림수산식품부
3등급 (7곳)	총점 600점 미만	국세청, 국무총리실, 조달청,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표 9] 2012년 중앙행정기관의 진단 결과

2013년에는 민현식 외(2011)과 구분관 외(2012)의 방식을 취합하여 이용하되 한계점을 보완하고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2013년의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진단 자동화 도구 개발’을 병행한다는 데 있다. 진단 자동화 도구는 공공언어를 진단하고자 하는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었다. 진단 자동화 도구가 개발되어 모니터 화면을 통해 키보드와 마우스로 문서를 손쉽게 진단할 수 있었고 결과의 도출 역시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진단의 능률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또한 2013년 연구에서 개발된 자동화 도구에는 자가 학습 기능을 가진 오류 자동 진단 장치까지 탑재되어, 연구자의 진단은 물론 최초 문서 작성자의 오류 진단에도 도움을 줄 수 있었다.

2013년도 연구의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표 10]과 같이 중앙행정기관 42곳, [표 11]과 같이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의 총 59곳의 행정기관의 보도 자료를 진단했다.

구분	해당 기관	개수
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정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17
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3
청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17
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5

[표 10] 2013년 진단 대상 중앙행정기관

- ② 2012년 연구에서는 전반기 7건, 후반기 3건으로 나누어 기관별로 총 10건씩의 보도 자료를 진단하였는데 진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진단 자동화 도구를 활용한 작업 효율 향상을 살피기 위해 2013년 연구에서는 전반기 10건, 후반기 10건으로 나누어 기관별로 총 20건의 보도 자료를 진단했다.
- ③ 진단 대상 자료를 ‘보도 자료’로 한정하며, 보도 자료가 부족할 경우라도 다른 장르의 문서로 채워서 진단하지 않았다.

- ④ 2013년 연구에서는 진단 대상이 크게 늘어남을 고려하여 새로운 진단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2012년 진단 기준을 따라 총 7개의 항목으로 진단하고 가중치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등급 간 점수도 기존 10점씩 차등 점수로 유지했다.
- ⑤ 진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서 진단은 최초 진단 후 2회의 교차 재검을 거쳐 총 3회 진단했다.
- ⑥ 진단 작업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다수 진단자의 접근이 가능한 웹하드 서비스인 구글 드라이브(Google Drive)를 사용했다.
- ⑦ 전반기 진단 결과 ‘③’의 진단 기준에 수정이 필요할 경우 후반기에는 수정하여 진단한다.
- ⑧ 2013년도 연구 과제에서 개발하는 진단 자동화 도구를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변환 도구: 한글(HWP)문서를 수기 진단 도구로 진단할 수 있게 일괄 변환해 주는 도구
 수기 진단 도구: 수기 진단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문서 진단 도구
 자동 진단 도구: 수기 진단 시 오류일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자동으로 진단해 주고 진단된 내용을 학습하여 다음 진단에 반영하는 도구
 결과 출력도구: 진단한 문서의 결과를 자동으로 출력해 주는 도구
- ⑨ 전반기 진단 과정에서는 ‘수기 진단 도구’ 개발에 집중하고, 후반기 진단에서 ‘자동 진단 도구’를 ‘수기 진단 도구’에 탑재하여 이를 점검했다.
- ⑩ 문서의 진단과 진단 자동화 도구 오류의 개선을 병행했다.

2013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에서는 42곳의 중앙행정기관과 17곳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차 진단에서는 기관별 10건, 2차 진단에서는 기관별 10건의 보도 자료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였다. 1차 진단과 2차 진단 결과를 합산하여 그 결과를 순위화하면 다음과 같다.

등급	점수(700점 만점)	해당 기관(순위순)
1등급 (6곳)	총점 650점 이상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기상청, 통계청
2등급 (25곳)	총점 620점 이상 650점 미만	국토교통부, 환경부,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공정거래위원회, 병무청, 국세청, 조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급	점수(700점 만점)	해당 기관(순위순)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법무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특허청,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민권익위원회, 통일부, 검찰청, 관세청, 교육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3등급 (11곳)	총점 620점 미만	방송통신위원회,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국방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표 11] 2013년 중앙행정기관의 진단 결과

2014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에서는 44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14년 진단에서는 처음으로 소통성 평가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이 진단에서는 중앙행정기관 44곳에 대한 소통성 진단을 6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으며, 5월부터 10월까지 생산된 보도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소통성 진단은 매달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문서 2건과 연구진이 선별한 문서 2건, 총 4건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6개월 동안 생산된 총 1,056건의 보도 자료를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하였다. 진단의 효율성을 위하여 44개의 중앙행정기관은 가군(14개 기관)과 나군(15개 기관), 다군(15개 기관)으로 나누어 문서를 수집·진단하였으며, 시민평가단의 소통성 진단이 1차로 이루어지고, 전문가평가단의 소통성 진단이 2차로 진행되었다.

2014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결과, 각 기관의 우수 기관 선정 횟수와 미흡 기관 선정 횟수는 다음과 같다.

모듬	기관	우수 선정 횟수	미흡 선정 횟수
가군	국가인권위원회	1	3
	국민권익위원회	0	3
	기상청	4	0
	농촌진흥청	2	0
	문화재청	1	2
	문화체육관광부	1	0
	법제처	2	1

모듬	기관	우수 선정 횟수	미흡 선정 횟수
	병무청	0	4
	산림청	0	2
	새만금개발청	0	2
	소방방재청	2	0
	여성가족부	2	0
	통일부	3	0
	해양경찰청	0	1
나군	경찰청	1	3
	공정거래위원회	3	0
	국가보훈처	0	2
	국방부	0	3
	국세청	6	0
	대검찰청	0	0
	방송통신위원회	0	3
	방위사업청	0	1
	법무부	2	0
	보건복지부	2	0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조달청	2	0
	해양수산부	0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	2
환경부	1	0	
다군	고용노동부	3	0
	관세청	3	0
	교육부	1	1
	국토교통부	2	0
	금융위원회	1	3
	기획재정부	0	5
	농림축산식품부	0	1
	미래창조과학부	0	1
	산업통상자원부	2	2
	안전행정부	2	1
	외교부	1	1
	원자력안전위원회	0	3
	중소기업청	0	0
	통계청	0	0
	특허청	3	0

[표 12] 중앙행정기관 소통성 평가 모듬별 우수·미흡 기관 선정 횟수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에 대한 정확성 진단은 5월부터 9월까지 생산된 보도 자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정확성 진단은 매달 4건씩의 문서를 수집하여 진단하였으며, 5개월 동안 생산된 총 340건의 보도 자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14년 광역 지방자치단체 보도 자료의 정확성 진단 결과, 최종 순위는 다음과 같다.

순위	기관	음절 수	총점 평균
1	세종특별자치시	20,256	652.5
2	부산광역시	24,045	651.0
3	대구광역시	25,431	649.0
4	충청남도	26,595	647.0
5	경기도	27,872	642.5
6	대전광역시	25,605	641.0
7	울산광역시	22,548	639.0
8	광주광역시	20,751	634.0
9	전라남도	22,069	630.5
10	인천광역시	27,410	628.0
11	경상남도	25,734	627.5
12	경상북도	27,331	620.0
13	충청북도	21,699	619.5
14	서울특별시	37,525	617.5
15	제주특별자치도	24,528	614.5
16	강원도	25,166	596.5
17	전라북도	27,277	596.0

[표 13] 지방자치단체 정확성 평가 행정기관별 순위

2. 2015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개요

2014년의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소통성을 진단했다는 데 있다. 그동안 진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기관 공공언어의 소통성 진단을 미루어 왔지만 행정기관에서 얼마나 쉽고 얼마나 바르게 공공언어를 사용하는가를 진단하는 소통성 진단이야말로 중요한 진단이라 할 수 있다. 특히 6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진단을 한 후 월말에 진단 결과 및 총평을 각 기관에 전달함으로써 각 기관의 자체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2014년의 연구는 그 의미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민현식 외(2011), 구분관 외(2012), 최홍열 외(2013), 최홍열 외(2014)의 방식을 취합하여 이용하되 한계점을 보완하고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4년에서 처음 시도했던 소통성 진단을 보다 효과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과 절차를 개선해 나아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참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개편된 중앙행정기관 44곳의 보도 자료를 진단한다. 또한 효율적인 진단을 위해 생산되는 문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44곳의 중앙행정기관을 [표 14]와 같이 3개의 군으로 나누어 진단한다.

모듬	해당 기관	개수
가군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병무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여성가족부, 통일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4
나군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세청,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조달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15
다군	고용노동부, 관세청, 교육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소기업청, 통계청, 특허청	15

[표 14] 2014년 소통성 진단 대상 중앙행정기관

- ②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관에서 직접 제출한 문서 2건을 진단에 포함한다. 따라서 매월 제출 문서 2건, 선별 문서 2건, 총 4건의 보도 자료를 진단한다.
- ③ 진단 대상 자료를 ‘보도 자료’로 한정하며, 보도 자료가 부족할 경우라도 다른 장르의 문서로 채워서 진단하지 않는다.
- ④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진단을 위해 소통성 진단 항목을 간소화하여 진단한다.
- ⑤ 진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서 진단은 정확성 진단, 시민 평가단 진단, 전문가 평가단 진단의 세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 ⑥ 각 군별로 시민 평가단 4인¹⁾, 전문가 평가단 3인을 배정하여 평가한다.
- ⑦ 시민 평가단은 무작위 선별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과 연령을 고려한다. 전문가 평가단은 ‘학계 및 한글단체계’, ‘언론계’, ‘홍보계’의 세 개의 전문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각 군별로 고르게 배정한다.
- ⑧ 효율적인 진단을 위해 전문가 평가단의 진단은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전문가 평가단 진단은 시민 평가단 진단과 정확성 진단 결과를 합산한 후 상위 3개 기관, 하위 3개 기관, 총 6개 기관으로 한정한다.
- ⑨ 위 ‘⑧’은 시민평가단 평가를 60%, 정확성 평가를 40%로 하여 합산한다.
- ⑩ 효율적인 진단을 위해 시민 평가단은 ‘소통성 평가 세부 규정’을 활용하지 않는다.
- ⑪ 진단 결과 ‘④’의 진단 기준에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하여 진단한다.
- ⑫ 매월 진단이라는 특성상 ‘⑥’의 평가단은 교체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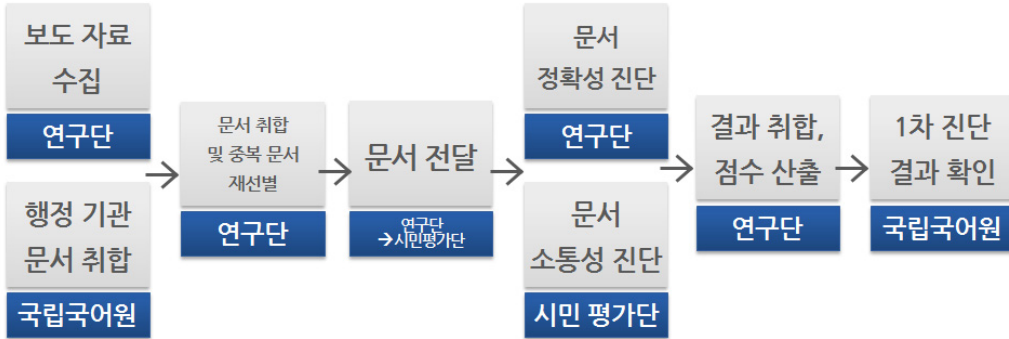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매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단을 수행한다.

1) 시민평가단의 수는 각 군별 4명에서 7월 현재 6명으로 확충되었고 최종적으로 각 군별 10명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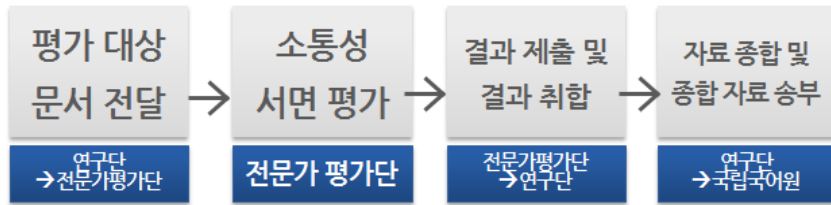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 문서 종합(기관당 2건) ■ 문서 선별(기관당 2건) ■ 시민 평가단 진단 및 정확성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기관: 중앙행정기관 44곳 - 대상 문서: 매월 기관별 4건(매월 총 176건) - 대상 문서의 생산 시기: 점검 직전 달 ■ 1차 진단 결과의 기관별 순위화 ■ 상위 3개 기관, 하위 3개 기관의 문서를 전문가 평가단에 전달. 	매월 첫 주 완료
↓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평가단 서면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기관: 각 군별 상위 3개, 하위 3개 기관 - 대상 문서: 6곳 기관별 4건(매월 총 24건) ■ 소통성 진단 기준 활용. ■ 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전문가 평가회의 자료로 활용. 	매월 둘째 주 완료
↓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평가회의 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전문가: 전문가 평가위원 각 군별 2명 ■ 최우수 기관 및 미흡 기관 선정 ■ 최우수 문서 및 미흡 문서 선정 	매월 셋째 주 완료
↓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행정기관에 결과 및 총평 전달 ■ 개선 유도 	매월 넷째 주 완료

[표 15] 중앙행정기관 대상 소통성 진단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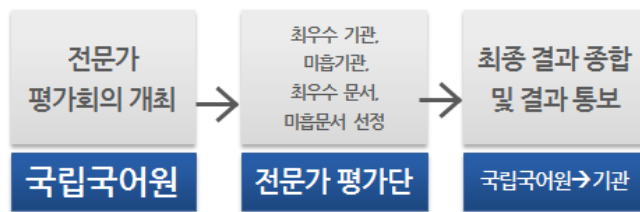
위 1단계부터 3단계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다음 [그림 1], [그림 2], [그림 3]과 같다.



[그림 1] 1단계



[그림 2] 2단계



[그림 3] 3단계

II. 세부 진단 방법 및 절차

1. 진단 대상 보도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2015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행정기관 44곳에 대한 보도 자료 진단을 실시한다.

중앙행정기관 44곳에 대한 진단을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였으며, 3월부터 10월까지 생산된 보도 자료를 대상으로 했다. 진단은 매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보도 자료 2건과 본 연구진이 선별한 보도 자료 2건, 총 4건씩을 대상으로 하며, 8개월 동안 생산된 총 1408건의 보도 자료를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한다.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고 진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44개의 중앙행정기관을 가군(14개 기관)과 나군(15개 기관), 다군(15개 기관)으로 나누어 문서를 수집하고, 진단한다.

진단 대상인 44개의 중앙행정기관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관	개수
가군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병무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여성가족부, 통일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4
나군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세청,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조달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15
다군	고용노동부, 관세청, 교육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소기업청, 통계청, 특허청	15

[표 16] 소통성 진단 대상 중앙행정기관의 분류

진단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44개 중앙행정기관의 보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 ① 소통성 진단의 대상이 되는 보도 자료의 생산 시기는 2015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 ② 44개의 중앙행정기관은 매달 2개의 우수 문서를 제출하고, 본 연구진은 매달 2개의 미흡문서를 선별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에서 보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구진이 추가로 2건의 선별 보도 자료를 수집한다.
- ④ 해당 월에 등록된 ‘보도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하되, 해당 월에 ‘보도참고자료’만 등록되어 있을 경우 ‘보도참고자료’를 수집한다.
- ⑤ 해당 행정기관이 직접 생산한 보도 자료만을 선정한다. 다시 말해, 상위 기관에서 생산한 보도 자료를 게시한 한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 기관에 따라서는 하위 부처별로 보도 자료를 게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선정 대상에 포함한다.
- ⑥ 행정 기관의 본청이 생산한 보도 자료만을 수집한다.
- ⑦ 본청 소속의 하위 기관이나 부처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보도 자료 역시 수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단독 보도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공동 보도 자료를 수집한다.
- ⑧ 첨부 파일로 제시된 PDF 형태의 보도 자료는 예년 진단 때처럼 한글 파일(.hwp)형태로 변환하지 않고, PDF 파일 그대로를 수집한다.
- ⑨ 다른 조건이 비슷할 경우, 조회 수가 높은 보도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보도 자료 선정의 우선순위는 내용이나 형식이 유사할 경우, ‘분량’, ‘조회 수’, ‘시기(최근)’의 순에 따른다.
- ⑩ 본문 이외에 첨부 자료는 삭제하여 수집한다.
- ⑪ 해당 행정기관의 누리집에 대국민용으로 공개된 것들만을 수집한다.
- ⑫ 보도 자료의 내용은 대국민 정보 공개 및 정책 안내의 성격을 띠는 것을 위주로 한다. 이때, 지나친 기관 홍보나 기관 해명(입장 표명)의 목적을 지닌 보도 자료는 가능한 수집을 삼간다.
- ⑬ 행정기관 누리집에 보도 자료가 등록된 월과 생산된 월이 다른 경우가 있을 때, 보도 자료 생산 월을 기준으로 수집한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수집한 1408개의 보도 자료를 가군(14개 기관), 나군(15개 기관), 다군(15개 기관)의 순서로 목록화하고,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 ① 5월 진단까지의 가군, 나군, 다군의 보도 자료는 중앙행정기관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연번을 부여했으나, 6월 진단부터는 매 평가 시마다 본 연구진이 무작위로 기관에 연번을 부여했다. 이는 기관 순서가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며 국립국어원과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였다.
- ② 제출 자료에 앞선 번호를 부여하며 생산 시기가 빠른 보도 자료에 앞선 번호를 부여한다.
- ③ 각 보도 자료에 제시된 연번은 해당 보도 자료 고유의 번호로 이후에 진단 결과를 제시하는 데 활용한다.
- ④ 매달 생산되는 문서의 연번은 가군 1 ~ 56, 나군 57 ~ 116, 다군 117 ~ 176으로 목록화한다. 단, 해당 월의 보도 자료가 부족한 기관의 경우는 빠진 문서의 번호를 비워둔다.
- ⑤ 개별 보도 자료의 분량이 달라서 생기는 진단의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음절 수를 함께 제시하고, 실제 진단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여 배점한다.

44개 중앙기관의 소통성 진단 대상 문서를 목록화하면 다음과 같다.

□ 가군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국가인권위원회	3월	제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적용 대상자 확대 및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 개선해야	1,402
			정신보건심판위의 퇴원명령 불이행한 병원장 검찰 고발	994
		선별	"장애인 콜택시의 휠체어 고정장치, 안전벨트 등 안전사고 방지위한 세부기준 필요"	1,394
			인권위, "롯데자이언츠 구단의 CCTV를 이용한 선수의 사생활 감시는 인권침해"	1,336
	4월	제출	인권위, "115개 공공기관 인권 경영 적용 권고 수용"	1,326
			인권위, "정신보건시설 입원 환자들 선거권 보장받도록 지원해야"	995
		선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 개정 권고"불수	795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국가인권 위원회			용”공표	
			인권위, “강의시간에 강의와 관련 없는 나이, 전공 등 질문한 것은 인격권 침해”.	822
	5월	제출	인권위, 「제12회 한센인의 날」 인권순회상담	990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개선 권고 불수용 공표	1,051
		선별	국내에 휠체어 승강설비 장착한 고속. 시외버스 한 대도 없어	1,745
			인권위,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의장 초청 특별강연 실시	1,385
	6월	제출	인권위, 신체의 자유 침해한 체포행위에 대해 경찰관 징계권고	1,085
			인권위, “태권도 단증 취득여부로 사병의 휴가·외출 등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아”	744
		선별	지적장애인 금전 및 보조금 횡령 혐의, 검찰 수사 의뢰	3,880
			OHCHR 서울사무소에 대한 기대와 전망 토론회	896
	7월	제출	개방형 구치감 화장실 인격권 침해	1,155
			“계부모도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1,353
		선별	피의자를 엮어진 자세로 끌고 간 행위는 인격권 등 침해	1,257
			학칙에 근거없는 학생외부활동 제한 관행 개선	1,619
	8월	제출	“경찰공무원 경찰행정전공 특채시, 학점은행 학위 배제는 차별”	1,169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취임후 첫 인권현장방문으로 ‘나눔의 집’ 방문	744
		선별	체포사실 통지 시 전과(前科)내용 기재는 인권침해	1,250
			공무원시험 응시 장애인에게 메모대필 편의 제공해야	1,099
	9월	제출	최고 34도 넘는 한여름, 교도소 조사수용실 정원초과는 인권침해	1,332
			“○○전문대 항공운항과, 2018학년도 신입생모집부터 남성도 지원”	1,082
		선별	의사표현 어려운 지적장애인 위한 응급대응체계 마련해야	1,678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국민권의 위원회	10월	선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업군 8개에서 14개로 확대 ... 장기요양서비스 표준화 기준 마련키로”	1,466
		제출	“무죄판결 관보 게재 시, 피고인 의사 및 개인정보 존중돼야”	873
			국가기술자격시험 화장실 출입금지, 제도 개선해야	1,191
		선별	“재활치료를 위한 병가사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	1,069
			인권위, 긴급성 요건 갖추지 못한 긴급 체포 행위에 제동에	884
	3월	제출	77세 노인, 54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로 요건 인정	1,008
			권익위, 보험금 지급 조사 관련 '위임장 사용' 안내 의무화 권고	1,958
		선별	권익위, 창원시 음식폐기물처리실 조기 이전 현장 조정	1,009
			부정당업자 제재는 법원의 기업회생 취지 등 고려해야	961
	4월	제출	40년 만에 복원되는 경북 안동 군자마을 민속문화재.	1,144
			권익위, 전북 익산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현장조정	1,264
		선별	행정청 착오로 지급된 참전명예수당 환수는 안 돼.	912
			권익위, 기업 사유지 내 군용철도 철거해 고층 해소.	1,183
	5월	제출	의경 복무 중 질병 악화했다면 '공상' 인정할 수 있어	2,333
권익위, 축산물·식품 안전인증관리체계 개선 권고			1,610	
선별		5개 정부기관 민원 상담전화 '110번'으로도 가능	992	
		권익위, 국제 컨퍼런스 통해 기업 윤리경영 지원방안 논의	1,089	
6월	제출	여름철 악취...공장매연, 분뇨, 쓰레기, 오폐수 순으로 나타나	1,501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 지난해 첫 감소 ▼6.6%	2,624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국민권익 위원회		선별	공공재정 부정사용 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1,031
			권익위, 국립묘지 안장 거부당한 학도의용군 등 권익 수호	1,138
	7월	제출	선박안전, 아동학대, 급식 위생불량 등 이제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1,686
			권익위, 집단급식소 인력배치 규정 간 충돌 개선방안 마련	1,817
		선별	권익위, 20일,21일 천안,공주시 이동신문고 운영	1,058
	8월	제출	권익위, 군사시설물 상업광고 부당 이용 관행 쇄신	811
			주유소, PC방 인수 시 기존 행정처분 확인 가능해진다	2,163
		선별	국내여행 민원...요금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아	868
			보육교사 기소유예만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는 잘못	770
	9월	제출	권익위, 27일부터 제주도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1,004
			권익위, 다음 달 2일까지 '추석 먹거리 안전' 신고 접수	1,252
		선별	110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추석 연휴 정상운영	1,406
			거주사실 증빙자료 없었던 집주인 이주정착금 보상받게 돼	924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주택 있었다면 재건축 허용해야	1,307
	10월	제출	공공기관 제출 사진,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된다	1,293
			전국 64개 '역주행 교통사고 우려 지점' 개선 추진	1,599
		선별	실제 고용 인원 확인 없이 산재신고 반려는 잘못	1,008
	국민 안전처	3월	제출	권익위, 잘못된 여권 영문 이름 변경해줘야
국민 31명 중 1명이 119구급차 이용				1,368
선별			반부패 '청렴 서약서' 가족에게 직접 우편 발송	902
4월		제출	국민안전처, 긴급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 개최	577
			자연재해 피해주민 원스톱서비스 13개 분야로 확대	1,214
		선별	도서지역 편의점을 구호물품 지원처로 활용.	985
			"안전한 나라는 어린이 안전에서 시작합니다"	980
4월		선별	정부·지자체 재해복구사업 조기 추진에 힘모아	1,168
			환절기 자동차용 에어컨 탈취제 화재사고 주의보 발령	1,161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국민 안전처	5월	제출	대규모 해양사고 인명구조 능력 키운다	809
			국민안전처, '중앙·지방 재난대응 연대 박차'	1,015
		선별	지하철 유독가스 사고 대피 훈련 실시	1,087
			119구급대원 전문성 향상시킨다	715
	6월	제출	광주 U-대회 안전과 성공개최 적극 지원	822
			가뭄피해 지역 특별교부세 60억원 긴급지원	564
		선별	집중호우 등 우기대비 사업장 안전대책 점검	752
			국민안전처, 정책실명제 확대 강화하기로	1,117
	7월	제출	올 여름 물놀이는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하게!	1,221
			국민안전처, 지자체별 안전수준 알 수 있는 안전지수 공개	3,279
		선별	요양병원 소방시설 기준 강화된다	732
			소방차 길 터주기' 함께 해 주세요	728
	8월	제출	안전시설 미비가 교통사고 주요 원인, 총 443건 시설개선 계획	1,586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 불안감 대폭 감소	1,826
		선별	바다에 몰래 버리는 기름 꼼짝마	1,136
			갈수록 진화하는 재난, 복합재난 관리 시작	1,093
	9월	제출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지 않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1,333
			국민안전처, 추석 연휴기간 특별경계근무	1,888
		선별	유·도선 현장 안전관리 실태 중앙합동 기획점검 실시	1,554
			무등록 수상레저기구 처벌기준 강화 및 수상레저 활동 안전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1,436
10월	제출	현장중심의 통합적 재난관리시스템으로 확대 개편	2,233	
		행락철 안전위협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1,197	
	선별	서해EEZ 불법 외국어선 대응태세 이상 무	918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석촌호수 수위저하 현장 점검	1,199	
기상청	3월	제출	돌발적인 봄철 해양 안전사고 대비, 기상해일 감시망 확대	728
			사진이 말하는 날씨이야기, 전시회에서 만나요!	701
		선별	항공기상청,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기상국제회의' 개최	674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단계적 민간 기술이전 추진	702
	4월	제출	올여름 태풍 정보 서비스로 더욱 안전해진다	675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기상청			황사 미세먼지의 입체적인 감시를 위해 학연관이 뭉치다	1,017
		선별	식품, 외식, 프랜차이즈산업, 날씨경영으로 맑음!	628
	가뭄 속에 내린 봄비의 경제적인 가치는.		955	
	5월	제출	기상분야 인재들 국제무대 진출의 날개를 달다	756
			지진 바로알기, 기상청이 찾아갑니다!	486
		선별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클라우드로 확 바뀌다!	1,094
			국민안전 지진정보 더 빨리 알린다!	997
	6월	제출	아시아 · 아프리카, 한국 기상예보 기술 배운다!	525
			기상청, 위험기상 피해 ‘예방 백·신’ 영상 제작·보급	732
		선별	‘광주U대회’, 날씨정보와 함께 뚝! 뚝!	900
			기상청, 강수화학 분석능력 세계 1위!	1,064
	7월	제출	꿈나무, 기후변화의 미래를 보여주세요!	583
			날씨경영으로 기업날씨 쾌청!	678
		선별	태풍 3개 발생, 장마전선 북상	1,267
			기상청,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로 앞서나가다	782
	8월	제출	오감만족 날씨 이야기, 영상으로 나누세요!	640
			기후변화,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입히다	580
		선별	서울 선정릉 녹지, 도시 냉각 효과 입증	746
			기상 자료, 이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677
	9월	제출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한·중 기상협력도 탄력!	909
			점점 더워지는 한반도, 아열대화 전망을 말하다	694
		선별	올해 첫 단풍 평년보다 1, 2일 빠르고, 절정은 평년과 비슷	1,054
			올가을, 날씨제보 앱으로 단풍도 보고, 상품도 받고	1,042
	10월	제출	기상청, 2018년까지 지진관측 장비 노후화율 0% 도전!	775
기상정보, 더 잘 쓰고 더 나누면 ‘좋은 날’			552	
선별		차세대 정지궤도 기상위성 개발 박차	1,436	
		‘기상청, 항공용 라이다 도입 관련 민사소송 승소	1,593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농촌 진흥청	3월	제출	체질별로 골라먹는 정월대보름 오곡밥	1,028
			‘토종 약초’ 식탁 위 건강 밥상으로 만나다	1,163
		선별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업무 보고와 농촌 현장 방문	455
			맞춤형 한우 신랑 찾기, ‘한우리’에서 쉽게 하세요	841
	4월	제출	“개도국도 함께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 연계 시범 마을 조성	1,206
			인생 2막 위해 귀농 귀촌인 55% 1년 이상 준비	1,919
		선별	농촌진흥청, 협업을 통한 중앙-지방 상생전략 마련	987
			‘지식재산권으로 무장한 농업인’, 경쟁력도 쑥쑥!	1,132
	5월	제출	노동력 줄이는 포도 꽃송이 다듬는 기술 개발	829
			“이 달의 식재료로 풍성한 식탁 차리세요!”	1,034
		선별	아토피 잡는 항생물질 왕지네서 찾아냈다	1,315
			흙의 소중한 되새기는 ‘흙의 날’ 생겼다	900
	6월	제출	‘장수풍뎅이 애벌레’, 식탁에 오른다	907
			수입 의존했던 ‘씨돼지·씨닭’ 국산화 기반 마련	2,166
		선별	“보리·양파·감자로 6월 밥상 푸짐하게 차리세요”	872
			‘채소신선도유지’ 프로폴리스 활용기술 개발	758
	7월	제출	제철 칼옥수수, 껍질 한 겹 남기고 찌면 더 맛있다	683
			“맛·영양 듬뿍 담긴 고소애 음식 드셔 보실래요?”	1,185
		선별	지역 한우산업 어려운 점 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1,081
			국산 식량 작물 소비 확대 위해 연구 기관·산업체 손 잡는다	1,138
	8월	제출	국산 여름 딸기, 농가·산업체·소비자 사로잡고 세계 시장 진출	1,185
			“늦더위, 약초 청으로 입맛과 건강 챙기세요”	1,098
		선별	도시민, 향토 음식 체험이 제일 좋아요	992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으로 농가 생산성 높인다	875
9월	제출	농촌진흥청, 추석 앞두고 안전한 예취기 사용 방법 소개	1,004	
		추석 명절 맛있는 과일, 어떻게 고를까?	1,347	
	선별	외국인 한국 지역 음식 맛보기 프로그램 가장 좋아해	1,697	
		추석 남은 음식으로 별미 만들어보세요	1,622	
10월	제출	“우리 집 골목길에 들어선 마을정원을 소개합니다”	1,798	
		“수협생 불안, 약초로 싹 날리세요”	1,083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선별	유통, 마케팅 종사자에 농식품 소비 빅데이터 제공한다	783
			자생약초 '영경귀' 관절염에 효과 있어	783
문화재청	3월	제출	백제왕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1,314
			덕종어보, 드디어 우리 품으로	1,096
		선별	백제사찰 최신 연구성과를 일본에 소개하다	711
			'제주흑돼지' 천연기념물 지정	1,259
	4월	제출	'문화가 있는 날' 궁궐에서 만나는 인문학의 향기	1,272
			국민이 손수 심은 전통 들꽃 고궁을 수놓다	985
		선별	불국사, 이젠 내 손안에서 제대로 보고 느낀다!	1,622
			우리 고장 문화재는 안전하게 내가 지킨다!	1,613
	5월	제출	5월의 주말, 궁(宮)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이야기	1,189
			문화유산으로 전하는 꿈과 용기 그리고 희망	999
		선별	덕수궁에서 명사를 만나다	1,209
			세종대왕 탄신 618돌 승모제전 봉행	916
	6월	제출	고려 정궁(正宮) 개성 만월대, 6개월간의 남북 공동 발굴 첫삽을 뜨다	1,127
			쾌적하고 안전한 고궁과 왕릉, 7월 한 달 무료!	896
		선별	춘천 중도 유적에서 삼국 시대 무덤 발굴	1,377
			우리 지역 문화유산을 더욱 빛나게!	1,237
	7월	제출	도전! 차세대 문화유산 외교관	1,354
			민족의 노래 「아리랑」, 국가지정문화재 된다	1,159
		선별	법령 근거 없는 문화재의 시·도외 반출 금지 제도 폐지된다	1,472
			사찰유물전시관 등 문화재 다량소장처, 국가지원 받는다	940
8월	제출	고궁과 왕릉에서 나누는 광복의 기쁨!	879	
		두둥실 보름달 떠오르는 창덕궁 밤하늘	976	
	선별	나도 덕수궁 어린이 전시 해설사!	1,198	
		어린이 제관, 종묘 제사상을 올리다	838	
9월	제출	국민이 손수 짓는 문화유산 안내문	1,154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선포식 개최	1,204	
	선별	한가위처럼 풍성한 9월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2,323	
		달 밝은 가을밤, 고궁 나들이 어떠세요	2,392	
10월	제출	해외로 가지고 나가려는 미술품, 반출 금지된 문화	1,441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제출	재인지 사전에 감정받으세요		
			가을철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1,039	
		선별	우리 지역 문화재에서 발견하는 생생한 감동	1,696	
			「남한산성」 사적 추가 지정	948	
	문화체육 관광부	3월	제출	할머니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 정말 기다려 주세요!	1,077
				도서관에서 즐기는 세계문화 체험, 다문화 이해 높 인다	1,523
			선별	문체부, 한국-아랍에미리트 업무협약으로 문화원 신설 추진에 활력 얻어	1,181
				반가의 전통 조리서, ‘음식디미방’을 아시나요?	1,258
		4월	제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대표 관광지 100곳은 어 디?	1,548
				대한민국 호텔 등급 표지 ‘별’ 문양으로 바뀐다	1,376
선별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으로 만화 분야 창작자 보 호 나서	1,600	
			황금연휴 맞아 “친절한 대한민국, 우리가 먼저” 캠페인 전개	1,846	
5월		제출	소외 아동·청소년, ‘꿈의 오케스트라’로 무대에 선 다	1,567	
			우리 동네 문 달은 진료소, 초등학교가 생활문화센 터로	1,446	
		선별	영화스태프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마 련	1,603	
			‘헬로, 미스터 케이!(Hello, Mr. K!)’로 한국문화 알 려요!	1,144	
6월		제출	청춘아, 관광두레를 부탁해!	1,146	
			한국 건축문화를 선도할 젊은 인재 선정	1,022	
		선별	문체부, 산업현장의 창의적 제안에 귀 기울인다	1,371	
			원로 예술인들 주축 되어 지역문화예술 꽃피운다	1,087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7월	제출	국민의 아이디어가 담긴 ‘대한민국’을 공개합니다!	2,021
			상상으로 채우는 숲속 음악 놀이터, 2015 꿈의 오케스트라 ‘이음캠프’ 개최	1,564
		선별	문체부, ‘제2의 김병찬 선수’ 없도록 지원제도 마련	1,266
			문체부, 국제수준의 통계 관리 시작한다	1,686
	8월	제출	‘유쾌한 인문학’, 삶에 인문을 입히다	1,384
			움직이는 예술정거장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갑니다!	1,239
		선별	안전한 체육시설 관리를 통한 건강한 삶 구현	1,278
			문화누리카드, 더 많은 이웃과 문화를 나눕니다	1,300
	9월	제출	전국 곳곳 인문 활동 현장으로 ‘인문쟁이’가 간다!	1,109
			‘큰 글씨 책’으로 독서의 즐거움을 되찾아드립니다	1,300
		선별	중국 내 한류상품의 무분별한 बे끼기에 제동 걸린다	2,201
			전국 박물관의 국가 문화유산 관리·공유 더 편리해진다	1,417
	10월	제출	‘한국다움에서 찾아가는 인문정신: 상생, 화합, 존중...’	1,499
			2015년 예술꽃 씨앗학교 성과공유회 <예술이 꽃피는 숲> 개최	1,182
		선별	문화가 있는 날, 문화융성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아	2,113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마련	1,237
법제처	3월	제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 주택규모(85㎡ 이하, 초과)로 판단해야	1,833
			법제처, 제8기 어린이법제관 모집	703
		선별	국민안전을 위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1,087
			법제처 차장, 캄보디아·라오스 방문을 통한 법제 한류(韓流) 기반 마련	1,313
	4월	제출	5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4,935
			휴게시간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단축할 수는 없어	1,152
		선별	‘내 손 안의 법전’을 만나보세요!	1,041
			건축물 전체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이라도 1개 업체만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1,107
	5월	제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기업의 의사에 따라 기업의 지위를 변경할 수는 없어	1,330
			산림기술자의 이중 취업의 범위는 자격이 요구되	2,145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법제처			는 직무에 따라 결정해야	
		선별	법제처 제8기 어린이법제관 지역별 토론타당 개최	966
			법제처, 법령 외국어 번역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법정부 지원체계 구축	818
	6월	제출	외국인도 아파트 동 대표 될 수 있어	1,155
			스마트폰 콜택시 앱의 추가요금은 부당한 운임에 해당	1,383
		선별	법제 분야 ICT 협력을 통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	986
			4층 또는 5층 어린이집 반드시 스프링클러 설치해 야!	1,658
	7월	제출	국민의 아이디어로 국민행복법령 만들어	995
			숙박을 금지하는 야영장이라도, “야영장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아!	1,216
		선별	법제처 법령해석제도, 창조적 법문화 선도	700
			첨단과학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	907
	8월	제출	전자담배 기기는 경고 문구 표기의무 없어	1,401
			아파트경비원, 보일러·전기기사 등 감시적·단속 적(斷續的) 근로자도 가산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어	1,229
		선별	중도매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동일인이 새로운 중도매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중전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가 될 수 있어	1,404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간접 선출은 특수한 경우 에만 가능	1,119
	9월	제출	폐기물 운반차량에 부착되는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은 엄격하게!	1,384
			법제처, 제8기 어린이법제관 대상 “법령퀴즈 골든 벨” 개최	1,302
		선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협업 강화	1,469
			법령정보, 방송 콘텐츠와 결합해 정책품질 높여	1,245
	10월	제출	론카드로 현금인출 시 ‘출금수수료’도 이자에 해당	1,798
모든 학교급식은 학교장이 직접 관리, 운영해야			1,063	
선별		생업상 사정 등에 해당되어 전매제한 분양권이 전 매된 경우, 그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 효력은 없 어진다	1,577	
		몽골에 부는 ‘법제 한류(韓流)’	1,070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병무청 ²⁾	3월	제출	병무청,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무상담 실시	755
			부모님과 함께하는 병역설계 '우리 아들 군대 어떻게 보낼까?'	706
		선별	병무청, 2015년도 사회복지무요원 보수교육 시작	551
			병무청,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교육 시작	913
	4월	제출	국민의 소리, 현장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788
			특기에 맞게 군대도 가고, 전역 후 취업 지원도 받고!	772
		선별	병무청, 제5회 어린이 그림·글짓기 공모	1,072
			병역기피자 성명·연령·주소 등 인적사항 공개	1,117
	5월	제출	사회복무요원, 심리적 고충상담 국방헬프콜로 받는다!	756
			병무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지원인력 지원	893
		선별	나라지킴이 3대 가족 ... 병역명문가 시상식	2,020
			병무청, 청렴실천 선포식 개최	679
	6월	제출	현역병 입영시기 선택... 이런 설계가 필요해요!	1,001
			군에서 연마한 기술로 취업에 성공한 사례 등 공모	464
		선별	7월 1일부터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 시행	787
			병무청, 2016년도 사회복지무요원 인원 배정	827
	7월	제출	병무청, 입영대상자 응원 영상 공개!	1,183
			병무청, 2016년도 입영대상 카툰사 모집	638
		선별	병무청, 별난 병역이행 가족을 찾습니다.	912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626
	8월	제출	병무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663
			병무청, '대한사람 대한으로 2015' 발간	900
		선별	광복 70주년 임시공휴일 징병검사 휴무	467
			병무청, '군 장병에게 보내는 감사편지' 접수 시작	814
	9월	제출	병무청, 병역이행 불편사항 국민제안 공모	1,070
			병무청, 사회복지무요원의 수기집 '짧음 향기로 피어나다 2015' 발간	1,681
선별		병무청, 청렴시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1,037	
		보도 자료 없음		
10월	제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원 인터넷 접수 시작	465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산림청			해군·해병·공군 모집 시 성적 반영 완전폐지 등 제도개선	826
		선별	병무청, 자원 병역이행(영주권자, 질병치료 등) 병사 격려	757
			병무청, '별난 병역이행 가족 찾기' 공모 수상가족 발표!	664
	3월	제출	'나무 안아주기' 행사 참여하면 국립수목원 무료 이용	806
			숲과 어우러진 산촌마을, 스트레스성 질환 치유에 도움	1,035
		선별	산림청, 올해 667억 원 투입... 사유림 8,620ha 매수	689
			산림청, 전국 소나무류 유통·취급 업체 일제 단속	709
	4월	제출	국립산림과학원, 식목일에 나무병원 무료 운영	842
			일본에만 살던 '섬진달래', 우리나라에서 최초 확인	820
		선별	산림청, 친환경 나무베기 해 산림생태계 보전 앞장	878
			산림분야 규제개혁신문고 분석 결과... 산지이용 관련 건의 가장 많아	737
	5월	제출	만 65세 이상, 6월부터 전화로 휴양림 예약 가능	957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두고 방문객 2배 이상 늘어	1,014
		선별	산림청,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해 산사태 예방	563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한 실전 산불 훈련	861
	6월	제출	독초와 산나물 헛갈리면 안돼요	1,289
			여름방학에 숲에서 교원연수 받으세요	1,465
		선별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연장 운영	813
			여름철 태풍 대비... 표고버섯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	1,182
	7월	제출	능소화 꽃가루, 눈에 들어가도 실명 위험 없어	1,732
			국립자연휴양림, 9월부터 주말이용객 추첨해 선정	1,497
선별		하반기 달라지는 산림관련 제도	2,514	
		산림청, 수해 대비 숲가꾸기 사업장 중점 점검	949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8월	제출	우리 소나무의 광복 선언... 한반도 자생식물 영문 명 바로잡기	1,459
			산림청, 부처간 떠넘기기 '핑퐁 민원' 없앤다	1,174
		선별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신규(재)발생지 관리 강화	910
			산림청, 벌기령 완화해 산주 소득 약 200억 원 증대	908
	9월	제출	불법 산지 훼손! 항공사진으로 찾아낸다	1,569
			목재펠릿 원료이력 증명 완화, 품질관리는 강화	1,084
		선별	나무 등기하고 소유권 인정받아요	1,648
			재선충병 훈증방제, 유해물질 위험 없는 것으로 나타나	1,778
	10월	제출	산림청, 결재서류 원문 공개 '최고'	846
			'은행잎으로 암·수 구분 기술! 중국까지 접수	745
		선별	가을철 올바른 등산문화로 우리 산 지켜주세요	927
			산림청, 최악의 가뭄, 가을철 산불방지 협조를	798
새만금 개발청	3월	제출	새만금 규제특례 도입으로 한·중경협단지 조성 탄력	1,932
			보도 자료 없음	
		선별	보도 자료 없음	
			보도 자료 없음	
	4월	제출	2015 새만금상설공연 아리울스토리 개막	936
			화학분야 글로벌 기업, 솔베이실리카 새만금에 등지	1,428
		선별	새만금개발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업무협약 체결	795
			보도 자료 없음	
	5월	제출	보도 자료 없음	
			보도 자료 없음	
		선별	보도 자료 없음	
			보도 자료 없음	
	6월	제출	새만금 개발 가속화에 따른 '투자설명회' 개최	2,027
			새만금, 「한·중 FTA 산단」 지역으로 선정	1,597
		선별	“새 출발은 새만금에서 하세요.”	1,077
			새만금개발청 - 한국국토정보공사 업무협약 체결	1,033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새만금개발청 ³⁾	7월	제출	새만금청 중국기업유치, 투자어로해소 모범사례 선정	1,165
			새만금, 동서통합도로 착공으로 내부개발 본격화	1,070
		선별	새만금 창작이야기 '여름, 꽃이 피다' 웹툰 제작	766
			새만금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구현 가시화	1,129
	8월	제출	새만금개발청, 한·중 대기업 대상으로 홍보·투자유치 추진	1,168
			새만금 관광명소화를 위한 생태체험 공간 조성	854
		선별	새만금개발청, 고객감동 서비스 구현에 발 벗고 나서	808
			새만금에 투자협약 체결기업 52개사 맞춤형 관리	964
	9월	제출	새만금산업단지, 규제완화로 개발 가속화	1,549
			「네덜란드 항공우주분야 연구소」 새만금 유치	1,844
		선별	새만금개발청, 남북2축도로 등 신규 사업 추진	1,262
	'새만금청, 중국-아세안 기업 대상 투자유치 추진		955	
	10월	제출	새만금개발청, 「입주기업 맞춤형 선제적 대응시스템」 개발	1,058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 가시화	2,089
		선별	금융투자협회 회원사 투자기회 찾아 새만금 방문	928
			새만금개발청, '산업단지 조성원가 절감'워크숍 개최	709
여성가족부	3월	제출	자녀 양육비 못 받은 이혼·미혼 한부모, 전문기관이 도와준다.	1,466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국내 주요기업과 정부가 함께 나선다.	1,142
		선별	청소년 의견이 반영되는 청소년 정책! 여성가족부, 2015년 청소년참여위원회 힘찬 출발~	1,265
			여성가족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원하는 양성평등 정책 우수 과제 선정	1,231
	4월	제출	다누리콜센터 1577-1366 통합 1년 만에 11만 3천여 건 상담, 전년 대비 21.6% 증가	1,369
			「작은결혼·가족행복 만들기」 4대 종단과 여성가족부 함께 나선다!	1,291
		선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 본격 추진.	1,939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돕는 해바라기센터 2개소 신설된다		1,248	
	5월	제출	5월에는 가족에게 마음(고마움, 미안함, 사랑)을 전하세요!	1,297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여성인재, 기업의 별이 되도록 돕는다.	1,127
		선별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보듬는 동료상담원으로 양성	857
			성년을 맞는 청소년이여! 열정을 깨워라!	1,159
	6월	제출	불안하고 우울한 청소년들 디딤센터에서 힐링(healing)	1,673
			눈만 뜨면 인터넷·스마트폰, 이제 쉼표를 찍어주세요!	1,762
		선별	청소년, 무료 금연침 맞고 담배 끊어요!	819
			신임 5급 공무원부터 고위공무원까지 양성평등교육 강화된다.	1,110
	7월	제출	3개월 간 양육비 이행 합의 110건 이끌어 일과 후 저녁에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1,268
				1,249
		선별	여성단체와 함께 임산부 배려문화 조성 캠페인 실시	895
	남성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꽃보다 아빠’가 나선다.		1,624	
	8월	제출	유관순 열사 외 다른 여성독립운동가들도 아십니까	2,036
			세대주가 아닌 여성도 공공매입임대주택 신청 가능 등	2,568
		선별	결혼중개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1,378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해법, 기업과 함께 모색한다	1,426
	9월	제출	‘多문화 대한민국 多같이 만들어가요’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이런 속담은 이제 그만!	2,942
				2,290
		선별	대한민국 ‘여성인재활용 정책’ APEC에 전파	2,541
	청소년 알바, 이것만은 알고하자		1,896	
	10월	제출	개원 1년,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유 중심기관으로 발돋움	1,606
			학교 밖 청소년 위한 ‘렛츠런 드림센터’인천 서구 개소	1,077
선별		매월 8일은 보라데이, 당신의 관심이 가정폭력을 멈춥니다	979	
		공직사회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순회교육’	943	
통일부	3월	제출	“통일야 놀자! 통일미래 주역 ~ 모여라!!!” 청소년과 함께하는 「2015 통일리더캠프」 실시	1,438
			탈북민 보호담당관 현장속으로...	1,396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선별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확대 실시	1,134
			북한 억류 우리 국민 석방 및 송환 요구	501
	4월	제출	어린이들이 통일을 꿈꾸는 나라	1,268
			홍용표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 현장 방문.	1,294
		선별	북한이탈주민 경제·금융 및 생활법률 교육 강화	1,054
			통일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 개선	739
	5월	제출	제3회 통일교육주간, 통일의 꿈과 희망을 키우다.	1,597
			함께하고 체험하면 통일이 더욱 가까워집니다	2,462
		선별	개성공단 왕래차량 통행안전 예방 강화	517
			“통일! 교육이 미래다.” 제3회 통일교육주간 개막	1,194
	6월	제출	“분단 70년 : 한반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874
			“노래와 요리를 통해 만나는 통일미래세대의 꿈과 비전”	1,446
		선별	하나원 교육생 봉사활동으로 우리 사회 이해	621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협약 체결	546
	7월	제출	[정부 3.0] 지자체·민간 협업을 통해 하나원 주변 악취 대폭 감소, 하나원 교육생 및 지역주민 삶의 질 업그레이드	1,211
			국민이 직접 통일문화정책을 디자인하다	886
		선별	제2하나원, 북한이탈주민 관련 찾아가는 교육 실시	760
			분단의 상징으로 통일을 노래하다	900
	8월	제출	통일의 역사를 기록하다	863
			정부, 오늘부터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입법예고	1,217
선별		“광복 70년, 미래세대와 함께 그리는 통일 희망”	913	
		“재외동포 합창단, 통일미래를 노래하다”	860	
9월	제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개관 이래 최초로 탈북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이 함께하는 통일체험 연수 실시	755	
		『통통축구단』 출범, 남북 출신 청소년들이 함께 공을 차며 통일미래를 꿈꿔요	1,592	
	선별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타결	780	
		“탈북민, 나도 공무원”	579	
10월	제출	“고등학생, 담벼락에 통일을 그리다”	1,07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노하우, 최초로 해외에 전수된다	1,070	
	선별	남북이 공동 발굴하는 고려 왕궁터 개성 만월대, 후손 앞에 선다	1,420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백두대간으로 하나된 한반도의 모습을 보다	768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3월	제출	행복도시 교량 ‘한눈에 쏙’...행복청, 교량특화자료 집 발간	825
			행복도시 실개천 봄맞이 기지개 ‘활짝’	1,106
		선별	행복도시, 6생활권 밑그림 그리다	985
			명품도시 건설위한 소통 강화...행복청 직원 공동 연수	851
	4월	제출	행복도시 대중교통 이용객 꾸준히 증가	1,174
			행복도시 대표광장 만든다...도시상징광장 종합계 획 착수	994
		선별	행복도시 중촌동에 주민소통공간 ‘활짝’... 복합커 뮤니티센터 준공	818
			행복도시, 협업·소통으로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	698
	5월	제출	행복도시는 건설기술의 경연장"...국내외 건축사 행복도시 방문 잇달아	998
			최고 48층, 행복도시 스카이라인(건물의 윤곽선)이 바뀐다	1,256
		선별	행복도시, 우수대학 유치 위한 공동캠퍼스 본격화 5월말 용역 착수	827
			“행복도시 문화 경쟁력 갖춰야”...도시 특화 위한 특강	798
	6월	제출	한솔동·도담동·아름동...행복도시 순우리말 이름 ‘눈길’	1,109
			행복도시 방축천 수질개선...주민 휴식공간으로 자 리매김	1,038
		선별	행복도시, 협업·소통으로 선진 건설문화 정착	787
			행복도시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785
	7월	제출	행복도시 둘레길 명칭 공모 성료...이달 최종선정	1,061
			행복도시 방축천 특화상가 내년초 착공...2018년 개장	1,071
		선별	행복도시 ‘단독주택 같은 공동주택’ 도입	1,075
			행복도시 미신고 광고물 신고 수리	691
8월	제출	행복도시 외국인 발길...도시개발 모범사례 배운다 ‘행복도시 좋은 건축물’ 공모...연말 시상	1,112 887	
	선별	금강나루길, 고운뜰길, 행복도시 둘레길 명칭 최종 선정	1,106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9월	제출	행복도시 종합복지지원센터,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1,035
			'행복도시 인구 10만 명 돌파...평균연령 31.4세 행복도시 편의시설 속속 준공...영화관 11월 개장	1,318 948
		선별	행복도시 분양행렬 이어가다, 공동주택 특화 적중	2,038
			행복도시,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제도 도입	1,054
	10월	제출	공동주택이 모여 하나의 마을을 만든다...도시 공동체 틀(패러다임) 다변화	1,232
			"'공공건축물 특화 빛났다'...행복도시,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휩쓸어	1,219
		선별	행복도시 건설사업 '착착'...내년 광역도로 4곳 착공	2,789
			행복도시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740

□ 나군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경찰청	3월	제출	창경 70년 최초, 경찰대학생 간부후보생 합동 임용	3,580
			경찰『생활범죄수사팀』, 국민만족 수사성과 싹틔워	1,542
		선별	경찰청, KT·매경미디어그룹과 국민 참여형 목격자 정보공유 서비스 활성화 협약 체결	983
			경찰청, 만우절 '허위·장난전화' 자제 당부	1,352
	4월	제출	전국 1,300여개 교차로에 비보호 검용 좌회전이 도입됨에 따라 경찰, 올바른 교차로 통행방법 안내를 위해 교육·홍보에 나서기로	1,323
			지구대 파출소 보이스피칭 예방 및 피의자 검거	2,773
		선별	경찰, 이륜차 인도주행 근절을 위한 계도·단속 지속 추진!	1,495
			휴대전화 부정가입(대포폰) 방지를 위한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서비스 시행	870
	5월	제출	경찰 현장애(愛)영웅, 한자리에 모이다	2,606
			청소년 무료 문신제거 시술 지원, '사랑의지우개'	1,039

2) 가군 병무청의 경우 8월 생산 보도 자료가 총 3건에 그쳤다.

3) 가군 새만금개발청의 경우 3월부터 5월까지의 생산 보도 자료가 다른 기관에 비해 부족했다.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선별	경찰박물관 ‘오늘은 나도 어린이경찰관!’ 어린이날 행사 개최	935
			경찰 70년, 국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	822
	6월	제출	탈북청소년 범죄예방 계획표(프로그램) ‘해피 투게더’	1,056
			경찰, 그라피티 등 낙서행위 엄정 단속하기로	1,047
		선별	경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8건 검거	803
			대한민국 사이버 특기의경 1기에 지원하세요!	1,146
	7월	제출	“누리망 예약으로 편리한 시간에 교통사고 조사를 받으세요”	1,380
			미래에셋증권 사이트 디도스 공격한 주범 구속	1,758
		선별	경찰, 1개 월간 보복운전 특별단속 실시	1,175
			경찰청·페이스북 실종경보 협약	1,290
	8월	제출	경찰청, 생활법치 확립 및 국내 외사치안 확보를 위한 불법 입,출국 등 국제성 범죄 집중단속 결과 영문 운전경력증명서, 누리망(efine.go.kr) 무료 발급	1,745
				821
		선별	경찰, 생활주변 마약류사범 특별단속 추진	1,346
			개학철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집중단속 실시!	1,001
	9월	제출	편안하고 안전한 귀성길을 만들기 위한 추석 연휴 특별교통관리 실시	1,354
			추석명절, 특히 주의해야 할 보이스피싱 수법은?	3,026
		선별	경찰, 살인사건 한 건이라도 더 해결하겠다	1,776
			추석연휴 종합치안활동 펼쳐, 평온한 치안 확보	1,472
	10월	제출	경찰청, 제7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순직자 유가족 초청 위로·격려의 자리 마련	1,302
			‘일선 경찰서 수사부처 공간이 확 바뀐다!’	2,309
		선별	학교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15년 「학교 급식비리」 특별단속 추진	2,841
경찰청, 경찰제복 종합개선안 발표			1,423	
공정거래 위원회	3월	제출	다시 구매할 수 없다는 게임 소도구 ... 진짜일까?	1,484
			하도급·유통 분야 불공정 행위 익명제보센터, 운영 개시	1,744
	선별	물가 변동으로 자신이 받은 하도급 대금이 증액되었음에도 자신이 지급할 대금은 증액하지 않았다면?	1,078	
		알파(주)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	1,190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4월	제출	경품 행사를 빙자한 개인정보 수집 제공 행위 제재	1,820
			유효 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도 90% 환불 가능합니다	4,344
		선별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3개 기업집단에 과태료 6.1억 원 부과	1,633
			(주)대유위니아의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행위 제재.	1,008
	5월	제출	추가 비용 · 선택 관광 감춘 홈쇼핑 · 여행사 제재	2,201
			‘콘도 홍보대사 선정’, ‘무료 회원권 당첨’ ... 알고 보니 거짓 상술	2,985
		선별	난방용 배관 입찰 나눠먹기 담합 제재	1,919
			롯데백화점의 대우백화점[마산점] 인수 조건부 승인	1,508
	6월	제출	“면세품은 일반 상품과 다르기 때문에 주문 취소는 안 된다?”	1,743
			메르스 바이러스 완벽 차단, 진짜일까요?	2,493
		선별	홈플러스, 별도의 약정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받아	1,053
			하이트진로(주)의 부당 광고 행위 제재	1,200
	7월	제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의 부당한 반품 비용 청구 ‘이제 그만!’	1,691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3,011
		선별	분양 계약 해제 시 사업자는 받은 대금 전부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2,102
			주문 취소, 환불을 할 수 없다...화장품 쇼핑물 ‘거짓말’	1,661
	8월	제출	“2014년 결함 보상(리콜) 총 1,752건, 증가폭 사상 최대!”	991
			“차액은 정산해야 하고, 사소한 이유로 계약 해지 안 됩니다”	5,969
선별		전국 10곳에 추석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999	
		“2014년 결함 보상(리콜) 총 1,752건, 증가폭 사상 최대!”	2,491	
9월	제출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4,867	
		어학 교재 발송되면 환불 불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	2,197	
	선별	공정위, 하도급 대금‘윗 물꼬 트기’조사 착수	1,511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10월		2개 다단계 판매 업체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 엄중 제재	2,100	
			제출	“학원의 허위 광고, 환불 거부, 강의 끼워팔기 등 신고하세요!”	5,377
		“과일, 음료 등 외부 음식, 장례식장 반입 가능하다!”		3,913	
		선별		4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2,240
			2015년 대기업 집단 채무 보증 현황 정보 공개	2,082	
	국가 보훈처 ⁴⁾	3월	제출	제55주년 3·15의거 기념행사 개최	1,107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 거행	1,120
			선별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전국적으로 개최	710
				천안함 5주기“국민과 함께 부르는 천안함 용사”개최	710
		4월	제출	광복70년 계기 상해 매헌윤봉길기념관 재개관	1,552
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 재방한				1,450	
선별			남부권 국립묘지, 국립산청호국원 준공.	649	
			국가보훈처, 보훈요양원 안전 대진단 실시	941	
5월		제출	6·25전쟁 미군 실종장병 유족 정부초청으로 첫 공식방한	1,070	
			형산전투 호국영웅 “연제근”상사공원건립	1,000	
		선별	해공 신익희 선생 서거 59주기 추모식	669	
			육탄10용사 제66주기 추도식	675	
6월		제출	광복70년 ‘현충의빛’점등식 개최	797	
			제60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882	
		선별	6·25전쟁 65주년 행사 거행	902	
			정부, 6·25전쟁 참전유공자 여군 16명 포함 2,320명 새로 발굴	2,168	
7월		제출	7월 유엔 참전용사 재방한 행사 개최	850	
			장진호 전투 추모 ‘고토리의 별’기념비 건립	679	
	선별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맞아 국내외 다양한 행사 열려	4,148		
		보도 자료 없음			
8월	제출	제70주년 광복절 계기 전병현 선생 등 독립유공자 257명 포상	721		
		보훈처, 국내외 독립운동 유적 통합운영체계 마련	1,997		
	선별	광복70년 경축음악회 ‘함께하는 대한민국’ 개최	837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국가 보훈처	9월	제출	사관생도 대상 국외사적지 탐방 행사 개최	627	
			朴 대통령,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재개관 식 참석	2,043	
			제2연평해전 전사자 합동묘역 조성 및 안장식 거행	1,225	
		선별	「제4회 애국가 부르기 UCC 공모전 개최」	644	
			추석 연휴 기간 보훈서비스 안내	1,066	
			유엔군 전몰장병과 가족들, 65년만의 재회	1,093	
	10월	제출	「제대군인 주간」 기념식 및 제대군인 취창업 한마당 행사 개최	1,011	
			11월의 6·25전쟁영웅 찰스 그린 호주 육군 중령	926	
		선별	북암 이철 선생 1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	947	
국방부	3월	제출	자은도 중학생의 3일간의 군 직업체험	2,254	
			2015년도 일반군무원 채용 공고	911	
		선별	“호국용사 유해발굴, 마지막 한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2,166	
			2015년 국방정보화 사업설명회 개최	710	
	4월	제출	총상금4,800만원! 『청소년나라사랑콘텐츠공모전』 개최	1,030	
			“군사력 강화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여 민군기술협력을 통한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추진”	1,635	
		선별	군 물류, 이제는 속도다!	998	
	군(軍) 전력증강의 청사진, '16~'20 국방중기계획 작성		1,918		
	국방부	5월	제출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방비 홍보책자 발간	822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에 관한, 군과의 협의가 빨라집니다.	751
선별			6·25전사자, 한·미 공동 유해발굴 및 감식	1,295	
			전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1,210	
6월		제출	도심 속 ‘대한민국 국군의 어제와 오늘’을 만나보세요!	1,112	
			『청소년 나라사랑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1,110	
	선별	‘전투복의 이유있는 변신!’ 전투복의 진화는 계속된다.	1,628		
		6.25 전사자 유해를 유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해	1,269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7월	제출	최선'	
			접경지역의 눈물... 군(軍)이 먼저 닦아 드립니다.	1,064
		민간 우수제품 도입 늘려 군수시장의 투명성 높인다	1,395	
		선별	군대 간 우리 아이 반찬은 엄마가 책임진다	889
	당신의 마음을 장병의 의(衣)·식(食)에 담습니다.		1,055	
	8월	제출	역대 최대 규모의 2015 통합화력 격렬훈련 실시	1,407
			2015년 하반기 호국용사 유해발굴작전 개시 '마지막 한 분까지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1,067
		선별	21세기 청년리더, 국방차관과 통일 안보를 말하다	1,031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1,033
	9월	제출	군에서 사용 가능한 우수제품 홍보의 장이 열립니다	1,093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폰 지급 및 운용	825
		선별	30년 이상 된 전투기도 이상 없다.	1,194
			튼튼한 국방을 위한 든든한 백 투 더(Back to the) 예비군	1,010
	10월	제출	국방부, 전상자 등의 공무상 요양비 지급기간 제한 폐지	807
			여자대학 학군단 추가 선발 예정	869
		선별	국방부, 2015년도 하반기 충무훈련 참가	978
대한민국 호국영웅 유가족 초청 유해발굴 사업설명회			923	
국세청 ⁵⁾	3월	제출	국민과 함께하는 탈세감시, 비정상적 납세관행 정상화 앞당겨!	1,803
			연말정산 환급금이 부족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 하세요.	991
		선별	신설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임명	817
			국세청, 제15기 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 위원 임명	752
	4월	제출	국세청 호화생활 고액채납자 엄정 대응	2,893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자녀장려금 첫 지급을 위해 253만 저소득 가구에 신청안내	2,979
		선별	2015년 한중 국세청장회의 개최	667
			2015년 국세청 홍보대사, 모범납세자 송승헌·윤아 위촉	441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5월	제출	국세청-세무대리인, 상호협력과 투명세정 다짐	2,164
			세금 쑥쑥! 꿈도 쑥쑥!	1,003
		선별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업무를 위한 비상체제 가동	4,398
			올해근로장려금지급확대, 자녀장려금지급을위해 253만 저소득 가구에게 신청안내	2,979
	6월	제출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1,226
			2015년 국세통계 조기 공개	834
		선별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국세증명 발급 시작!	1,426
			제13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개최	792
	7월	제출	경형자동차 유류세 세금혜택 받으세요	2,186
			대학생 성실납세 홍보 공모전 시상식 개최	1,026
		선별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및 경영애로 최대한 지원	3,686
			'취업 후 학자금 선납제도' 채무자 2만 명이 선택!	2,090
	8월	제출	8월은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하는 달	711
			보도 자료 없음	
		선별	보도 자료 없음	
			보도 자료 없음	
	9월	제출	'한·카자흐스탄 국세청장회의 개최	730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2,298
		선별	201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큰 폭으로 늘어	3,102
			서민의 삶에 힘이 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역대 최대 170만 가구, 1조 6천억 원 지급	7,340
10월	제출	국세청,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소통에 나서다	2,696	
		'납세자 권리침해 시, 『권리보호요청』을 하세요	1,775	
	선별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행위, 끝까지 추적·과세	2,200	
		사업자 현황, 매월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1,820	
대검찰청 6)	3월	제출	보도 자료 없음	
			보도 자료 없음	
		선별	검찰,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완료	956
			전국 검찰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장 회의 개최	1,517
	4월	제출	2013년도 마약류사범 단속결과	3,833
			중앙지검, 교통사고 사망 사건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2,706
		선별	충주시 하수처리시설 공사 민관유착비리 사건 수사결과	2,222
			국내 최대 임플란트 제조업체 리베이트 관련 사건	1,074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수사 결과	
	5월	제출	보도 자료 없음	
			보도 자료 없음	
		선별	부처간, 지역별 협업으로 학교폭력 근절 추진	1,312
			한인검사협회 총회 서울에서 개최	1,623
	6월	제출	보도 자료 없음	
			보도 자료 없음	
		선별	보이스피싱 사범, 강화된 구형 기준 시행	1,803
			카자흐스탄 검사들 한국을 배우러 오다	1,019
	7월	제출	보도 자료 없음	
			보도 자료 없음	
		선별	일본에서 절취한 동조여래입상, 일본측 신사(카이진신사)에 교부하기로 결정	1,844
			보도 자료 없음	
	8월	선별	형사재판은 공짜가 아닙니다	1,070
			'마약류 범죄 최근 동향 및 대책	4,211
			검찰, 범죄피해자의 희망지기가 되다	3,999
			검찰, 유관기관 합동 부정식품사범 특별단속 실시 계획	2,503
	9월	선별	2015년 상반기 부정부패사범 중간수사결과	8,716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	4,144
			대검찰청, 25주년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	2,878
보도 자료 없음				
10월	제출	보도 자료 없음		
		보도 자료 없음		
	선별	김진태 검찰총장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1,200	
		유관기관 공동대처로 부정식품사범 근절 추진	1,331	
방위 사업청	3월	제출	방위사업청, 『2015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 경진대회』 개최	3,603
			『방위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985
		선별	국방 핵심기술 연구과제 평가 관련 공개설명회 개최	1,125
			군 급식 품질보증 능력 확대를 위한 순회교육 실시	1,028
	4월	제출	일곱 번째 '꿈을 키우는 과학교실' 개최	1,055
			방위사업청, 중장기 핵심부품 국산화 계획 수립	1,156
		선별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803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방위사업청, 신규업체 계약이행 지원서비스 강화	992
	5월	제출	방위사업청,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워크숍 개최	1,095
			방위사업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방위 산업진흥회, 중소기업 항공부품 차기전투기 사업 절충교역 수출장터 개최	1,580
		선별	신형화생방정찰차 국내기술로 개발 성공	1,043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820
	6월	제출	방위사업청, 방산업체 최고경영자 초청 간담회 개최	743
			「국방기술품질원, K9 자주포 차체 폴란드 첫 수출 쾌거의 품질 조력자」	1,019
		선별	방위사업청, 품질보증형태 정보공개 확대 시행	739
			국방기술 및 제품개발을 위한 국방벤처 지원사업 시행	772
	7월	제출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 혁신 메시지 공유 위해 방 산업체 현장방문	1,017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천궁 품질인증사격 성공	776
		선별	방위사업청,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정	867
			방위사업청, 중소방산업체의 사업정보 갈증해소	752
	8월	제출	방위사업청, 홍보대사 '휴보(HUBO)' 위촉식 개최	1,058
			방위사업청,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추진	949
		선별	국방 무기체계 종합군수지원(ILS) 개발 실무지침서 발간	1,123
			방위사업청, 중·소 일반조선업체 지원 원가컨설팅 추진	935
	9월	제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사전 정보 제공 확대	1,245
			방위사업청,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개정	857
선별		방위사업청 현역장교, 「법원원가감정인」으로 첫 배출	812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	784	
10월	제출	방산물자 수출 허가기관 일원화와 수출허가 면제 근거 신설	1,043	
		'15년 『국방규격·목록업무 발전 세미나』 개최	890	
	선별	방위사업청, 방산기술보호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819	
		제9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1,263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법무부	3월	제출	“연쇄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흉악범 최대 7년간 별도 수용”	3,826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내 뜻대로	4,151
		선별	전두환 일가가 소유한 미국 내 재산 국내 환수 예정	1,363
			법무부, 베트남 법무부와 법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1,177
	4월	제출	‘경량항공기’ 통한 자금유통으로 항공 레저산업 활성화	1,922
			법무부, 맞춤형 비자서비스로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전력	1,934
		선별	“ 외국인 투자자의 마음까지 듣겠습니다 ! ”	823
			외국인정책, 경제활성화 지원과 저출산·고령화에 집중 대응	2,636
	5월	제출	30억 원 이하 채무자 「간이회생제도」 이용 가능	980
			법무부, 어음만기 앞당겨 경제활성화 도모	1,345
		선별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으로 성공의 기쁨을 경험	748
			법무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귀화 돕는다	871
	6월	제출	‘1마을 1변호사’ 「마을변호사 제도」 순항 중	1,416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	5,464
		선별	법률홈닥터, SH·LH공사 임대아파트 주민 대상 무료법률상담	941
			전체 소년원학생, 정신과 전문의의 보살핌 받는다	856
	7월	제출	피후견인 권익보호와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4,748
			이젠 오래된 범죄전력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 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1,881
		선별	법무부, 외국인 관광객 입국편의 방안 마련	1,013
			법무부, 국민이 알기 쉽도록 형법 개정 추진	800
	8월	제출	국제중재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중재법 선진화	5,391
			새로운 분쟁해결 패러다임 중재산업! 떠오르는 중재 중심지 대한민국! 신속한 갈등 해소를 통한 ‘민음의 법치’ 실현!	3,839
		선별	더 많은 범죄피해자에게 안전한 새 보금자리 제공	1,638
			법무부 법률상담서비스, 중소기업 살린다	1,823
9월	제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3,161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통과		
			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20% ⇒ 15%로 하향	1,104	
		선별	수용시설 계호 등 신병관리 근본 대책 마련	1,073	
			인권보장과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벽을 허물고 신병관리 개선 모색	699	
		10월	제출	“알기 쉬운 민법”,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시 태어납니다!	1,521
				자동출입국심사 대상 외국인 확대	827
	선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시험 실시	528	
			<법무부, 이해승 후손 친일재산 관련 재심 및 민사소송 제기>	2,890	
	보건 복지부 ⁷⁾	3월	제출	365일 밤 23~24시까지 소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6개소 신규지정, 지역주민들 “늦은 밤에 아파도 안심”환영	2,638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각종 요금감면 서비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1,204
선별			스웨덴 빅토리아 왕세녀 내외, 국립재활원 방문	812	
			한국,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홍역퇴치 재인증	1,048	
4월		제출	2014년 보수변동에 따른 2015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1,122	
			부모에게 활짝 열려 있는 어린이집 만든다	2,283	
		선별	‘1인-1연금’을 향한 첫 걸음... 경력단절 여성 추납 확대, 장애 .유족연금개선	2,599	
			9년 지난 구급차 운행금지 등 구급차 제도개선 입법예고	1,110	
5월		선별	나에게는 건강을! 타인에겐 새 생명을! CPR[심폐소생술]체조 함께할까요?	1,039	
			“입양은 함께 나누는 행복”입니다	1,412	
			장기요양기관 본인 부담금 면제 특별현지조사	848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665	
6월		선별	임상시험 거친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2,004	
			52개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진료시 약값 조정 등 의료급여 제도개선	1,658	
			국내 유입된 메르스 바이러스 분리 및 전체 유전체 분석 결과	906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7월	제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도 국민행복카드에 통합	1,524
			기초연금 도입 1주년, “생활에 도움 된다”	3974
		선별	담뱃값 인상 6개월, 성인남성 흡연율 5.8%p 감소	3025
			맞춤형 복지 서비스는 ‘복지로’ 로 통한다	3168
	8월	제출	아동학대 신고 전년 대비 36% 증가	2134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의사의 영상의료지도로 더욱 스마트해집니다	2034
		선별	‘발레로 표현한 흡연의 고통’ 금연캠페인 본격 시동	1796
			한의학 표준화·과학화를 위한 첫 걸음,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추진	1290
	9월	제출	아동 권리, 아하 그렇구나	925
			어르신 겨울건강을 위한 맞춤복지 10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가까워집니다~	1,518
		선별	“육아하는 아빠가 멋있다” 복지부, 아빠 육아참여 독려에 나선다	1,577
			체외수정 시 이식 배아 수 최대 5개에서 3개로 줄인다	2,456
	10월	제출	뇌종양, 개인 유전체 분석으로 맞춤형 치료의 장을 열다	1,113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발표	4,529
		선별	복지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대폭 강화키로	1,595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지원 확대	5,812
식품 의약품 안전처	3월	제출	부모가 바뀌어야 아이들이 바뀐다	840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수준 전반적으로 향상	1,552
		선별	3월 15일,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본격 시행	1,028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예방법	1,223
	4월	제출	잔류농약(이프로디온) 기준초과 검출 수입‘마늘쫑’ 회수조치	811
			도심 하천 도로변 등 오염우려지역 야생 봄나물 섭취주의	1,081
		선별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첫 보상금 지급 결정	1,301
			일반식품 등을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적발	1,342
	5월	제출	식약처,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 신속 차단 강화	1,659
			제14회 식품안전의 날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세요	1,378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이엽우피소 혼입 확인된 가짜 백수오 제품 전량 회수	1,728
		선별	피부 트러블메이커 여드름, 바르는 치료제 사용 시 유의하세요!	1,688
			식약처장, 현장 중심의 지방청 업무 점검	618
	6월	제출	2015년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3,378
			식품안전정보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2,145
		선별	식약처, 할랄 허위표시 축산물 집중 단속	556
			여름철 냉면·콩국수도 식중독 없이 안전하게!	927
	7월	제출	국민 다섭취 외식 78종 영양성분 확인하세요!	1,700
			식약처, 여름 휴가철 식·의약품 건강안전 정보 제공	5,591
		선별	식약처, 식품 중 식육 원료 혼입여부 판별법 기술 이전	981
			유통기한 변조 김밥 등을 편의점·휴게소에 납품한 제조업체 적발	911
	8월	제출	주요 위생 안전 조항 위반 HACCP업체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804
			'땃다방' 허위·과대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설	852
		선별	식품 구입시 다이어트 표방 허위, 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772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제도 개선, 추진	1,478
	9월	제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본격 실시	854
			'햄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786
		선별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구입시 유형을 확인하세요	897
			야생버섯 함부로 섭취하지 마세요	845
	10월	제출	건강한 가을 여행을 위한 식중독 예방 요령	801
			김장철, 절임배추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935
선별		어르신을 위한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안내 리플릿 배포	1365	
		커피·바나나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1233	
인사 혁신처	3월	제출	국가인재, 이제 국민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십시오!	1,205
			'나라일터(GoJobs)'와 함께라면 주말부부 이제 끝	1,219
		선별	인사혁신처, 두 번째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선발	1,978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시험 합격자 166명 발표	
			은퇴 공무원의 새로운 인생설계를 위한 교육과정 신설	881
	4월	제출	국민추천제 활성화 위해 민·관(民·官) '한 손'	707
			부주의한 실수 하나가 공무원 합격의 발목을 붙잡는다	1,428
		선별	국가직 공채 면접시험이 대폭 강화된다.	2,026
			공무원 인사전문성 향상시켜 정부 경쟁력 높인다	1,430
	5월	제출	장애인공무원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가능해진다.	1,050
			공무원 3대(성, 금품, 음주운전) 비위 징계 강화	1,137
		선별	공무원 교육훈련법, HRD(인재개발) 중심으로 바뀐다	1,127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위한 소통의 장 마련된다	996
	6월	제출	국가직 9급 공채 면접, 공직가치·직무능력 평가 강화	1,441
			일·가정 양립하는 직장문화, 대체인력 활성화로 확산시킨다	1,233
		선별	“국민을 위한 혁신, 미래를 여는 공무원”	754
			인사규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 쏟아져	828
	7월	제출	재충전 휴가로 공직생산성 높이는 연가혁신	1,352
			공무원 여초(女超)시대 열린다	1,900
		선별	공직 문호, 민간에 더 활짝 연다	1,255
			급여처리업무 일원화로 업무효율, 인력감축 기여	800
	8월	제출	생명을 살리는 4분의 골든타임, 공직사회가 앞장선다	1,391
			2015년도 공무원 7급 공채, 시험보기 편해진다	2,088
		선별	공무원 항공마일리지 개선으로 예산 아낀다.	1,629
공무원 3대(성, 금품, 음주운전) 비위, 강화된 징계기준 시행			1,084	
9월	제출	민간 전문가 스카우트 1호 공무원 탄생	1,450	
		“장애인 국가공무원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1,160	
	선별	공무원친목단체 운영 및 사업 활동의 투명성 높인다	862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10월	제출	공무원 짧은 순환보직 관행 사라진다	1,488
			“장애인 수험생 여러분, 공직에 도전하세요.”	1,403
		선별	인사혁신처,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관리·감독 강화한다	1,189
			정부 경쟁력 높이는 전략적 공직인사관리 가능해진다	1,282
			국민과 기업 불편 초래하는 복지부동 공무원 엄중 처벌한다	1,052
조달청	3월	제출	국가기관-지자체 손잡고 ‘역사문화탐방 서비스‘ 개발	1,232
			우수제품 심사과정 실시간 공개, “심사투명성 높아졌다”	937
		선별	우수조달물품, ‘기업부담은 낮추고 품질은 높인다’	1,266
			조달청, 공공건축물 품질향상 워크숍 개최	561
	4월	제출	나라장터 ‘수학여행 숙박시설’ 관리 운영 ‘합격점’	1,054
			소방복 등 안전분야 물품 규격미달 시 제재 강화	630
		선별	조달청,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 공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505
			공공조달 협상계약, 특정업체 편향 평가 못한다!	1,630
	5월	제출	조달전문교육 ‘찾아가는 맞춤형’으로 바뀐다	735
			“공공조달통계, 한곳에 다 모았습니다”	3,199
		선별	나라장터 시스템’ 아프리카·중동에 ‘수출’	1,053
	조달청, 아시아에 개방·공유의 ‘열린 조달’ 전파		762	
	6월	제출	공정한 하도급 문화 빠르게 ‘정착’	997
			조달청, “인증 부담은 줄이고, 융합 신제품 진입장벽 없앤다”	2,928
		선별	나라장터 ‘안전입찰’ 확대 해킹 차단	912
			원자재 비축 시장동향 점검·대응방안모색	647
	7월	제출	‘친환경 복원 배터리’ 등 53개 제품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1,083
			“ 하계휴가는 국내로 , 일찍·길게 가기 , 지역상품	743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구매하기 ”	
		선별	설계적정성 검토로 공공건축물 안전과 품질 확보 결의	664
			조달청, 공공기관 계약업무 위탁 처리	905
	8월	제출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가 환수' 추진	1,269
			조달청, 비정상의 정상화 가속도 낸다	1,179
		선별	'스스로 관리 잘한' 15개 제품 자가품질보증물품 재지정	895
			조달청, 공공SW사업 설계·구현 분할발주 탄력 받았다!	1,243
	9월	제출	조달청, 중소기업 제도전 기회 돕는다	883
			“조달청-순천시 순천만탐방상품 개발 손잡는다“	617
		선별	우수조달물품, 규정개정으로 국산 기술의 외산대체 효과 톡톡	820
			조달청, 하반기 공공시설 공사비 산정가격 확정	937
	10월	제출	“청소·경비 등 공공용역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된다”	768
			조달교육에 지역극단 참여 상황극 첫 시도 '호응'	609
		선별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기간 기존 2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	801
			조달청, 유라시아경제위원회와 조달협력 양해각서 체결	668
	해양 수산부	3월	제출	최신 해양안전 정책·기술·기자재가 한 자리에
			해수부, 영종도 갯벌 칠게잡이 불법어구 수거 나서	758
선별			해수부, 연안해운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응 박차	1,004
			해수부, 화통(和通)한 조적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1,009
4월		제출	해수부, 올해 여의도 면적 10배 규모의 '바다 숲' 조성	990
			어촌에 살어리랏다! 귀어 귀촌 창업자금 1인당 2.4 억원 지원	1,417
		선별	해수부,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착수	1,919
			해수부, 안전법규 위반 원양어선에 대해 정부지원 배제	969
5월		제출	해양 바이오디젤 연료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1,343
			'바다가 힘이다!' 제20회 바다의 날 기념식 부산에	1,456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서 개최	
		선별	금어기 맞아 물가안정용 정부비축 수산물 7000톤 방출	945
			내수면품목 '송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상품 출시	795
	6월	제출	올해 가볼만한 해수욕장은 어디	1,352
			한중 손잡고 하절기 휴어기간 중국 불법어선 공동 감시	1,031
		선별	낚시어선 어가소득은 '지속 증가', 불법행위는 '크게 감소'	1,314
			해수부, 청정해역 제주도에 해양연구거점 마련	895
	7월	제출	해수부, 동해연안 바다사막화 조사결과 발표	1,050
			수술용 실 대체 가능한 홍합 유래 순간조직접착제 개발	1,134
		선별	국민생선 갈치, 고등어도 어린 물고기 포획 금지된다	1,818
			항만시설 불법사용 뿌리 뽑는다	998
	8월	제출	사라진 독도 강치, 벽화로 되살아나	1,221
			해수부, 연안침식관리구역... 삼척 맹방, 울진 봉평, 신안 대광 3개소 지정	1,043
		선별	해수부, 항만국 검색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939
			생활해양예보지수로 바다 100배 안전하게 즐기자	1,068
	9월	제출	겨울철 '섬(島) 여행'은 여객선 자유이용권으로	966
			추석 연휴기간 중 슈퍼문에 의해 최대 10m 조차 발생	952
		선별	슈퍼다시마 심어 바다사막화 막는다	972
			2015년 해수욕장 이용객 1억 명, 전년 대비 43.5% 증가	1,494
	10월	제출	'홍어 껍질에서 치매 예방 및 증상완화 소재 개발	1,284
			엄마아빠가 만든 서해안의 기적, 아이들과 함께 누리요	1,194
		선별	컨 터미널 통합 출입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항만 물류 흐름 빨라진다	834
			북극항로 안전운항 필수, 얼음분포 분석·예측 기술 개발	1,147
	3월	제출	정부3.0 국민 행복,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다	1,287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행정 자치부			지역 현장에서 출발한다! 지방인사혁신 4대 추진방향 선정	1,128
		선별	공공기관 정보공개, 국민 아이디어로 디자인한다	1,103
			깨끗하고 품격 있는 전자정부 사업관리에 앞장	982
	4월	제출	젊음과 개성이 넘치는 야시장 키운다.	1,089
			행정기관위원회 5곳 중 1곳 정비.	7,088
		선별	복지재정 누수, 국민들이 직접 막는다	907
			지방재정 혁신해법, 전문가들이 함께 찾는다.	1,679
	5월	제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대응역량 대폭 키운다	1,681
			「지방공기업 사업 실명제」 실시한다	1,376
		선별	해외 거주하는 이북도민 197명, 그리운 고국 땅 밟는다	839
			일하는 방식 확 바꾼 지자체 찾습니다	762
	6월	제출	예산 과다지출한 지자체, 교부세 감액 강화	1,098
			지방공기업 부채, 12년 만에 첫 감소	1,722
		선별	상하수도요금·주정차위반과태료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775
			‘상상이 현실이 되는 정책’국민이 직접 만든다	1,537
	7월	제출	자치단체 보조금, 일선현장 관리와 주민통제 강화	1,522
			‘21개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연간 202억 원 예산절감 !	2,430
		선별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는 손쉽게 책임은 엄중하게	1,468
			이제부터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반드시 암호화 해야	1,385
	8월	제출	‘알뜰한 여행·안전한 휴가’ 이것만 알아두면 준비 끝	1,891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도모를 위해 지방세 3조 원 이상 대폭 지원	6,718
		선별	뇌물받은 민간위원, 공무원 수준으로 처벌받는다	1,029
			개인정보 보호 위반업체 실명 적극 공개한다	990
9월	제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대폭 정비 추진	1,595	
		서울올림픽의 감동과 열정, 기록으로 만나다.	2,175	
	선별	공공아이핀,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한다	763	
		인감 제도,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대폭 개정	1,723	
10월	제출	지방투자사업 모든 단계를 이력관리한다.	2,008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행정 자치부			전후복구와 경제재건을 함께 한 유엔-대한민국 70년	1,851
		선별	주민번호 요구하는 서식·증서 일제정비	1,332
			지자체 발주 용역·물품 구매 입찰 시 입찰참가진 입장벽 없앤다	811
환경부	3월	제출	도시 생태휴식 공간 자연마당...광주 등 4곳 늘어난다	1,207
			지반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일제 실시	1,299
		선별	녹조발생 상황을 한눈에...2014년 조류보고서 공개	1,102
			봄철 해빙기, 낙석 등 안전사고 주의	1,105
	4월	제출	따뜻한 봄날, 국립공원으로 생태관광 떠나요	1,313
			환경부, 친환경위장제품 시장에 발 못 붙인다	1,468
		선별	환경부, 국가안전대진단 '씽크홀' 대응에 집중키로.	1,534
			제품 과대포장 집중단속 결과, 70개 업체 과태료 처분	954
	5월	제출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품목확대...수거량 40% 증가	1,168
			층간소음 갈등...어린이 대상 예방교육으로 해소	1,481
		선별	환경부-한국환경공단-LG디스플레이(주),자원순환 성과관리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1,346
			유해성 심사 안받은 화학물질 자진신고 하세요!	1,367
	6월	제출	식용수 분야 가뭄 피해! 비상대책반 가동 적극 대처	1,255
			장마철 대비, 하수도분야 안전관리 강화 추진	1,232
		선별	녹조·장마철 대비 가축분뇨시설 특별점검	937
			환경부, 메르스 의료폐기물 안전관리로 국민불안 해소	1,572
	7월	제출	여름철 상하수도 특별점검...안전사고 걱정 '뚝'	1,202
			수은함유 폐기물 실태조사 결과발표	1,153
선별		환경부, 주유소업체와 함께 클린주유소 확대키로	1,190	
		환경책임보험 도입...환경오염사고 피해배상 길 열려	2,655	
8월	제출	우리동네 환경정보를 한눈에...전국 환경지도 첫 공개	1,745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선별	우리 아이 안심하고 노는 곳...환경안심인증으로 확인	1,187
			국민 환경보건에 대한 기초·역학조사 강화된다	1,234
			대형 폐가구, 이제 찾아가서 수거한다	1,408
	9월	제출	비용기 재사용 늘어나고 보증금 쉽게 받는다	2,050
			추석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은 이제 그만!	1,302
		선별	물 재이용 수질기준 합리적 조정...이용 활성화 기대	1,352
			수도권대기환경청, 일주일간 친환경 교통 만들어봐요	1,274
	10월	제출	환경부, 알제리·쿠웨이트 환경시장 개척 나선다!	1,490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성공적인 제도로 자리매김	1,194
		선별	환경부, 지자체와 함께 수질오염과 녹조 대응역량 높인다	1,013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화평법상 등록면제 절차 간소화	1,275

□ 다군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3월	제출	능력중심사회로 가는 길, 고졸 인재들과 함께 해요!	1,515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등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범위 확대	1,418
		선별	50세 이상 퇴직예정자, 재직 중 퇴직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길 열려	845
			'15년도 상반기 주요 대기업 채용계획 조사결과'	2,497
	4월	제출	시간선택제 지원 일자리 전년 동기보다 10배 늘어	2,503
			이제는'아빠육아'가대세 육아휴직에 도전해보세요	2,576

- 4) 나군 국가보훈처의 경우 7월 생산 보도 자료가 총 3건에 그쳤다.
- 5) 나군 국세청의 경우 8월 생산 보도 자료가 단 1건에 그쳤다.
- 6) 나군 대검찰청의 경우 3월부터 10월까지의 생산 보도 자료가 다른 기관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 7) 나군 보건복지부 5월, 6월 보도 자료는 메르스 사태로 보도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4건의 보도 자료 모두 연구진이 선별자료로 수집했다.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고용 노동부		선별	산업현장 중심의 안전 실천분위기 확산, 고용부가 앞장선다!	1,625
			“취업! 우수 훈련프로그램 정보로부터 길을 찾다.”	2,531
	5월	제출	인문계 취업난 돌파구! IT,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찾자!	1,741
			‘15년, 공공부문이 움직인다 27개 콜센터에 ‘시간선택제’ 도입 추진	1,767
		선별	부당노동행위예방집중지도·점검실시	887
			“청년 취업! 우수 훈련프로그램 정보로부터”	2,514
	6월	제출	영세사업장 건강지킴이 「근로자건강센터」 서울강서, 원주, 경산, 전주, 제주 5곳에 문연다	1,312
			45세 근로자의 인생 2막 준비, 육아휴직자의 경력 단절 고민 내일배움카드로 해결하세요	1,599
		선별	“당신이 찾은 희망, 그 씨앗을 나눠 주세요”	799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진정한 일꾼을 찾습니다.	1,420
	7월	제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훌륭한 고용 모델	1,273
			취약계층 근로자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확대 시행	1,214
선별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회사가 퇴사주고 일정금액 적립 시 취득자금으로 활용 가능	1,694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151개소 수시감독 결과	2,885	
8월	제출	육아휴직 하는 용감한 아빠 늘었다	3,972	
		부정수급 꼼짝마	2,425	
	선별	고용노동부, ‘16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으로 고시	1,751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 위해 가입기간 1년으로 늘리고 자동해지 요건도 완화	2,121	
9월	제출	전화상담사에 악의적 욕설·협박한 상습 민원인 고발 조치	1,104	
		근로자의 출산 정보 미리 파악해 부당해고, 출산휴가 미부여 적발 추진	1,362	
	선별	임금피크제 실시, 시간선택제 전환하는 경우,근로자 퇴직금 감소 없도록 중간정산 허용	1,866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10월	제출	추석 전 체불임금 사업장 집중 지도·단속	1,567
			“일자리 창출, 지역이 선도합니다”	1,373
		선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위해 도급인의 의무 강화	1,525
			부실훈련기관, 정부지원 훈련시장 발 못 붙인다	1,312
			‘15.3분기 『구직급여 신규 신청 동향』 발표	3,894
관세청	3월	제출	“2015년 보세사 시험 이렇게 바뀝니다.”	807
			면세범위 초과 휴대물품 검사 강화 !	782
		선별	경제활성화 위해 관세조사 시 기업부담 경감한다.	958
			중소기업 수출에 날개를 달다	1,064
	4월	제출	‘5월 가정의 달’ 불법 수입물품 집중단속	797
			병행수입물품 사후서비스(A/S) 안심하고 맡기세요	809
		선별	관세행정 규제지도 작성, 규제개혁 패러다임 전환	1,146
			관세청, 담배밀수 차단 위해 담배 제조사와 손잡는다	807
	5월	제출	‘수입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시행	842
			‘일자리창출 기업’ 1년간 관세조사 면제된다.	913
		선별	중소 수출기업 금융지원 확대된다.	906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대상 늘리고 디자인도 바꾼다	909
6월	제출	섬유·의류 업계, 더 철저히 원산지 관리해야 피해 예방	1,072	
		선생님들!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관리 교육 신청하세요	951	
	선별	중국 수출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해 드립니다	1,238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위기관리 이렇게...	868	
7월	제출	개인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740	
		‘여름철 휴가용품 등 집중단속’ 실시	705	
	선별	원산지 검증 진행현황도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하세요	869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8월	제출	소액 간이수출신고 절차 100% 전산화된다	1,381	
			임시공휴일(14일) 통관지원 대책 시행	905	
		선별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자유무역협정 특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1,076	
			관세청, 면세범위 초과 휴대물품 검사 강화	1,065	
			알권리 충족 및 소통과 공유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804	
	9월	제출	해외 직구 세금 인하, 3개월 앞당겨진다!	1,384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간편 인정품목, 수산물까지 확대	1,053	
		선별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더 좋은 직장문화를 만들자!”	1,062	
			관세청, 수요집중기 우범화물 불시 일제단속 실시	993	
	10월	제출	“자유무역협정 통관 애로, 이렇게 해결해 보세요.”	1,072	
			월별납부 한도액 확대로 기업 자금부담 완화 지원	728	
		선별	블랙 프라이데이 편승 온라인 불법거래 감시 강화	845	
			자유무역협정 활용한 섬유 수출기업, 원산지 관리에 힘써야	937	
	교육부	3월	제출	2015년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계획 발표	2,189
				2015년 개교하는 6개 방송중 입학식 열려	1,343
선별			인성 및 보건·안전 교육기부 프로그램 확대	1,368	
			한국학, 일상속으로 들어가다!	1,085	
4월		제출	수능 출제오류 개선방안 발표	1,975	
			장애인의 날 기념 제1회 대한민국어울림축전 개최	1,583	
		선별	산업단지 제조업분야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된다	2,371	
5월		제출	대학(원)생, 연구환경이 안전해진다!	1,177	
			가족소통과 공감의 문으로 들어오세요!	1,246	
		선별	멀리 있는 멘토와 영상으로 만날 수 있으니, 도시 지역 부럽지 않아요!	1,548	
	제34회 스승의 날 기념식 열려		1,732		
	아프리카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교육혁신사업, 3년간 600만불 지원		1,089		
	파리국제대학촌 「한국관」 설계업체 선정으로 건립 가속화		1,020		
6월	제출	유치원의 규칙 개정이 쉬워지고, 보직교사 배치 기준이 완화됩니다.	1,247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선별	자유학기제 교실수업 개선 자료집 발간	1,375
			201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중3·고2 시행	1,104
	7월	제출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 출범식 개최	1,516
			대학생, 대한민국의 희망을 말하다	1,260
		선별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시안) 발표	1,470
			부담스런 대학기숙사비, 이제는 현금 분할이나 카드로 납부하세요	1,243
	8월	제출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된다!	1,335
			2016학년도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으로 제공	1,221
		선별	교육부, 긴급 시 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 개최	1,311
			교육부, 2학기 개학 대비 학생감염병 예방 강화	1,677
	9월	제출	반짝이는 학생들의 꿈, 예술교육으로 빛나다	1,222
			고졸 취업률 6년 연속 상승	1,320
		선별	대학 등록금 납부제도 공시결과 분석 발표	2,178
			맞춤형 교육급여 9월 23~25일 첫 지급	1,039
	10월	제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복무·보수민원” 한 눈에 보아요	1,213
			“국내 유명 대학의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세요”	1,719
		선별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후속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633
			수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수능 당일 대책 발표	1,77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3월	제출	교통약자 인천공항 출국 “빠르고 편해져요”	1,469
			어르신·색약자·외국인, ‘바로e맵’ 이용하세요!	1,281
		선별	한국관광공사, 강원 혁신도시에 신사옥 개청	1,320
			22개 낙후 시군,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	1,156
	4월	제출	5월 황금연휴 기간 특별교통대책 마련된다	6,738
			아파트 대피 공간 열차단 성능 30분 이상 돼야.	1,245
		선별	도로이용 불편사항, 앱으로 신고하고 포상 받아요!	954
			국토교통 연구개발, 실용화 성과 창출에 앞장선다!	2,043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5월	제출	건물 흔들리면, 기동·승강기 근처로 대피해요!”	1,070
			“여름 하천레저 ‘홍수알리미’로 안전 챙기세요!	889
		선별	“작동이 간편한 유압식 수문 제작·설치 기술” 등 개발	1,392
			시외버스도 지정좌석제·승차권 왕복발권 서비스 시행	1,499
	6월	제출	전국 콜택시 전화“경기도에서도 1333”	1,158
			“중이계약서는 옛말”...온라인·모바일로 부동산계약	1,231
		선별	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	1,223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대비 항공보안 검색 강화	1,007
	7월	제출	철도 폐선부지, 시민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1,548
			산업단지 개발은 빨라지고, 근무환경은 편리해진다.	3,988
		선별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 마련 일목요연해진 국가공간정보 목록 활용 쉬워져	785 994
	8월	제출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 10월까지 개선 완료	2,681
			첫 신혼집은 행복주택으로...	2,597
		선별	추첨으로 공급된 공공택지 2년 간 전매 금지 하천예정지 제도 폐지, 건축,토지거래 불편 해소 기대	2,055 869
	9월	제출	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 허가 기간 대폭 단축 된다!	2,310
			추석 귀성길 고속도로가 막히면 우회도로로.	1,705
		선별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을 급증	1,092
			국토부, 체불된 공사대금 추석 전 해결에 총력	1,040
	10월	제출	옥실 바닥 미끄럽지 않게,“실내건축기준”마련	1,888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날 땐 ‘안전운전’하세요!	1,469
선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따로 정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1,515	
			국토부,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대상 특별점검	801
3월	제출	금융안정위원회(FSB) 프랑크푸르트 총회 결과	938	
		임종룡 금융위원장, 제2차 「금요회」 개최	1,606	
	선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487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금융 위원회			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출범	1,520
	4월	제출	금융위원장, 제3차 「金요회」 개최(은행장 간담회)	2,714
			핀테크 지원센터 센터장 위촉	1,262
		선별	금융위원장, 경인지역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현장 방문	1,403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1,738
	5월	제출	금융전산분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1,147
			이제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증권사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3,386
		선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공포 및 시행	1,069
			제2차 한·영 금융협력포럼 개최	3,298
	6월	제출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 및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 추진	1,942
			통합연금포털 오픈 - 내 연금정보를 한번에 확인해 보세요!	1,873
		선별	기술금융의 외연 확대를 위한 특허관리전문회사(NPE)형 IP 펀드 조성	1,5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68
	7월	제출	임종룡 금융위원장, 「보험업계 실무자 현장간담회」 참석	1,033
「대전 서민금융통합지원·청년인력관리센터」 개소식 개최			1,683	
선별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향	1,001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2,374	
8월	제출	우리집 재개발 재건축 되어도 주택연금 계속 받는다	1,406	
		금융개혁 홍보 슬로건 및 로고 제작	831	
	선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방안	508	
		은행의 자체 기술신용평가 실시를 위한 「기술신용 대출 정착 로드맵」 발표	4,262	
9월	제출	「제52회 저축의 날 기념 그림 공모전」 개최	1,072	
		「구조조정기금 백서」 발간	606	
	선별	핀테크 지원센터, 핀테크 1박 2일 행사 개최	1,132	
		금융안정위원회(FSB) 런던 총회 참석	869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10월	제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1,398
			「노후행복설계센터」 개소식 개최	1,821
		선별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T/F '1차 회의 개최	2,052
			저성장·저금리 시대 효율적 자산관리수단으로 「ETF 시장 발전 방안」	4,549
기획 재정부	3월	제출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971
			기금 여유자금 운용, 해외투자 확대로 수익률 제고	1,375
		선별	2015년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895
			녹색기후기금(GCF), 이행 기구를 인증하고 금년 중 본격적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를 공고화	1,489
	4월	제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방향 논의	808
			신립선 경전철 및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본격 추진	1,653
		선별	5,500만원 이하자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	1,946
			연구기반구축 R&D와 대규모 건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강화	863
	5월	제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2년 간 6700여 명 청년 고용 전망	1,675
			서울~문산 고속도로 올해 내 착공 추진	927
		선별	최경환 부총리, 알리바바 그룹 마윈 회장과 만나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 성과 논의	888
			방문규 2차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809
	6월	제출	주형환 1차관, 서울 수도전기공고 현장방문 및 현장 맞춤형 직업교육 간담회 개최	1,076
			메르스 대책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의결	803
선별		긴급입찰사유 법령화로 자의적 입찰공고기간 단축 제한	994	
		재정정보 공개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935	
7월	제출	메르스 극복·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경 12조 원을 포함하여 총 22조 원 수준의 재정보강 추진	2,185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공공기관 2분기까지 9,500여 명 채용, 올해 채용 목표의 55% 달성	1,411
		선별	국내소비 진작을 위해 '여름 휴가철 국내에서 보내기'를 공공기관이 솔선수범	1,020
			메르스 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국회 확정	1,296
	8월	제출	기획재정부, 광복 70주년 연휴에 공공청사 무료 개방	675
			기획재정부,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 세워	1,240
		선별	국민연금 자산운용,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 평가 한다	1,507
			국고채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국고채 전문딜러(PD) 규정 개정	1,120
	9월	제출	지자체의 방만한 국제행사 개최 막는다	926
			정부기금, 투자상품 다양화로 수익률 높인다	1,550
		선별	복권기금 법정배분 사업군과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운영 사업군 심층평가 착수	570
			침대형 병영생활관 사업 성과 전수조사	862
	10월	제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등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추진	1,003
			협동조합, 자금조달 쉬워지고 경영정보 투명해진다	1,155
		선별	2015년 11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10월 국고채 발행 실적	1,578
			환전업체에서 해외송금 가능해진다. 정부, 환전업 개편	2,145
농림축산 식품부	3월	제출	농업인 맞벌이 자녀도 어린이집에 입소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762
			농식품부, 발전소 온배수 등 폐열을 이용한 시설원에 냉난방시설 지원 신규사업 공모	1,486
		선별	우리나라 할랄인증 유제품 수출 확대 전망	712
	조선시대, 우리나라에는 어떤 가축질병들이 발생했나?		1,116	
농림축산 식품부	4월	제출	6차산업화 제품, 어떻게 하면 잘 팔리나요?	2,234
			엄마손은 약손! 진짜 약손들이 몰려온다!	1,105
	선별	수입 파인애플에 대한 친환경 소득방법 개발 성공	997	
		농식품부, 2015년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1,482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5월	제출	'15년 농식품 수출목표 77억불 달성을 위해 정부·유관기관·지자체의 협업이 강화된다.	1,469
			운현궁에서 만나는 '왕이 사랑한 전통주와 전통음식'	1,109
		선별	중동과의 한식 식문화 교류 본격 추진	955
			미얀마에 한국의 식물검역기술 전수	783
	6월	제출	가축질병분야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1,794
			최초 개발한 양조용 우수 효모·누룩 보급, 품질향상과 전통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1,414
		선별	대한민국, 세계 7위의 품종보호 출원국 달성	978
			장마철 대비, 가축 매몰지 정부합동 안전점검 실시	846
	7월	제출	미(米)라클 프로젝트, 쌀에 맛있는 기적을 더하다!	1,604
			농식품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팔 걷어붙이다	2,514
		선별	금년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크게 늘어	1,210
			사과 도매시장 소포장 유통 본격 시동	1,380
	8월	제출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읽는 농업의 과거-현재-미래 사진전	1,850
			“제15호 태풍(고니) 피해, 이렇게 대비 하세요 ”	1,372
		선별	농식품부, 닭고기 소비활성화 추진	953
			농식품부, 제대군인 등 특수직군 대상 귀농, 귀촌 교육	1,794
	9월	제출	복지용 쌀(나라미) 공급 대상자 확대	1,202
			추석맞이 농정 성과·현안 및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캠페인 실시	642
		선별	꽃과 함께 하루를, 능률 Up, 스트레스 Down	935
			종자업등록 시설기준 개선을 통해 종자산업 육성 박차	1,298
10월	제출	'벼가 도복했다'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898	
		겨울철 재해도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1,885	
	선별	농지연금 농지면적 가입기준 폐지	949	
		이젠 닭고기 살때도 동물복지 인증마크 확인	1,554	
3월	제출	연구소 기업을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 동력으로	2,381	
		휴대폰 소액결제, 안전해졌습니다.	1,865	
	선별	미래부, SW사업의 제값주기 정석을 보여준다	1,168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미래창조 과학부			미래부, ICT 중소기업에 600억원 용자 지원	1,145
	4월	제출	정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1,565억원 투자	2,466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4.24.(금)부터 20% 적용	1,349
		선별	미래부, 일하는 방식을 효율성과 정책현장 중심으로 대폭 전환한다	813
			안 쓰는 연구장비, 필요한 곳으로 이전·재배치하여 국가 연구개발(R&D) 효율화 제고	1,179
	5월	제출	사이버보안·시스템통합(SI)·통신·플랜트 분야 처음으로 손잡고 해외시장 개척 본격 나선다	1,660
			창조경제실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해우소 개최	1,141
		선별	2015 주한 외교관 초청 정책설명회 개최	1,046
			소프트웨어 명장 꿈꾸는 청소년들 모이세요.	1,578
	6월	제출	『광복 70년 과학기술 대표성과 70선』 선정	2,800
			미래창조과학부, 「3D 프린팅 창의성 및 전문 교육」 실시	2,010
		선별	손상된 장기에 붙여 치유를 돕는‘세포 스티커’개발	1,458
			스마트미디어엑스(X) 캠프를 통해 28개 신규 서비스 발굴·선정	1,115
	7월	제출	기술개발 지원 에스오에스(SOS), 1379* 하세요!	1,996
창업열기를 벤처 붐으로 확산			4,121	
선별		미래부 CCTV 산업 활성화 추진	1,267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서비스 민원동향 발표	2,453	
8월	제출	미래 방송인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기회 제공	1,597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산업의 선순환 구조 구축 시동 건다	2,598	
	선별	미래부, 신개념 의료기기 개발 위해 3년간 400억원 지원	1,080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 위성·발사체 부품 국산화 성공	1,469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9월	제출	미래창조과학부, 『한국 재발전 프로젝트』 추진	1,841	
			국민이 바라는 과학기술, 빅데이터 속에서 답 찾는다	1,904	
		선별	이석준 제1차관, 러시아 산업통상부 차관 면담	1,135	
			일상생활의 필요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연구개발 추진	1,757	
	10월	제출	기후변화대응 「탄소자원화 전략」 수립 추진	1,205	
			“과학기술혁신의 미래상, 세계와 함께 그리다”	1,797	
		선별	빅데이터로 중소기업 경쟁력 높인다	1,385	
			미래부, 천연물 산업발전 플랫폼 구축 추진	1,192	
	방송통신 위원회	3월	제출	중고폰 선보상제'요금제 선택권 부여한다	1,270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문턱 크게 낮아진다!	1,290
선별			SKT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제재	843	
			방통위, 「방송시장 경쟁상황 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613	
4월		제출	법인휴대폰도 본인인증 가능해진다	972	
			방통위/TTA, 스마트 수화방송서비스 기술 표준 제정	1,032	
		선별	방통위, 올림픽·월드컵 등 시청권 보장을 위해 방송분쟁 조정에 적극 나선다	922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 과징금 부과”	1,268	
5월		제출	방송통신위원회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 중인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지원 확대	1,484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제재	976	
	선별	방통위, '잊혀질 권리'세미나 개최	1,069		
		불법TM 신고, 방송·통신분야 전 업종으로 확대	852		
6월	제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요”	766		
		“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	1,264		
	선별	방통위,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 수립	1,583		
		시청자 보호를 위한 '트리거광고'자율규제 도입	635		
7월	제출	방통위, 재승인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의결	840		
		국민과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 !	810		
	선별	해외에서 휴대폰 분실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1,367		
		방통위, 씨씨에스충북방송 등 13개 SO 재허가 사전동의 의결	713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8월	제출	방통위, 협찬고지 투명성 제고 및 형식 규제 개선 추진	1,260	
			휴대전화 판매점, '개인정보 지킴이 매장' 으로 고객정보보호에 앞장서	1,032	
		선별	방통위, 2학기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지원 확대	1,588	
			방통위, 알뜰폰 불법 텔레마케팅 강력 제재	1,657	
	9월	제출	"11월부터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교육채널을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에서도 하나 더 볼 수 있어요."	709	
			시청자 보호를 위한 '채널변경광고' 자율규제 도입	847	
		선별	방통위, 스마트폰 인앱결제 앱 표기방식 개선	1,031	
			방통위, 2016년도 예산안은 방송의 공공성·다양성 확보 및 국민의 미디어 참여 활성화에 중점 투자	1,213	
	10월	제출	지원금과 20% 요금할인금액 꼼꼼히 비교하세요	1,063	
			통신 미환급액 돌려받고, 경품도 받으세요!	1,069	
		선별	방통위,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854	
			2015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추진	855	
	산업통상 자원부	3월	제출	"1381"인증표준콜센터 개통 1년, 기업들 인증장벽 쉽게 넘었다	1,647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쾌적하고 편리한 산단환경 조성에 1천억 원 투자	2,110
선별			전기차 충전소 부족문제, 민간기업 참여로 해결한다.	1,420	
			한국의 기술·표준 운영경험, 개발도상국에 전수	1,214	
4월		제출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주유소」 제도 도입	1,735	
			이제 자동차 배터리 제조일자 바로 확인하세요	1,268	
		선별	금은방 저울, 점검해 드려요.	884	
			국표원,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불량제품 유통차단에 나선다.	1,133	
5월		제출	한국인의 신체정보 제공으로 착용형 스마트기기 안성맞춤	1,167	
			정부 손잡고 십시일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한다.	1,260	
		선별	국내 최초, 상용차 전용 주행시험장 착공	1,345	
			아태지역 통상장관, 경제통합 가속화방안 논의	1,762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6월	제출	초소형 전기차(Micro-모빌리티) 개발에 박차	1,897
			전 세계 해외투자 정보를 한자리에!	1,126
		선별	구두, 벨트, 휴대용사다리 등 생활용품 13개 및 폴 리염화비닐관 13개 리콜조치	1,093
			15년도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지원 대상으로 구 미 지식산업센터, 시화 근로자 오피스텔 건립 사업 선정	1,792
	7월	제출	산업 연구현장에 여풍(女風) 게세진다.	1,268
			담뱃불 저절로 안 꺼지면 국내 판매 못한다	1,249
		선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 동안 장관 회의 개최	981
			산업부, 미래 신시장 선점을 위한 가상훈련 미래 비전 제시	1,162
	8월	제출	불법·불량 수입제품 꼼짝 마!	1,663
			산동성, 한국기업의 진출 통로가 된다.	1,783
		선별	국민,기업 친화형으로 거듭난 국가표준(KS)	2,081
			산업부, 스마트 공장 기술개발 로드맵(안) 공개	2,001
	9월	제출	스마트폰 이젠 안심하고 보관하세요	1,258
			시험성적서 지폐 수준으로 보안 강화!	1,030
		선별	산업부, 1,850억 원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한다	1,515
			산업부, 소비재 생활용품 수출에 발벗고 나선다	1,230
	10월	제출	국가표준(KS) 철근 사용, 건축물 안전의 시작	1,189
			숨은 진주 찾기! 공공기술 활용 연구개발(R&D) 재 발견사업 확대	1,287
		선별	여수 화양지구 1조 700억 규모 관광단지 개발 국 제공모 추진	1,040
			러시아 수출촉진 등 시장진출 기반조성 추진	1,035
3월	제출	칭다오 교민 100여명, 정부합동 대표단 주최 마약 범죄 예방 설명회 참석	904	
		통일 독일의 중심에 세워진 드레스덴 “한국 광장”	1,168	
	선별	윤병세 장관, 입원 치료 중인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를 방문	1,043	
		국립외교원,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 강연회(IFANS Talks)개최	725	
	4월	제출	워킹홀리데이, 이제 칠레로 떠나요	782
			제64차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 출정 기념식 개최	1,155
		선별	재외공관장-다문화가족 및 보육원생들과 소통과	752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외교부			우정의 시간을 가지다	636
			안전한 해외선교를 위한 논의, 외교부와 선교단체가 함께하다.	
	5월	제출	쿠바에 우뚝 선 감은사지석탑 !	1,360
			제7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개최	1,820
		선별	한국의 멋을 담은 전통과 현대의 선율, 일본에 올려 퍼지다!	1,357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세계교육포럼(WEF) 개최식 참석차 방한	1,005
	6월	제출	임진각에서 울려퍼진 평화의 메아리,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퍼져	1,092
			「주요 분쟁 재난 지역」 인도적 지원 결정	1,109
		선별	윤병세 장관, CTBT 조기 발효와 북한의 CTBT 서명·비준 및 한반도 통일을 위한 비핵화를 촉구	1,809
			“여권신청, 7월 1일부터 더욱 간편해집니다!”	809
	7월	제출	메르스로 인한 외국의 한국여행자제 권고 모두 해제	1,666
			희망과 열정의 ‘유라시아 친선특급’ 14,400km 대장정에 오르다	1,815
		선별	해외긴급상황에서 통역이 필요할 때는 영사콜센터로 전화하세요	857
			한-캐나다 과학기술혁신 협력 협정 타결	962
8월	제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 강화와 전염병 정보제공 체제 구축키로 해 ”	2,520	
		세계의 손맛, 한식을 겨루다	2,045	
	선별	한국, FEALAC 동아시아 지역조정국(의장국) 수입 및 2017년 제8차 FEALAC 외교장관회의 유치	1,273	
		신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마무리 공식 협상 시작	1,541	
9월	제출	2015 홍콩 「한국 10월 문화제 (Festive Korea)」 개막	2,381	
		‘선진 한국’을 배우는 스페인 학생들	1,879	
	선별	새로 열리는 북극시대,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외교부	1,955	
		외교부, 필리핀내 우리국민 범죄피해 감소를 위한 안전점검 실시 예정	741	
10월	제출	정부, 필리핀내 우리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사건사고 처리 인력 증원 추진 및 관련 예산 지원 결정	1,494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국립외교원, ‘한국의 외교: 전략과 미래’를 주제로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인식조사 실시	1,712
		선별	한국,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3년간 총 1,200만 불 지원 결정	1,154
			한일 대학생 교류, 44년간 이어진 우호와 친선의 여정	820
원자력 안전 위원회	3월	제출	우리 동네 실시간 방사능 정보는?	582
			“안전한 원자력을 위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1,552
		선별	원안위, 『하나로』 건물 외부벽체 일부 내진성능 보강 조치 요구	801
			제37회 원안위,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의	670
	4월	제출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시행.	1,153
			한국, IAEA RANET(긴급대응지원네트워크) 가입으로 방사능사고시 국제공조 강화	666
		선별	원안위, 원전비리 근절을 위한 정상화과제 집중 추진.	896
			원안위,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의결 연기	620
	5월	제출	정책실명제 통해 투명성 대폭 강화	1,213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재설정 심사결과 보고	1,036
		선별	원안위, 신고리 3호기 제어봉위치전송기 케이블 조립체 일부 기기검증 재시험 조치	912
			이은철 위원장, 스웨덴 방사선안전청 방문 및 국제 원자력규제자협의회 참석	923
6월	제출	원안위, 서남권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추가 지정	551	
		제2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에 김광암 변호사 재위촉	1,000	
	선별	원안위, 하절기 원전 특별점검 실시	489	
		이은철 원안위원장, 조선플랜트 방사선작업현장 방문	1,429	
7월	제출	원안위, 대전 원자력시설 안전 소통 채널 가동	602	
		이은철 원안위원장, 개선된 수입화물 방사선 감시 현장 방문	638	
	선별	원안위, 원전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위 검	946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사오류 확인, 해당 부위는 건전한 것으로 평가	561	
			제4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8월	제출	일반인 대상 방사선 계측기 사용 교육 개최	721	
			제4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851	
		선별	제4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654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2호기 원자로 재가동 승인	515	
	9월	제출	이은철 원안위원장,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방문	611	
			점검	794	
		선별	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 안전관리 체계 개선	496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안전점검 추진	1,196	
	10월	제출	원자력 안전협력 증진을 위한 베트남과 MOU 서명	1,154	
			한·중·일, 원자력안전 협력 강화를 위해 3개 워킹 그룹 운영 합의	1,677	
		선별	원안위,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출품작 3건 선정	1,358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대규모 실시	862	
	중소 기업청	3월	제출	정부, 폐업 소상공인 다시 일어설 발판 만들어	2,109
				히든챔피언 기업 기준 정비 및 윤리경영 강화	1,933
선별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의 구축으로 경쟁력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육성”	1,711	
			준비된 소상공인, 사관학교에서 첫걸음 내딛는다	1,747	
4월		제출	대한민국의 미래! 280명 청년들의 꿈이 펼쳐진다	1,138	
			중소중견기업, 무역기술장벽을 넘어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1,360	
		선별	중기청, 女大生·경력단절여성 대상 창업플랫폼 운영.	1,466	
			내 기술보호 역량은 몇 점?	1,267	
중소 기업청		5월	제출	중기청, 정보화를 통한 제조업의 스마트화 혁신 추진	1,416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청년상인 집중 육성한다.!	1,259
		선별	청년창업자 범위 및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등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1,348	
			우수 전통시장 등에 대한 포상 신청·접수	1,189	
6월	제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지역의 강소기업 72개사 선정	1,353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매출채권보험 전(全) 업종으로 확대	1,329
		선별	현장에서 배우는 성공창업, 창업인턴제 본격 추진	1,366
			중소기업 기술개발, 연구년 맞은 이공계 교수들이 나선다!	1,086
	7월	제출	제7홈쇼핑 ‘아임쇼핑(IM Shopping)’ 개국	1,660
			재도전 기업인의 칠전팔기(七顛八起) 도전이 펼쳐진다.	1,246
		선별	중기청,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전통시장의 글로벌화 촉진	1,115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규모 증액으로 하반기 경제 살린다.	1,313
	8월	제출	창의적이고 패기 있는 청년 상인을 집중 육성한다	1,310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재직유도 효과 ‘톡톡’ 생산성 제고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모범사례로 정착	2,449
		선별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추석 전 5,000억원 규모의 예산 조기집행 추진	1,116
			중국 온라인 쇼핑몰 진출 전략 대공개	1,093
	9월	제출	중기청, 3000개 중소기업 대상 기술보호 교육 실시	1,559
			중기청, 지역특산품 소비 촉진을 위한 「팔도명품 상품권」 출시	1,231
		선별	중기청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선도적 도입으로 청년고용 절벽 해소에 앞장	1,172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뿌리 뽑는다	1,774
	10월	제출	우리동네 슈퍼! 나들가게 공동세일전 ‘매출효자’ 10일간 450만원씩 더 벌었다!	2,424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대기업, 공공기관 구매 간 연계강화	1,802
		선별	2015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1,591
중소기업 컨설팅 정보 다 모였다			1,200	
통계청	3월	제출	통계청, 3대 표준분류 개정원칙 정립하고 산업분류 개정 착수	1,093
			2014 한국의 사회지표	7,347
	선별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559	
		2014년산 논벼(쌀)생산비조사 결과	3,100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4월	제출	통계청, '2015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627
			통계청, 에콰도르 통계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 연수 개최	685
		선별	부처 간 협업으로 정부 3.0을 선도하다	975
			통계청, 수학교과 통계교육 개편 협업·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1,851
	5월	제출	제17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	555
			통계야 놀자! 생각을 키워주는 통계교실 개최	697
		선별	통계청-한국공인회계사회 경제통계교육 협력 MOU 체결	738
			통계청, 2015년 비정상외 정상화 본격 추진	873
	6월	제출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제7차 개정 착수!	743
			시군구 장애인구추계 시스템 개발 및 보급	655
		선별	2015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770
			정규남 통계청 차장, 제12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가	1,362
	7월	제출	'생활 속 통계 활용으로 성공과 행복을'	550
			인구주택총조사 D-100, 성공을 향한 카운트다운!	639
		선별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 개정·고시	661
			'2015년 하반기 전국 통계기관장 회의 개최	595
	8월	제출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657
			제17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	1,705
		선별	국민맞춤 통계서비스, 국민이 디자인하고 국민이 평가하다	1,931
			통계청, "제21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실시	1,632
	9월	제출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통계교실, 지금 신청하세요!	793
			'생활 속 통계활용으로 성공과 행복을 동시에'	592
		선별	통계청-네이버(주) 업무협력 협약 체결	967
			제3회 통계데이터 개방·이용 확산포럼 개최	913
	10월	제출	통계청, 세계적 통계석학 한스 로슬링 초청	1,048
			2015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으로 참여하세요	1,049
		선별	통계청-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협력 협약 체결	607
201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1,652	
특허청	3월	제출	소통하는 창조경제, 브랜드로 말한다	1,514
			특허청, 창조경제타운에 원클릭 지식재산정보 검색	945

생산 기관	생산 월	수집 유형	보도 자료 제목	음절 수
			서비스 제공	
		선별	여성들의 숨겨진 아이디어, 보석을 찾아라!	1,362
			재해예방 '누전 차단기' 스마트하게 진화 중!	1,217
	4월	제출	생활의 참견? 발명의 참견!	701
			장애인 편의개선한 가전생활용품 특허출원 급증!	1,122
		선별	가동보 기술의 무임승차용 특허, 더 이상 No!	1,492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비콘(Beacon) 기술	1,220
	5월	제출	대한민국을 더욱 발명케 하라!	722
			미국으로 짝퉁 스마트폰(부품) 밀수출한 일당 검거	1,447
		선별	특허청,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확대 시행	522
			특허청, 발명의 날 50주년 맞아 발명 주간 지정	1,308
	6월	제출	귀사의 지식재산경영 수준을 진단해 드립니다.	1,109
			특허청, 제1회 지식재산 보호 영상 콘테스트 개최	892
		선별	특허출원 서류, 민원인이 원하면 돌려준다.	934
			직무발명 제도개선 전문가 포럼 발족	1,113
	7월	제출	홍삼 최고등급 제품(천삼), 중국서 위조하려던 일당 검거	1,682
			잘못된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바로잡는다	1,974
		선별	특허출원에 '심사중' 표시를 의무화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	921
			특허청, 공지에외주장 보완제도 도입에 따른 수수료 정비	719
	8월	제출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의 특허출원 우선심사한다	1,041
			'차박여행' 인기에 '캠핑카' 기술도 고공행진	1,409
		선별	특허청, 고객의 아이디어로 특허서비스의 품질 높인다	803
			국제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한미 특허협력 시작	914
	9월	제출	NFC, 터치 한번으로 펼쳐지는 스마트한 세상!	1,335
			2014년도 미국 상표·디자인 등록, 한국기업 선두 달려!	1,089
		선별	짜퉁 '아모레 쿠션 화장품', 국내에 유통·판매한 일당 검거	1,191
			디자인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간편해진다	990
10월	제출	한글상표에 대한 관심 높아지다	1,648	
		특허 개방하고 특허료 혜택 받으세요	1,138	
	선별	이젠 담배도 다양한 특허기술로 피운다	1,137	
		지식재산권 분쟁, 이제 대화로 해결하세요	1,534	

2. 보도 자료 진단 절차

1) 정확성 진단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진단을 하였다.

① 1.1.1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지켰는가?

이 항목은 문서 생산자가 정확한 표기 형태를 몰라서 범하는 오류이다. 마찬가지로 표준어 규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쓰는 것 역시, 정확한 표준어 어휘를 몰라서 생기는 경우를 뜻한다. 문장 부호의 오류 역시 이 항목에서 지적한다.

- 한글 맞춤법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이 항목에서 지적한다.
 - 두음법칙을 잘못 사용한 경우 지적한다.
(예: 회계년도 → 회계연도, 체결을 → 체결를)
 - 사이시옷을 잘못 표기한 경우 지적한다.
(예: 죄값 → 죄갯, 인사말 → 인사말)
 - ‘-키로’, ‘-토록’ 등의 줄임말의 지적 여부는 소통성 평가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정확성 평가에서 진단하지 않는다. 단, 준말의 표기가 잘못 되었을 경우 지적한다.
(예: 되야 → 돼야, 배도록 → 비도록)
 - 숫자 표기나 영문 표기 뒤 조사의 이형태를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지적한다.
(예: 10km을 → 10km를, 전담팀(TF)를 → 전담팀(TF)을)
 - 직접 인용문을 사용할 때 ‘라고’, ‘라며’, ‘라면서’를 사용하지 않고 ‘고’, ‘며’, ‘면서’를 쓰면 지적한다.
(예: “이번 행사를 축하한다.”고 → “이번 행사를 축하한다.”라고)
- 문서에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 항목에서 지적한다. 단, 문서의 내용상 비표준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지적하지 않는다.
- 문장 부호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새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일반적인 문장 부호도 이 항목에서 지적한다.
 - 온점을 이용한 날짜 표기 시 ‘일(日)’ 뒤에 온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지적한다.
 - 날짜 표기 시 단위 표기의 일관성을 지키지 않은 경우(5.3일, 2012.5월)도 지적한다. 단, 이와 관련된 오류가 반복되어 출현하는 경우 1회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보도 자료 내에 ‘2012.5.4. / 9. 5일’과 같은 오류가 동시에 나타나더라도 오류 1회로만 처리한다.)
 - 년도의 앞 두 자리 생략 시 작은따옴표는 지적하지 않는다.
(즉, 여는 작은따옴표를 쓴 “15년”과 닫는 작은따옴표를 쓴 “15년” 모두 맞는 것으로 인정한다.)

- 공통성분을 줄이지 않고 사용한 가운뎃점과 한 단어로 굳어진 말에 가운뎃점을 표기한 경우 지적한다.
(예: 협·단체 → 협회·단체, 국내·외 → 국내외, 동·서 → 동서)
- 명사형 어미나 서술성을 가진 명사로 문장이 끝났을 경우 마침표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마침표를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하여 지적하지 않는다.
- 특정 명사나 표현을 강조할 때 작은따옴표, 큰따옴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의 다른 부호를 사용한 경우 역시 허용하여 지적하지 않는다.

- 오자 및 오기도 이 항목에서 지적한다.

(예: 부담을 였다 → 부담을 하였다, 건내받은 → 건네받은)

- 영문자 표기, 한자 표기 등 한글 표기 이외의 표기는 소통성 평가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정확성 평가에서 진단하지 않는다.

- 하나의 보도 자료 안에서 같은 사항으로 반복적으로 범한 오류는 1회만 지적한다.

② 1.1.2 띄어쓰기를 잘하였는가?

한글 맞춤법 중 띄어쓰기만을 분리하여 하나의 독립된 진단 기준으로 설정한 항목으로 일반적인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를 따르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복합 명사 띄어쓰기 오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 복합 명사 오류는 3단어 이상 복합 명사를 대상으로 하며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지적한다.

(예: 누적적발건수 → 누적 적발 건수)

- ‘명사+하다’ 앞에 또 명사가 오면 명사와 명사는 띄어 써야 하지만 본 진단에서는 복합명사 진단 세부 규정을 적용하여 ‘하다’ 앞의 명사도 3단어 이상 복합 명사만을 대상으로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지적한다.

- 복합 명사로 보기 어려운 단어는 지적한다.

(예: 추석전 → 추석 전)

- 의존명사 띄어쓰기 오류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종류별로 1회씩 지적한다.

(예: 6월말까지 → 6월 말까지 / 터널내 → 터널 내 /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 →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 / 1,300명중 → 1,300명 중 / 영국측과 → 영국 측과)

- 단, 화폐 단위 의존명사의 경우, 종류가 다르더라도 1회만 지적한다.

(예: 2백억원 → 2백억 원 / 1천9백만불 → 1천 9백만 불)

- 하나의 보도 자료 안에서 동일한 의존명사의 띄어쓰기를 반복하여 틀린 경우는 1회만 지적한다. (예: 신고시 → 신고 시 / 위탁거래시 → 위탁거래 시)

- 접사와 의존명사를 혼동한 경우 지적한다.
 - 동일한 형태로 인하여 접사와 의존명사를 혼동한 경우 지적한다. 접사를 의존명사로 생각하여 띄어쓰거나 의존명사를 조사나 접사로 생각하여 붙여 쓴 경우 지적하며 한 문서 내에 두 가지 오류를 범했을 경우 두 번 지적한다.
 - (예: 식품업체간 → 식품업체 간 / 4일 간→ 4일간)
 - 조사와 의존명사, 어미와 의존명사를 혼동하여 띄어쓰기한 경우도 위와 같은 기준으로 지적한다.
 - (예: 외국인 뿐 아니라 → 외국인뿐 아니라 /
 - 성실납세자일뿐만 아니라 → 성실납세자일 뿐만 아니라 /
 - 심리불속행 기각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바 1심과 2심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 심리불속행 기각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1심과 2심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 수를 표기할 때 만 단위로 띄어 쓰지 않은 경우 지적한다.
 - (예: 12억5000만 → 12억 5000만)

- 문장 부호 규정에 어긋나는 띄어쓰기의 경우 이 항목에서 지적한다.
 - 날짜 표기 띄어쓰기는 ‘년’, ‘월’, ‘일’을 각각 지적한다.
 - (예: 2015년12월4일 → 2015년 12월 4일 / 2015.12.4. → 2015. 12. 4.)
 - 쌍점은 앞말에는 붙이고 뒷말과 띄어 쓰지 않을 경우 지적한다. 단, 시간이나 점수 등 앞뒤를 붙여 쓰는 경우는 규정에 따라 지적하지 않는다.
 - 기간이나 범위를 나타낼 때 물결표(~)의 앞뒤를 붙여 쓰지 않은 경우 지적한다.
 - 괄호 뒤 띄어쓰기가 잘못된 경우 지적한다.
 - (예: 결함보상(리콜조치) 한다. → 결함보상(리콜조치)한다.
 - / 16개 업체(신고수량 11만 점) 에 대해서는 → 16개 업체(신고수량 11만 점)에 대해서는)

- 띄어쓰기를 지나치게 한 경우 지적한다.
 - (예: 중단 · 거절하거나 → 중단·거절하거나 / 유리한 계약 → 유리한 계약)

③ 1.1.3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을 지켰는가?

이 항목은 국어 4대 규범 중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진단 기준으로 설정한 항목이다.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에서 들어와 국어 어휘로 정착한 말을 표기하는 규범이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국어 어휘를 로마자로 표기하기 위한 규범으로 상호간의 공통적인 특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래어 표기법에 관해서는 외래어, 외국어 어휘 표현이 정확한지, 인명이나 지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점검하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해서는 2002년에 수정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표기되었는지를 점검한다.

- 프리젠테이션 → 프레젠테이션
- 엘지유프러스(LGU+) → 엘지유펠러스(LGU+)

- 캐비닛 → 캐비닛
- 호치민 → 호찌민
- 사천성 → 쓰촨 성
- 싱가포르 → 싱가포르
- 알리지 → 알레르기
- 알콜 → 알코올
- 컨테이너 → 컨테이너
- 솔루션 → 설루션
- 타겟 → 타깃

④ 1.2.1 어휘를 의미에 맞게 선택하였는가?

이 항목은 공공언어에 쓰인 어휘가 의미에 부합하게 선택되었는가를 진단하기 위한 항목이다. 즉, 사용된 어휘의 의미가 필자의 의도를 드러내기에 적절한 것인가, 맥락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된 것인가를 진단하는 것이다. 이 항목은 ①에서 다룬 ‘한글 맞춤법’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철자가 유사하여 생긴 오류 중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잘못된 철자 표기에 대해서는 표기의 정확성에 관한 문제로 다룬다. 그러나 철자가 유사하여 생긴 오류 중 표준국어대사전에 모두 등재된 ‘헛갈리는’ 단어 사이에서 일어난 단어 선택의 문제는 이 항목의 어휘 선택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나가다/나아가다’, ‘치하/위로’, ‘계재/게시’, ‘반증/방증’, ‘증대/증진’와 같은 예가 있다. 또한 의미는 통하지만 맥락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선택한 경우도 이 항목에서 진단한다. 예를 들어, ‘이슈를 발굴해 → 이슈를 찾아내’가 있다.

- 출입을 일체 금하다. → 출입을 일절 금하다.
- 각국별 정상들이 회의를 가졌다. → 각국의 정상들이 회의를 가졌다.
- 조직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다 → 조직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다
- 해외 수출을 활성화하였다. → 수출을 활성화하였다.
- 현역병 모집 인원은 군에서 매월별 필요한 인원에 따라 결정된다.
→ 현역병 모집 인원은 군에서 매월 필요한 인원에 따라 결정된다.

⑤ 1.2.2 문장을 어법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이 항목은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문장 성분들 간의 관계가 정확하고 적절하게 쓰였는지를 진단하기 위한 항목이다. 문장 성분의 호응, 성분의 중복, 과도한 생략의 문제를 중심으로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진단하였다.

- 문장 필수 성분(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필수 부사어) 생략
- 불필요한 성분 삽입
- 부자연스러운 문장 접속
- 과도한 문장 접속
- 접속 오류(대등 접속에서 앞뒤 성분이 다른 경우)

- 문장 접속 오류(연결어미로 이어진 선행절과 후행절의 접속이 잘못된 경우도 이 항목에서 진단)
 - 부적절한 연결 어미 사용 ●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오류
 - 주술 호응 오류 ● 문장 간 호응 오류 ● 어순 오류
 - 동일 표현 반복 ● 동일한 조사의 반복 사용
 - 부적절한 조사 사용, 잘못된 조사 사용
 - 필요한 조사 생략 ● 서술어 어간 생략
-
- 문장 성분이 올바른 호응을 이루지 않을 시 지적한다.
 예) 태풍의 발생 빈도와 세기가 커지고 있다. → 태풍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세기가 커지고 있다.
 가정이나 공장에서는 많은 불편과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 가정이나 공장에서는 많은 불편을 겪고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 중의적 표현으로 문서의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때에 지적한다.
 예) A사 대표가 이 총재와 골프 회동을 해명하기로 했다. → A사 대표가 이 총재와의 골프 회동을 해명하기로 했다.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업소가 폐업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 조사를 과도하게 생략하여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 지적한다.
 예) 대체 인력 사전 확보 후 필요 시 충원. → 대체 인력을 사전에 확보한 후에 필요 시 충원한다.
 - 조사 사용의 문법적, 의미적 오류가 있을 시 지적 한다.
 예) 수형자들에게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적응력을 향상하는 기회를 준다.
 → 수형자들에게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적응력을 향상하는 기회를 준다.
 미취업자과정은 온라인 수강생(연간300명)을 위한 교육뿐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생의 선수학습으로써, 재직자과정은 온라인 수간(연간300명)과 오프라인 이수생의 보수교육으로써 운영된다.
 → 미취업자과정은 온라인 수강생(연간300명)을 위한 교육뿐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생의 선수학습으로서, 재직자과정은 온라인 수간(연간300명)과 오프라인 이수생의 보수교육으로서 운영된다.
 - 간결성이 중요한 보도문의 특성상을 고려하여, 문장이 주어 없이 명사형으로 끝나는 경우는 ‘서술어 생략’으로 다루지 않는다.
 - 제목과 부제는 예외로 하여 지적하지 않는다.
 - ‘-하다’가 붙어 용언으로 쓰이는 어휘가 ‘-하다’ 없이 사용되는 경우는 문법상 오류이지만, 이는 보도 자료의 특성으로 인정하여 지적하지 않는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심표를 사용해야 한다.
 예) 이와 관련, 민원수수료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 그중 J물산 대표 이 모씨를 ‘12.09.25.구속, 나머지 업체에 대하여서도 ~
 - 보도 자료의 특성상 문장이 길더라도, 글머리를 달리 구분하여 제시한 경우는 과도한 문장 접속으로 다루지 않는다.

⑥ 1.2.3 문장을 우리말답게 표현하였는가?

이 항목에서는 어색하거나 우리말답지 않은 문장 표현을 진단한다. 지나친 관형화 구성이나 명사화 구성을 사용한 사례, 번역 투 표현을 사용한 사례, 과도하게 피동이나 사동 표현을 사용한 사례 등이 주요 진단 대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진단 요소와 원칙을 바탕으로 진단한다.

-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 문제는 이 항목에서 지적하지 않는다. 단, 외래어를 사용하여 의미가 중복된 경우는 지적한다.
- 같은 유형의 오류를 반복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로 지적한다. 단, ⑤의 수 표현은 1회만 지적한다.
- 세 단어 이상의 과도한 명사화 구성은 지적한다. 단, 제목이나 부제에서는 지적하지 않는다.
예) 어린이 안전 먹을거리 구매 요령을 → 어린이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구매 요령을
- 과도한 관형화 구성
예)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퀴즈대회
→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퀴즈대회
- 불필요한 피동·사동 표현: 맥락을 고려하여 지적한다.
예) 확대하여 설치하게 되었다. → 확대하여 설치하였다.
배송 대행 서비스가 이용될 때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배송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할 것으로 기대됨.
젊은이들에게는 진취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되어진다.
→ 젊은이들에게는 진취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교육환경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키기로 결정했다.
→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 번역 투 표현: 맥락을 고려하여 지적한다.
예) 정비 추진 중에 있다. →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전체가 모여 회의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 이번에는 전체가 모여 회의해야 한다.
- 수, 단위를 규정에 맞게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방대한 통계자료의 양과 정확한 수치를 드러내는 공공문서의 특성상 지적하지 않고 허용한다.
예) 3천 5백만 원(원칙) → 3.5천만 원(허용)
- 동어 반복 표현: 의미 중복과 조사나 어미 중복을 지적한다.
예)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마련하였다. → 확산되는 계기를 갖고자 마련하였다.
편리하고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편리하고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타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

예) 평가 내용면에서 훈련시설 및 장비 중심 평가에서 재정건전성·훈련성과 및 현장역량을 포함하여 다각화하였다. → 훈련시설 및 장비 중심 평가에는 재정건정성, 훈련성, 현장역량을 포함하여 평가 내용면의 기준을 다각화하였다.

캠페인 기간 중에는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통해 자신의 미환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를 하거나, 환급을 신청한 이용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캠페인 기간에는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 접속해 미환금액이 있는지 조회한 후 환급을 신청한 이용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위 진단 기준을 바탕으로 문서당 40점 만점으로 진행하였다. 한 개의 오류마다 1점씩 감점을 두었으며 항목별로는 별도의 가중치를 두지 않았다. 다만, 오류의 횟수를 단순 계산하면 문서별로 작성량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하게 비교할 수가 없어 1,000음절당 환산 점수로 계산하였다.

2) 시민 소통성 진단

소통성 진단은 정확성 진단에 비해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 진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민현식 외(2010)의 진단 항목을 검토하였다.

영역	요소	항목
2. 소통성 (가중치 기준)	2.1. 공공성	2.1.1.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2.1.2. 고압적·권위적 표현을 삼갔는가?
		2.1.3. 차별적 표현을 삼갔는가?
	2.2. 정보성	2.2.1. 정보의 형식이 적절한가?
		2.2.2. 정보의 양이 적절한가?
		2.2.3. 정보의 구성이 적절한가?
	2.3. 용이성	2.3.1.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였는가?
		2.3.2.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2.3.3. 시각적 편의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표 17] 민현식 외(2010)의 공공언어 진단 항목

연구단은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이 진단의 효율성에 중점을 둔 ‘시민평가단 진단 항목’을 활용하여 진단을 진행하였다.

항 목	비 고
1.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	
2. 어려운 단어가 없다.	어려운 단어를 사용한 경우 해당 단어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한자, 로마자를 쓴 단어 포함.)
3. 문장이 어색하지 않고 길이가 적당하다.	주술 호응, 문장의 구조, 비문 여부, 복잡성 등을 평가함.
4. 보도 자료의 전체 구성이 잘 되었다.	전개 방식, 요약 및 결론 제시, 내용의 일관성 및 논리성을 평가함. 진한 글씨로 강조하거나 도표, 그림 등을 제시하여 가독성을 높였는가를 평가함.

[표 18] 시민평가단 소통성 진단 항목

위 진단 항목별로 시민 평가단은 미흡 1점부터 우수 5점까지 개별적으로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연구단은 각 점수를 1번 항목 50%, 2번 항목 30%, 3번 항목 20%, 4번 항목 20%의 가중치를 두어 총 60점 만점의 결과로 환산하였다.

시민평가단의 보도 자료 소통성 진단은 일반 시민에 의한 평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지만 진단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객관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5년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진단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7월 진단부터 시민평가단을 각 군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8월 진단부터는 각 군 10명으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총 30명의 시민 평가단의 결과를 취합하여 진단 결과에 객관성을 더했다.

3) 정확성·시민 소통성 진단 합산

40점 만점의 정확성 진단 결과와 60점 만점의 시민 소통성 진단 결과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의 결과로 나타내었다. 이렇게 도출된 결과에서 각 군의 상위 3개 기관은 우수 기관 대상으로, 하위 3개 기관은 미흡 기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우수 기관 대상과 미흡 기관 대상으로 선정된 각 군의 6개 기관은 전문가 평가단이 진단한다.

이는 전문가 평가단의 진단 항목이 정확성 진단이나 시민 소통성 진단보다 많고, 적은 양의 문서를 보다 자세하게 진단하여 최종 결과 도출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4) 전문가 최종 진단

2014년도에 사용한 전문가 평가단의 진단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보도 자료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
 - 내용이 어려울 경우 쉽게 쓰려고 노력하였는가?
 -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이해를 돕는가?
 - 행정이나 정책을 알기 쉽게 드러냈는가?
2.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 제목과 글의 내용이 일치하는가?
 - 글의 핵심 내용이 잘 드러났는가?
 - 내용의 일관성이 지켜졌는가?
 - 내용에 논리성이 있는가?
 - 내용을 과장하지 않았는가?(특히 홍보성 보도 자료 등의 경우)
 - 내용을 은폐하지는 않았는가?(개선 필요 사항 등을 명확하게 밝혔는가?)
3. 문장에 오류가 없으며 어색하지 않고 길이가 적당하다.
 -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문장이 없는가?
 - 주술 호응이 어색한 문장이 없는가?
 - 조사의 사용이 어색하지 않은가?
 - 연결된 문장(접속문·내포문)에 오류가 없는가?
 - 번역 투 문장이 없는가?
 - 불필요한 피동·사동 표현이 없는가?
 -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하였는가?
4. 어려운 용어나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라는 것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쉽고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였는가?(금년, 금번, 명일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 고압적인 표현, 권위적인 표현, 차별적인 표현을 삼갔는가?
 - 어려운 용어(한자, 로마자, 한글 약어, 로마자 약어, 전문어 등)를 쓴 경우, 해당 단어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 약어 등을 제시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다음 ‘예1)’과 같이 사용하여야 하나 ‘예2)’나 ‘예3)’과 같은 경우도 잘 쓴 것으로 인정한다.
 - 예1)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이하 FTA)
 - 예2)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 예3)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5. 보도 자료의 전체 구성이 잘 되었다.

- 내용 이해를 돕기에 알맞은 전개 방식을 사용하였는가?(두괄식, 미괄식 등)
- 부적절한 곳에 위치한 내용은 없는가?
- 결론이나 요약 등을 제시하였는가?
- 도표나 그림 등을 사용하여 이해를 도왔는가?
- 진한 글씨나 밑줄 등을 사용하여 이해를 도왔는가?
- 진한 글씨, 도표, 그림 등이 과도하여 이해를 어렵게 하지 않는가?
- 보도 자료의 필수 기재 사항(문의처, 담당자 등)이 누락되지 않았는가?

[표 19] 전문가 평가단 진단 항목

하지만 2015년도 진단부터는 전문가 평가단 진단 항목을 세분화하여 진행하였다.

평가 범주	평가 항목	평가 기준
소통성	공공성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고압적·권위적 표현을 삼갔는가?
		차별적 표현을 삼갔는가?
	정보성	정보의 형식이 적절한가?
		정보의 양이 적절한가?
		정보의 구성이 적절한가?
	용이성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였는가?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시각적 편의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표 20] 민현식 외(2010)의 공공언어 진단 항목

위 진단 항목을 각 항목당 10점 만점으로 배점하고 총 900점 만점으로 진단하였다. 하지만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7월 진단부터는 각 항목의 배점을 7점 만점으로 바꾸고 상대성 중요도에 의거해서 가중치를 적용한 후 전문가 평가를 진행하였다.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된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⁸⁾

8) 상대적 중요도는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설문지는 박재현(2014)를 토대로 하였다. 설문 대상은 보도 자료 전문가 평가위원 16명이며, 통계 처리는 자문위원 박재현(상명대 국어교육과) 및 사업담당자 이윤미(국립국어원)가 담당하였다.

평가범주	평가항목	평가 기준	상대적 중요도	100점 환산용 가중치(B)
소통성	공공성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4.93%	7.27%
		고압적·권위적 표현을 삼갔는가?	4.84%	7.14%
		차별적 표현을 삼갔는가?	4.60%	6.78%
	정보성	정보의 형식이 적절한가?	4.32%	6.37%
		정보의 양이 적절한가?	2.96%	4.37%
		정보의 구성이 적절한가?	8.72%	12.86%
	용이성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였는가?	11.12%	16.40%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17.93%	26.45%
		시각적 편의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8.38%	12.36%

[표 21] 전문가 평가단 평가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

위 진단 기준을 활용하여 100점 만점으로 진단을 하였고 이를 다시 5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정확성 진단 20점, 시민 소통성 진단 30점, 전문가 진단 50점으로 계산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100점 만점의 결과를 바탕으로 월 1회 회의를 통해 최우수 기관과 최미흡 기관을 선정하였다.

III. 진단 결과

1. 정확성 진단 및 시민 소통성 진단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각각 정확성 진단과 시민 소통성 진단, 그리고 전문가 진단을 진행하였다. 정확성 진단 40점, 시민 소통성 진단 60점으로 배점하여 점수를 합산, 우수 기관 3곳과 미흡 기관 3곳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한 우수·미흡 기관에 대해 정확성 진단 20점, 시민 소통성 진단 30점, 전문가 진단 50점, 총 100점 만점으로 최종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 절에서 제시할 평가의 결과는 I.2. 에서 언급한 1단계 과정의 결과로서, 연구진이 진행한 정확성 진단 결과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통성 진단 결과, 그리고 이 둘을 종합한 점수와 그에 따른 순위이다. 이 결과는 2단계 과정인 전문가 서면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1) 정확성 진단

정확성 진단은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지켰는가, 띄어쓰기를 잘하였는가, 외래어 표기 및 로마자 표기를 지켰는가, 어휘를 의미에 맞게 선택하였는가, 문장을 어법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문장을 우리말답게 표현하였는가의 항목에 대하여 진행하였다. 오류가 있는 항목에 오류 개수를 표시하였다. 오류로 표시된 항목은 보도 자료 내의 음절 수에 비례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은 각 군의 월별 정확성 점수와 월 평균 점수이다.

기관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평균
국가인권위원회	35.58	36.64	37.98	37.51	37.76	37.82	35.98	38.00	37.16
국민권익위원회	36.12	37.80	38.33	38.05	38.78	38.18	39.10	39.48	38.23
국민안전처	35.18	33.05	34.81	36.35	36.31	37.21	36.03	34.85	35.47
기상청	37.50	36.43	38.17	38.76	38.69	38.53	38.29	38.41	38.10

기관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평균
농촌진흥청	37.99	38.42	38.51	39.60	38.18	37.37	38.22	37.79	38.26
문화재청	38.61	38.93	38.99	39.02	39.38	37.95	39.36	38.62	38.86
문화체육관광부	39.57	39.12	39.83	40.00	39.85	39.82	39.44	39.88	39.69
법제처	37.97	37.54	38.50	38.61	37.98	38.05	38.11	39.49	38.28
병무청	37.16	35.24	36.97	36.42	37.47	38.43	38.85	37.71	37.28
산림청	34.76	36.00	38.27	38.18	38.21	37.90	38.64	36.96	37.37
새만금개발청	34.82	34.73	문서 없음	36.56	38.19	34.80	36.57	36.86	36.08
여성가족부	35.36	37.23	38.04	36.19	37.79	37.05	37.24	36.48	36.92
통일부	34.21	36.90	37.87	36.90	33.89	36.82	36.26	36.57	36.18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38.87	36.88	37.00	37.96	38.47	36.77	38.01	38.01	37.75

[표 22] 가군 정확성 평가 점수

기관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평균
경찰청	37.82	36.65	35.83	38.98	37.86	37.39	36.43	35.26	37.03
공정거래위원회	39.37	38.93	39.29	38.32	39.60	38.48	38.27	38.59	38.86
국가보훈처	37.73	33.96	35.81	35.90	35.31	34.80	35.47	36.34	35.67
국방부	38.54	35.53	38.40	38.96	38.27	37.67	38.27	36.98	37.83
국세청	38.10	37.66	38.04	38.15	37.63	32.97	37.36	37.48	37.17
대검찰청	39.19	36.98	37.48	39.02	38.37	38.16	39.53	37.25	38.25
방위사업청	38.58	36.78	37.81	37.76	38.53	35.46	35.53	36.12	37.07
법무부	38.54	37.54	39.23	39.29	37.70	38.44	38.49	36.93	38.27
보건복지부	36.70	34.64	37.36	37.68	37.86	34.31	35.48	36.20	36.28
식품의약품 안전처	38.70	37.02	38.35	39.01	39.23	35.25	34.98	37.52	37.51
인사혁신처	34.95	37.40	37.37	38.39	38.78	36.54	38.60	36.19	37.28
조달청	36.45	32.98	35.09	36.04	37.22	36.36	35.62	36.83	35.82
해양수산부	37.62	38.75	38.98	38.43	39.18	37.91	36.59	36.43	37.99

기관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평균
행정자치부	37.02	37.49	37.46	39.16	38.16	37.00	36.31	37.10	37.46
환경부	38.03	37.74	37.95	37.94	37.63	37.37	35.53	37.32	37.44

[표 23] 나군 정확성 평가 점수

기관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평균
고용노동부	37.14	35.78	37.13	35.79	37.44	37.18	36.80	37.60	36.86
관세청	38.21	37.87	38.60	38.00	38.61	36.24	37.20	38.06	37.85
교육부	37.48	37.23	35.94	37.38	36.86	34.63	37.19	36.86	36.70
국토교통부	37.88	35.57	36.79	36.34	38.54	35.07	35.42	36.52	36.52
금융위원회	34.90	35.69	36.69	36.00	36.05	34.32	34.22	37.30	35.65
기획재정부	39.10	35.87	38.53	37.13	38.93	37.78	35.41	36.91	37.46
농림축산식품부	35.48	35.65	36.02	35.41	35.68	36.63	35.24	35.54	35.71
미래창조과학부	36.78	36.88	34.98	36.13	37.17	37.31	37.62	37.42	36.79
방송통신위원회	36.55	35.72	34.82	37.87	34.65	36.60	37.23	37.25	36.34
산업통상자원부	36.13	37.94	36.43	37.21	36.98	33.87	34.91	34.62	36.01
외교부	34.51	31.62	34.42	34.58	35.17	34.66	34.69	35.51	34.40
원자력 안전위원회	35.95	36.43	36.20	37.34	35.79	36.36	38.25	36.84	36.65
중소기업청	37.39	35.11	36.91	35.56	36.08	36.89	33.10	37.23	36.03
통계청	38.31	37.16	37.77	37.73	38.38	36.44	37.51	36.99	37.54
특허청	38.36	37.74	36.30	36.85	37.44	34.31	36.76	37.38	36.89

[표 24] 다군 정확성 평가 점수

가군의 경우 평균 점수의 최고 점수 39.69점, 최하 점수 35.47점으로 그 차는 4.22점이다. 나군의 경우 평균 점수의 최고 점수 38.86점, 최하 점수 35.67점으로 그 차는 3.19점이다. 다군의 경우 평균 점수의 최고 점수 37.85점, 최하 점수 34.40점으로 그 차는 3.45점이다. 각 군의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의 평균 점수는 3.62점으로 전체 점수 10% 내외의 범위에서 나타났고 각 군의 전체 평균 점수는 가군이 37.55점, 나군이 37.33점, 다군이 36.49점으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다음은 각 군의 평균 점수로 산출한 정확성 점수의 순위이다.

순위	기관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평균
1	문화체육관광부	39.57	39.12	39.83	40.00	39.85	39.82	39.44	39.88	39.69
2	문화재청	38.61	38.93	38.99	39.02	39.38	37.95	39.36	38.62	38.86
3	법제처	37.97	37.54	38.50	38.61	37.98	38.05	38.11	39.49	38.28
4	농촌진흥청	37.99	38.42	38.51	39.60	38.18	37.37	38.22	37.79	38.26
5	국민권익위원회	36.12	37.80	38.33	38.05	38.78	38.18	39.10	39.48	38.23
6	기상청	37.50	36.43	38.17	38.76	38.69	38.53	38.29	38.41	38.10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8.87	36.88	37.00	37.96	38.47	36.77	38.01	38.01	37.75
8	산림청	34.76	36.00	38.27	38.18	38.21	37.90	38.64	36.96	37.37
9	병무청	37.16	35.24	36.97	36.42	37.47	38.43	38.85	37.71	37.28
10	국가인권위원회	35.58	36.64	37.98	37.51	37.76	37.82	35.98	38.00	37.16
11	여성가족부	35.36	37.23	38.04	36.19	37.79	37.05	37.24	36.48	36.92
12	통일부	34.21	36.90	37.87	36.90	33.89	36.82	36.26	36.57	36.18
13	새만금개발청	34.82	34.73	문서 없음	36.56	38.19	34.80	36.57	36.86	36.08
14	국민안전처	35.18	33.05	34.81	36.35	36.31	37.21	36.03	34.85	35.47

[표 25] 가군 정확성 평균 점수 순위

순위	기관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평균
1	공정거래위원회	39.37	38.93	39.29	38.32	39.60	38.48	38.27	38.59	38.86
2	법무부	38.54	37.54	39.23	39.29	37.70	38.44	38.49	36.93	38.27
3	대검찰청	39.19	36.98	37.48	39.02	38.37	38.16	39.53	37.25	38.25
4	해양수산부	37.62	38.75	38.98	38.43	39.18	37.91	36.59	36.43	37.99

순위	기관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평균
5	국방부	38.54	35.53	38.40	38.96	38.27	37.67	38.27	36.98	37.83
6	식품의약품 안전처	38.70	37.02	38.35	39.01	39.23	35.25	34.98	37.52	37.51
7	행정자치부	37.02	37.49	37.46	39.16	38.16	37.00	36.31	37.10	37.46
8	환경부	38.03	37.74	37.95	37.94	37.63	37.37	35.53	37.32	37.44
9	인사혁신처	34.95	37.40	37.37	38.39	38.78	36.54	38.60	36.19	37.28
10	국세청	38.10	37.66	38.04	38.15	37.63	32.97	37.36	37.48	37.17
11	방위사업청	38.58	36.78	37.81	37.76	38.53	35.46	35.53	36.12	37.07
12	경찰청	37.82	36.65	35.83	38.98	37.86	37.39	36.43	35.26	37.03
13	보건복지부	36.70	34.64	37.36	37.68	37.86	34.31	35.48	36.20	36.28
14	조달청	36.45	32.98	35.09	36.04	37.22	36.36	35.62	36.83	35.82
15	국가보훈처	37.73	33.96	35.81	35.90	35.31	34.80	35.47	36.34	35.67

[표 26] 나군 정확성 평균 점수 순위

순위	기관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평균
1	관세청	38.21	37.87	38.60	38.00	38.61	36.24	37.20	38.06	37.85
2	통계청	38.31	37.16	37.77	37.73	38.38	36.44	37.51	36.99	37.54
3	기획재정부	39.10	35.87	38.53	37.13	38.93	37.78	35.41	36.91	37.46
4	특허청	38.36	37.74	36.30	36.85	37.44	34.31	36.76	37.38	36.89
5	고용노동부	37.14	35.78	37.13	35.79	37.44	37.18	36.80	37.60	36.86
6	미래창조 과학부	36.78	36.88	34.98	36.13	37.17	37.31	37.62	37.42	36.79
7	교육부	37.48	37.23	35.94	37.38	36.86	34.63	37.19	36.86	36.70
8	원자력 안전위원회	35.95	36.43	36.20	37.34	35.79	36.36	38.25	36.84	36.65
9	국토교통부	37.88	35.57	36.79	36.34	38.54	35.07	35.42	36.52	36.52
10	방송통신 위원회	36.55	35.72	34.82	37.87	34.65	36.60	37.23	37.25	36.34

순위	기관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평균
11	중소기업청	37.39	35.11	36.91	35.56	36.08	36.89	33.10	37.23	36.03
12	산업통상 자원부	36.13	37.94	36.43	37.21	36.98	33.87	34.91	34.62	36.01
13	농림축산 식품부	35.48	35.65	36.02	35.41	35.68	36.63	35.24	35.54	35.71
14	금융위원회	34.90	35.69	36.69	36.00	36.05	34.32	34.22	37.30	35.65
15	외교부	34.51	31.62	34.42	34.58	35.17	34.66	34.69	35.51	34.40

[표 27] 다군 정확성 평균 점수 순위

종합 결과,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가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1위, 국민안전처가 14위를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평가가 진행된 모든 기간에 39점 이상을 받았고 7월에는 만점을 받아 전체적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반면 국민안전처의 경우 대부분 낮은 점수를 받았다. 나군은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1위, 국가보훈처가 15위를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달에 걸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국가보훈처의 경우 진단을 시작한 4월에 비교적 준수한 점수를 받았지만 이후 대부분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다군은 관세청이 1위, 외교부가 15위를 하였는데 관세청은 진단 기간 동안 정확성 진단에서 대부분 좋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고용노동부는 계속하여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2) 시민 소통성 진단

시민 소통성 진단은 총 네 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 둘째 어려운 단어가 없다. 셋째, 문장이 어색하지 않고 길이가 적당하다. 넷째, 보도 자료 전체의 구성이 잘 되었다. 우선 이상 네 개의 항목을 각각 5점 만점으로 진단하였다. 이후에 이를 각각 50%, 30%, 20%, 20%의 가중치를 두어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이렇게 100점 만점으로 진단한 점수를 다시 6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시민 소통성 진단 점수를 산출하였다. 시민평가단은 각 군별로 4명씩 총 12명으로 진단을 시작하였다. 이후 진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7월 진단(6월 생산 문서 진단)에는 각 군별로 2명을 추가하여 총 18명으로 진단을 진행하였으며 8월 진단(7월 생산 문서 진단) 이후로는 시민 평가단을 군별 10명으로 늘려 진단하였다. 다음은 각 군의 월별 시민 소통성 진단 점

수와 월 평균 점수이다.

기관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평균
국가인권위원회	38.25	36.31	32.69	36.58	41.56	38.19	40.41	39.09	37.89
국민권익위원회	39.06	41.94	38.56	40.17	38.69	43.34	45.50	45.13	41.55
국민안전처	42.69	40.69	38.31	42.33	43.94	47.44	39.56	41.16	42.02
기상청	44.88	44.13	44.69	42.46	47.19	48.44	48.19	42.34	45.29
농촌진흥청	42.63	37.38	40.25	37.04	45.75	43.09	44.13	39.63	41.24
문화재청	41.06	47.69	41.88	40.79	42.19	49.59	43.56	45.34	44.01
문화체육관광부	44.94	44.38	43.06	41.88	45.13	44.09	46.50	40.56	43.82
법제처	39.13	44.56	43.25	40.54	40.88	41.38	43.28	39.50	41.57
병무청	41.25	43.13	38.88	42.50	44.44	42.31	44.54	41.78	42.35
산림청	41.06	44.06	45.13	42.79	45.63	42.94	43.66	47.13	44.05
새만금개발청	35.50	38.08	0.00	35.38	41.56	42.75	39.28	40.81	34.17
여성가족부	39.75	42.63	38.81	40.38	44.88	41.75	41.44	45.38	41.88
통일부	39.75	42.50	38.81	41.50	41.16	41.78	44.34	42.56	41.5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1.31	38.25	35.13	43.33	43.72	42.41	41.19	40.28	40.70

[표 28] 가군 시민 소통성 평균 점수

기관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평균
경찰청	43.81	43.50	45.69	49.88	53.59	53.34	54.78	50.34	49.37
공정거래위원회	53.50	51.44	52.75	54.92	53.25	51.78	55.78	50.47	52.99
국가보훈처	47.31	41.31	45.13	47.71	50.79	53.38	52.28	52.34	48.78
국방부	47.06	48.94	44.63	52.25	54.91	51.84	52.38	52.47	50.56
국세청	48.38	49.25	52.25	49.71	52.28	49.13	52.50	51.03	50.57

기관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평균
대검찰청	45.19	50.75	50.50	52.33	54.50	52.41	50.58	52.50	51.10
방위사업청	45.38	47.06	47.56	47.00	52.00	50.38	50.72	49.19	48.66
법무부	51.63	48.13	49.56	52.88	51.03	49.41	49.53	50.28	50.31
보건복지부	49.94	46.19	46.44	46.88	50.31	49.75	54.03	50.44	49.25
식품의약품안전처	48.88	47.13	47.13	49.75	50.03	53.69	55.34	51.56	50.44
인사혁신처	44.63	44.81	50.44	49.21	51.81	53.13	51.69	52.16	49.74
조달청	47.94	47.50	49.50	46.71	51.81	49.69	51.28	50.88	49.41
해양수산부	46.44	46.69	46.50	49.04	51.53	50.56	54.09	50.31	49.40
행정자치부	44.25	45.06	48.94	46.83	50.78	50.59	52.13	48.94	48.44
환경부	49.75	46.25	46.69	50.54	51.16	51.88	53.97	50.72	50.12

[표 29] 나군 시민 소통성 평균 점수

기관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평균
고용노동부	45.81	48.88	42.63	48.42	51.78	53.19	51.91	48.22	48.86
관세청	49.19	45.88	45.06	50.04	52.47	53.31	50.47	51.19	49.70
교육부	49.69	48.06	43.69	51.63	51.44	51.31	49.72	50.63	49.52
국토교통부	48.50	44.69	42.00	50.29	51.75	48.53	50.56	51.22	48.44
금융위원회	37.56	35.31	38.81	41.42	45.50	47.91	45.00	45.63	42.14
기획재정부	39.56	38.75	40.88	48.58	50.06	47.88	46.34	46.91	44.87
농림축산식품부	47.88	44.13	46.38	49.83	53.63	49.97	47.88	47.81	48.44
미래창조과학부	43.63	40.81	41.19	49.17	51.16	48.81	48.81	48.72	46.54
산업통상자원부	43.00	48.44	41.44	49.38	48.25	49.47	50.56	50.66	47.65

기관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평균
방송통신위원회	46.25	52.13	45.81	48.54	52.84	46.84	48.72	47.53	48.58
외교부	52.44	49.31	44.19	48.83	52.09	46.03	46.59	47.44	48.37
원자력안전위원회	46.94	44.00	42.88	51.04	46.03	46.41	46.81	48.44	46.57
중소기업청	46.25	43.31	46.38	49.42	51.13	50.56	48.50	47.91	47.93
통계청	49.94	44.31	44.69	48.71	53.78	50.66	48.97	51.41	49.06
특허청	48.06	44.94	48.44	49.58	48.06	50.13	49.53	49.44	48.52

[표30] 다군 시민 소통성 평균 점수

가군의 경우 평균 점수의 최고 점수는 45.29점, 최하 점수는 34.17점으로 그 차는 11.12점이다. 나군의 경우 평균 점수의 최고 점수 52.99점, 최하 점수 48.44점으로 그 차는 4.55점이다. 다군의 경우 평균 점수의 최고 점수 49.70점, 최하 점수 42.14점으로 그 차는 7.56점이다. 각 군의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의 평균 점수는 7.74점으로 나타났다. 위 점수는 60점 만점임에도 불구하고 가군은 평균 41.58점, 나군은 평균 49.94점, 다군은 평균 47.68점으로 비교적 낮은 점수에 분포하고 있다. 정확성 진단에서는 비교적 변별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민 소통성 진단에서는 세 군이 평균 46.4점으로 만점 60점에 못 미치며 최고점과 최하점의 점수 차가 커 변별력을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

다음은 각 군의 평균 점수로 산출한 시민 소통성 점수의 순위이다.

순위	기관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평균
1	기상청	44.88	44.13	44.69	42.46	47.19	48.44	48.19	42.34	45.29
2	산림청	41.06	44.06	45.13	42.79	45.63	42.94	43.66	47.13	44.05
3	문화재청	41.06	47.69	41.88	40.79	42.19	49.59	43.56	45.34	44.01
4	문화체육관광부	44.94	44.38	43.06	41.88	45.13	44.09	46.50	40.56	43.82
5	병무청	41.25	43.13	38.88	42.50	44.44	42.31	44.54	41.78	42.35
6	국민안전처	42.69	40.69	38.31	42.33	43.94	47.44	39.56	41.16	42.02
7	여성가족부	39.75	42.63	38.81	40.38	44.88	41.75	41.44	45.38	41.88

순위	기관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평균
8	법제처	39.13	44.56	43.25	40.54	40.88	41.38	43.28	39.50	41.57
9	국민권익위원회	39.06	41.94	38.56	40.17	38.69	43.34	45.50	45.13	41.55
10	통일부	39.75	42.50	38.81	41.50	41.16	41.78	44.34	42.56	41.55
11	농촌진흥청	42.63	37.38	40.25	37.04	45.75	43.09	44.13	39.63	41.24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1.31	38.25	35.13	43.33	43.72	42.41	41.19	40.28	40.70
13	국가인권위원회	38.25	36.31	32.69	36.58	41.56	38.19	40.41	39.09	37.89
14	새만금개발청	35.50	38.08	0.00	35.38	41.56	42.75	39.28	40.81	34.17

[표 31] 가군 시민 소통성 평균 점수 순위

순위	기관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평균
1	공정거래위원회	53.50	51.44	52.75	54.92	53.25	51.78	55.78	50.47	52.99
2	대검찰청	45.19	50.75	50.50	52.33	54.50	52.41	50.58	52.50	51.10
3	국세청	48.38	49.25	52.25	49.71	52.28	49.13	52.50	51.03	50.57
4	국방부	47.06	48.94	44.63	52.25	54.91	51.84	52.38	52.47	50.56
5	식품의약품안전처	48.88	47.13	47.13	49.75	50.03	53.69	55.34	51.56	50.44
6	법무부	51.63	48.13	49.56	52.88	51.03	49.41	49.53	50.28	50.31
7	환경부	49.75	46.25	46.69	50.54	51.16	51.88	53.97	50.72	50.12
8	인사혁신처	44.63	44.81	50.44	49.21	51.81	53.13	51.69	52.16	49.74
9	조달청	47.94	47.50	49.50	46.71	51.81	49.69	51.28	50.88	49.41
10	해양수산부	46.44	46.69	46.50	49.04	51.53	50.56	54.09	50.31	49.40
11	경찰청	43.81	43.50	45.69	49.88	53.59	53.34	54.78	50.34	49.37
12	보건복지부	49.94	46.19	46.44	46.88	50.31	49.75	54.03	50.44	49.25
13	국가보훈처	47.31	41.31	45.13	47.71	50.79	53.38	52.28	52.34	48.78
14	방위사업청	45.38	47.06	47.56	47.00	52.00	50.38	50.72	49.19	48.66
15	행정자치부	44.25	45.06	48.94	46.83	50.78	50.59	52.13	48.94	48.44

[표 32] 나군 시민 소통성 평균 점수 순위

순위	기관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평균
1	관세청	49.19	45.88	45.06	50.04	52.47	53.31	50.47	51.19	49.70
2	교육부	49.69	48.06	43.69	51.63	51.44	51.31	49.72	50.63	49.52
3	통계청	49.94	44.31	44.69	48.71	53.78	50.66	48.97	51.41	49.06
4	고용노동부	45.81	48.88	42.63	48.42	51.78	53.19	51.91	48.22	48.86
5	방송통신위원회	46.25	52.13	45.81	48.54	52.84	46.84	48.72	47.53	48.58
6	특허청	48.06	44.94	48.44	49.58	48.06	50.13	49.53	49.44	48.52
7	국토교통부	48.50	44.69	42.00	50.29	51.75	48.53	50.56	51.22	48.44
8	농림축산식품부	47.88	44.13	46.38	49.83	53.63	49.97	47.88	47.81	48.44
9	외교부	52.44	49.31	44.19	48.83	52.09	46.03	46.59	47.44	48.37
10	중소기업청	46.25	43.31	46.38	49.42	51.13	50.56	48.50	47.91	47.93
11	산업통상자원부	43.00	48.44	41.44	49.38	48.25	49.47	50.56	50.66	47.65
12	원자력안전위원회	46.94	44.00	42.88	51.04	46.03	46.41	46.81	48.44	46.57
13	미래창조과학부	43.63	40.81	41.19	49.17	51.16	48.81	48.81	48.72	46.54
14	기획재정부	39.56	38.75	40.88	48.58	50.06	47.88	46.34	46.91	44.87
15	금융위원회	37.56	35.31	38.81	41.42	45.50	47.91	45.00	45.63	42.14

[표 33] 다군 시민 소통성 평균 점수 순위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순위를 살펴보면, 가군은 기상청이 1위, 새만금개발청이 14위를 하였다. 기상청은 평균 45.29점으로 진단이 진행된 모든 달에 걸쳐 비교적 좋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반면 새만금개발청의 경우 전체적으로 점수가 좋지 않고 7월에는 35점대를 기록하면서 14위를 차지하였다. 나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1위, 행정자치부가 15위를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달에 50점을 넘어서는 좋은 진단을 받았고 행정자치부의 경우 대체적으로 비교적 낮은 진단 점수를 받았다. 다군은 관세청이 1위, 금융위원회가 15위를 하였다. 관세청은 대체로 좋은 진단을 받았으며 기획재정부는 정보성 등으로 시민 소통성 점수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였다.

3) 정확성·시민 소통성 진단 합산

정확성 진단 40점, 시민 소통성 진단 60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진단을 진행하였다. 이후 정확성 진단과 시민 소통성 진단에서 산출한 상위 3기관, 하위 3기관을 각각 우수 부처, 미흡 부처로 선정하여 전문가 평가단의 최종 진단을 받았다. 다음은 각 군의 월별 1차 진단 점수(정확성 진단 점수와 시민 소통성 진단 점수 합산)와 그에 따른 평균 점수이다.

기관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평균
국가인권위원회	73.83	72.95	70.66	74.09	79.33	76.01	76.39	77.09	75.04
국민권익위원회	75.18	79.74	76.90	78.22	77.47	81.52	84.60	84.60	79.78
국민안전처	77.87	73.74	73.12	78.68	80.25	84.65	75.60	76.01	77.49
기상청	82.38	80.56	82.86	81.22	85.88	86.97	86.48	80.76	83.39
농촌진흥청	80.62	75.79	78.76	76.64	83.93	80.47	82.34	77.42	79.50
문화재청	79.68	86.62	80.87	79.81	81.57	87.55	82.93	83.97	82.87
문화체육관광부	84.51	83.49	82.89	81.88	84.98	83.91	85.94	80.44	83.50
법제처	77.09	82.10	81.75	79.16	78.86	79.43	81.39	78.99	79.85
병무청	78.41	78.37	75.85	78.92	81.91	80.75	83.39	79.49	79.64
산림청	75.83	80.06	83.40	80.97	83.84	80.84	82.30	84.08	81.41
새만금개발청	70.32	72.82	문서 없음	71.94	79.76	77.55	75.86	77.67	75.13
여성가족부	75.11	79.85	76.85	76.56	82.67	78.80	78.68	81.85	78.80
통일부	73.96	79.40	76.69	78.40	75.05	78.60	80.61	79.14	77.73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80.19	75.13	72.13	81.30	82.19	79.18	79.20	78.30	78.45

[표 34] 가군 기관별 평균 점수

기관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평균
경찰청	81.64	80.15	81.52	88.85	91.45	90.73	91.21	85.61	86.39
공정거래위원회	92.87	90.36	92.04	93.24	92.85	90.27	94.05	89.06	91.84
국가보훈처	85.04	75.27	80.94	83.60	86.11	88.17	87.75	88.68	84.45

기관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평균
국방부	85.60	84.47	83.02	91.21	93.17	89.51	90.65	89.44	88.38
국세청	86.48	86.91	90.29	87.86	89.91	82.09	89.86	88.51	87.74
대검찰청	84.38	87.73	87.98	91.35	92.87	90.57	90.12	89.75	89.34
방위사업청	83.95	83.84	85.37	84.76	90.53	85.83	86.25	85.31	85.73
법무부	90.16	85.66	88.79	92.16	88.73	87.85	88.02	87.21	88.57
보건복지부	86.64	80.82	83.80	84.55	88.17	84.06	89.51	86.64	85.52
식품의약품 안전처	87.57	84.14	85.48	88.76	89.27	88.94	90.32	89.08	87.94
인사혁신처	79.58	82.21	87.81	87.59	90.59	89.67	90.29	88.35	87.01
조달청	84.39	80.48	84.59	82.75	89.04	86.05	86.90	87.70	85.24
해양수산부	84.06	85.44	85.48	87.48	90.71	88.47	90.68	86.74	87.38
행정자치부	81.27	82.55	86.40	85.99	88.95	87.59	88.44	86.03	85.90
환경부	87.79	83.99	84.65	88.49	88.78	89.24	89.50	88.04	87.56

[표 35] 나군 기관별 평균 점수

기관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평균
고용노동부	82.96	84.66	79.76	84.21	89.22	90.37	88.71	85.81	85.71
관세청	87.39	83.75	83.67	88.05	91.08	89.55	87.67	89.25	87.55
교육부	87.16	85.30	79.63	89.00	88.30	85.94	86.91	87.48	86.21
국토교통부	86.38	80.25	78.79	86.63	90.29	83.60	85.98	87.74	84.96
금융위원회	72.47	71.00	75.50	77.42	81.55	82.22	79.22	82.92	77.79
기획재정부	78.66	74.62	79.41	85.71	88.99	85.65	81.75	83.81	82.33
농림축산식품부	83.36	79.77	82.39	85.24	89.30	86.60	83.12	83.36	84.14
미래창조과학부	80.40	77.69	76.16	85.30	88.33	86.13	86.44	86.14	83.32

기관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평균
산업통상자원부	79.55	84.16	76.26	87.25	82.90	86.07	87.79	87.90	83.99
방송통신위원회	82.38	90.07	82.24	85.75	89.82	80.72	83.63	82.15	84.60
외교부	86.94	80.93	78.61	83.41	87.26	80.69	81.28	82.95	82.76
원자력 안전위원회	82.89	80.43	79.08	88.38	81.82	82.76	85.06	85.28	83.21
중소기업청	83.64	78.43	83.28	84.98	87.21	87.45	81.60	85.14	83.97
통계청	88.25	81.47	82.45	86.44	92.16	87.10	86.48	88.40	86.59
특허청	86.43	82.68	84.74	86.43	85.50	84.44	86.29	86.82	85.42

[표 36] 다군 기관별 평균 점수

가군의 경우 평균 점수의 최고 점수 83.50점, 최하 점수 75.04점으로 그 차는 8.46점이다. 나군의 경우 평균 점수의 최고 점수 91.84점, 최하 점수 84.45점으로 그 차는 7.39점이다. 다군의 경우 평균 점수의 최고 점수 87.55점, 최하 점수 77.79점으로 그 차는 9.76점이다. 각 군의 최고점과 최하점 차의 평균은 8.53점이다. 다음은 각 군의 평균 점수로 산출한 순위이다.

순위	기관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평균
1	문화체육 관광부	84.51	83.49	82.89	81.88	84.98	83.91	85.94	80.44	83.50
2	기상청	82.38	80.56	82.86	81.22	85.88	86.97	86.48	80.76	83.39
3	문화재청	79.68	86.62	80.87	79.81	81.57	87.55	82.93	83.97	82.87
4	산림청	75.83	80.06	83.40	80.97	83.84	80.84	82.30	84.08	81.41
5	법제처	77.09	82.10	81.75	79.16	78.86	79.43	81.39	78.99	79.85
6	국민권익 위원회	75.18	79.74	76.90	78.22	77.47	81.52	84.60	84.60	79.78
7	병무청	78.41	78.37	75.85	78.92	81.91	80.75	83.39	79.49	79.64
8	농촌 진흥청	80.62	75.79	78.76	76.64	83.93	80.47	82.34	77.42	79.50
9	여성 가족부	75.11	79.85	76.85	76.56	82.67	78.80	78.68	81.85	78.80
10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80.19	75.13	72.13	81.30	82.19	79.18	79.20	78.30	78.45

순위	기관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평균
11	통일부	73.96	79.40	76.69	78.40	75.05	78.60	80.61	79.14	77.73
12	국민안전처	77.87	73.74	73.12	78.68	80.25	84.65	75.60	76.01	77.49
13	국가인권위원회	73.83	72.95	70.66	74.09	79.33	76.01	76.39	77.09	75.04
14	새만금개발청	70.32	72.82	문서없음	71.94	79.76	77.55	75.86	77.67	75.13

[표 37] 가군 기관별 평균 점수 순위

순위	기관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평균
1	공정거래위원회	92.87	90.36	92.04	93.24	92.85	90.27	94.05	89.06	91.84
2	대검찰청	84.38	87.73	87.98	91.35	92.87	90.57	90.12	89.75	89.34
3	법무부	90.16	85.66	88.79	92.16	88.73	87.85	88.02	87.21	88.57
4	국방부	85.60	84.47	83.02	91.21	93.17	89.51	90.65	89.44	88.38
5	식품의약품안전처	87.57	84.14	85.48	88.76	89.27	88.94	90.32	89.08	87.94
6	국세청	86.48	86.91	90.29	87.86	89.91	82.09	89.86	88.51	87.74
7	환경부	87.79	83.99	84.65	88.49	88.78	89.24	89.50	88.04	87.56
8	해양수산부	84.06	85.44	85.48	87.48	90.71	88.47	90.68	86.74	87.38
9	인사혁신처	79.58	82.21	87.81	87.59	90.59	89.67	90.29	88.35	87.01
10	경찰청	81.64	80.15	81.52	88.85	91.45	90.73	91.21	85.61	86.39
11	행정자치부	81.27	82.55	86.40	85.99	88.95	87.59	88.44	86.03	85.90
12	방위사업청	83.95	83.84	85.37	84.76	90.53	85.83	86.25	85.31	85.73
13	보건복지부	86.64	80.82	83.80	84.55	88.17	84.06	89.51	86.64	85.52
14	조달청	84.39	80.48	84.59	82.75	89.04	86.05	86.90	87.70	85.24
15	국가보훈처	85.04	75.27	80.94	83.60	86.11	88.17	87.75	88.68	84.45

[표 38] 나군 기관별 평균 점수 순위

순위	기관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평균
1	관세청	87.39	83.75	83.67	88.05	91.08	89.55	87.67	89.25	87.55

순위	기관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평균
2	통계청	88.25	81.47	82.45	86.44	92.16	87.10	86.48	88.40	86.59
3	교육부	87.16	85.30	79.63	89.00	88.30	85.94	86.91	87.48	86.21
4	고용노동부	82.96	84.66	79.76	84.21	89.22	90.37	88.71	85.81	85.71
5	특허청	86.43	82.68	84.74	86.43	85.50	84.44	86.29	86.82	85.42
6	국토교통부	86.38	80.25	78.79	86.63	90.29	83.60	85.98	87.74	84.96
7	방송통신위원회	82.38	90.07	82.24	85.75	89.82	80.72	83.63	82.15	84.60
8	농림축산식품부	83.36	79.77	82.39	85.24	89.30	86.60	83.12	83.36	84.14
9	산업통상자원부	79.55	84.16	76.26	87.25	82.90	86.07	87.79	87.90	83.99
10	중소기업청	83.64	78.43	83.28	84.98	87.21	87.45	81.60	85.14	83.97
11	미래창조과학부	80.40	77.69	76.16	85.30	88.33	86.13	86.44	86.14	83.32
12	원자력안전위원회	82.89	80.43	79.08	88.38	81.82	82.76	85.06	85.28	83.21
13	외교부	86.94	80.93	78.61	83.41	87.26	80.69	81.28	82.95	82.76
14	기획재정부	78.66	74.62	79.41	85.71	88.99	85.65	81.75	83.81	82.33
15	금융위원회	72.47	71.00	75.50	77.42	81.55	82.22	79.22	82.92	77.79

[표 39] 다군 기관별 평균 점수 순위

가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1위, 새만금개발청이 14위를 하였다. 나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1위, 국가보훈처가 15위를 하였다. 다군은 관세청이 1위, 금융위원회가 15위를 하였다. 정확성 점수와 시민 소통성 점수를 합산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 시민 소통성 진단 순위와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이는 시민 소통성 진단 점수가 60점으로 정확성 진단에 비해 비중이 높기도 하고, 시민 소통성 진단에서 정확성 진단에서보다 더 큰 점수 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2. 전문가 최종 진단

정확성 진단 40점, 시민 소통성 진단 60점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3개 기관을 우수 부처, 하위 3개 기관을 미흡 부처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부처를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이 서면으로 진단을 진행하였다. 이 절에서 제시할 평가의 결과는 I.2. 에서 언급한 2단계 과정의 결과로서 이 결과를 토대로 3단계 과정인 전문가 평가회의가 개최되며 이 회의를 통해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

2단계인 전문가 평가단의 서면 평가 진단 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평가 범주	평가 항목	평가 기준
소통성	공공성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고압적·권위적 표현을 삼갔는가?
		차별적 표현을 삼갔는가?
	정보성	정보의 형식이 적절한가?
		정보의 양이 적절한가?
		정보의 구성이 적절한가?
	용이성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였는가?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시각적 편의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표 40] 전문가 서면 평가 진단 항목

위 표와 같이 총 9개의 항목을 각 10점 만점으로 진단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활용하였다. 이후 7월 진단부터는 각 항목을 10점 만점에서 7점 만점으로 바꾸고 항목별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100점 환산용 가중치를 두어 활용하였다.

평가 범주	평가 항목	평가 기준	상대적 중요도	100점 환산용 가중치(B)
소통성	공공성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4.93%	7.27%
		고압적·권위적 표현을 삼갔는가?	4.84%	7.14%
		차별적 표현을 삼갔는가?	4.60%	6.78%

정보성	정보의 형식이 적절한가?	4.32%	6.37%
	정보의 양이 적절한가?	2.96%	4.37%
	정보의 구성이 적절한가?	8.72%	12.86%
용이성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였는가?	11.12%	16.40%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17.93%	26.45%
	시각적 편의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8.38%	12.36%

[표 41] 전문가 서면 평가 항목별 가중치

위 평가 항목 및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 대상이 되었던 상위 3개 기관과 하위 3개 기관을 최종적으로 진단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 최종 진단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우수1’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을 ‘우수3’으로 표시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위 3개 기관에 대해서도 순위를 정했으며 이 경우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을 ‘미흡3’,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을 ‘미흡1’로 표시했다.

모듬	기관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가군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우수2	우수2
	국민안전처						우수3		
	기상청	우수2		우수3	우수1	우수1	우수1	우수3	
	농촌진흥청	우수3				우수2			
	문화재청		우수3				우수2		우수3
	문화체육관광부	우수1	우수2	우수1	우수2	우수3		우수1	
	법제처		우수1						
	병무청								
	산림청			우수2					우수1
	새만금개발청								
	여성가족부								
	통일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우수3				
나군	경찰청					우수1	우수2	우수2	

모듬	기관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공정거래위원회	우수1	우수1	우수1	우수2	우수3	우수1	우수1	우수1
	국가보훈처								
	국방부				우수3	우수2			우수3
	국세청		우수3	우수2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법무부	우수2	우수2	우수3	우수1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2
	인사혁신처						우수3		
	조달청								
	해양수산부								우수3
	행정자치부								
	환경부	우수3							
다군	고용노동부		우수3				우수1	우수3	
	관세청	우수1		우수3	우수2	우수1	우수3	우수1	우수1
	교육부	우수2	우수2		우수1				
	국토교통부					우수2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우수1						
	방송통신위원회							우수2	우수2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수3			
	중소기업청			우수2			우수2		
	통계청	우수3					우수3		우수3
특허청			우수1						

[표 42] 월별 우수 선정 기관

모듬	기관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가군	국가인권위원회	미흡3	미흡3	미흡3	미흡2	미흡1	미흡3	미흡3	미흡3
	국민권익위원회					미흡2			
	국민안전처		미흡2	미흡2				미흡1	미흡1
	기상청								
	농촌진흥청								미흡2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병무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미흡1	미흡1		미흡1		미흡1	미흡2	
	여성가족부				미흡3				
	통일부	미흡2				미흡3	미흡2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미흡1						
나군	경찰청	미흡2	미흡3	미흡3					미흡3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미흡1	미흡1	미흡2	미흡2		미흡2	
	국방부			미흡2					
	국세청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미흡3	미흡1	미흡1
	법무부								
	보건복지부				미흡1	미흡1	미흡2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미흡1							
	조달청		미흡2		미흡3	미흡3	미흡1	미흡3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미흡3							미흡2
환경부									
다군	고용노동부				미흡3				
	관세청								

모듬	기관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교육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미흡2	미흡1	미흡2	미흡1	미흡3	미흡1	미흡1	미흡1
	기획재정부	미흡3	미흡2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미흡3	미흡3					
	산업통상자원부						미흡3		미흡2
	방송통신위원회	미흡1		미흡1		미흡1			
	외교부				미흡2		미흡2	미흡3	미흡3
	원자력안전위원회					미흡2			
	중소기업청							미흡2	
	통계청								
	특허청								

[표 43] 월별 미흡 선정 기관

위 표를 바탕으로 기관별 우수 기관 선정 횟수와 미흡기관 선정 횟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모듬	기관	우수 선정 횟수	미흡 선정 횟수
가군	국가인권위원회	0	8
	국민권익위원회	2	1
	국민안전처	1	4
	기상청	6	0
	농촌진흥청	2	1
	문화재청	3	0
	문화체육관광부	6	0
	법제처	1	0
	병무청	0	0
	산림청	2	0
	새만금개발청	0	5
	여성가족부	0	1

모듬	기관	우수 선정 횟수	미흡 선정 횟수
	통일부	0	3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1	1
나군	경찰청	0	0
	공정거래위원회	3	4
	국가보훈처	8	0
	국방부	0	5
	국세청	3	1
	대검찰청	2	0
	방위사업청	0	0
	법무부	0	3
	보건복지부	4	0
	식품의약품안전처	0	3
	인사혁신처	1	0
	조달청	1	1
	해양수산부	0	5
	행정자치부	1	0
환경부	0	2	
다군	고용노동부	1	0
	관세청	3	1
	교육부	7	0
	국토교통부	3	0
	금융위원회	1	0
	기획재정부	0	8
	농림축산식품부	0	2
	미래창조과학부	0	0
	산업통상자원부	0	2
	방송통신위원회	1	2
	외교부	2	3
	원자력안전위원회	0	4
	중소기업청	1	1
통계청	2	1	

모듬	기관	우수 선정 횟수	미흡 선정 횟수
	특허청	3	0

[표 44] 모듬별 우수·미흡 기관 선정 횟수

종합 결과를 보면, 지속적으로 양질의 보도 자료를 생산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기관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기관이 공문서 작성 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때도 있고 미흡 기관으로 선정될 때도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문서의 내용, 문서의 생산 부서 등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공문서 작성법 교육을 통한 개선 현상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축적된 자료를 공문서 작성법 교육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Ⅳ. 2015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의 요약

1. 진단 대상 보도 자료

2015년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은 중앙행정기관 44곳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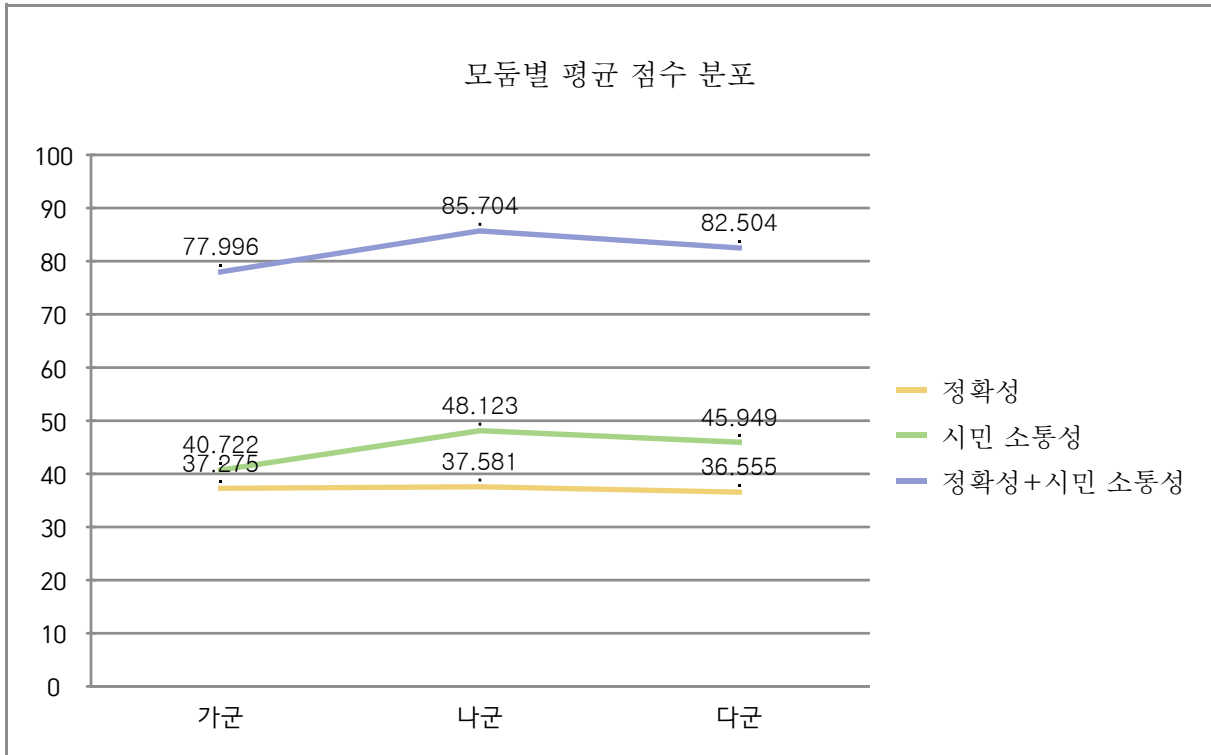
중앙행정기관의 소통성 진단은 현재 여덟 달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월별로 기관당 4건의 보도 자료를 진단하였다. 보도 자료는 기관에서 제출한 제출 자료 2건, 임의로 선별한 선별자료 2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만약 해당 월의 보도 자료가 4건이 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부족한 수로 진단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44개 기관의 총 1,383건의 문서를 진단하였다. 해당 문서에 대한 음절 수의 총 합은 1,878,828음절이었다. 기관당 평균 31.43건을 진단하였으며 문서 한 건당 평균 음절 수는 1,339음절이었다. 문서당 음절 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대검찰청으로 문서당 평균 2,498음절이었고 문서당 음절 수가 가장 적은 기관은 기상청으로 문서당 평균 832음절이었다.

모듬	기관명	문서 개수	전체 음절 수	문서당 음절 수
가군	국가인권위원회	32	40,061	1251
	국민권익위원회	32	41,481	1296
	국민안전처	32	38,595	1206
	기상청	32	26,642	832
	농촌진흥청	32	35,866	1120
	문화재청	32	39,835	1244
	문화체육관광부	32	45,591	1424
	법제처	32	43,491	1359
	병무청	31	26,804	864
	산림청	32	35,198	1099
	새만금개발청	24	29,143	1214
	여성가족부	32	47,473	1483
	통일부	32	33,731	105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2	34,425	1075
나군	경찰청	32	49,391	1543
	공정거래위원회	32	72,605	2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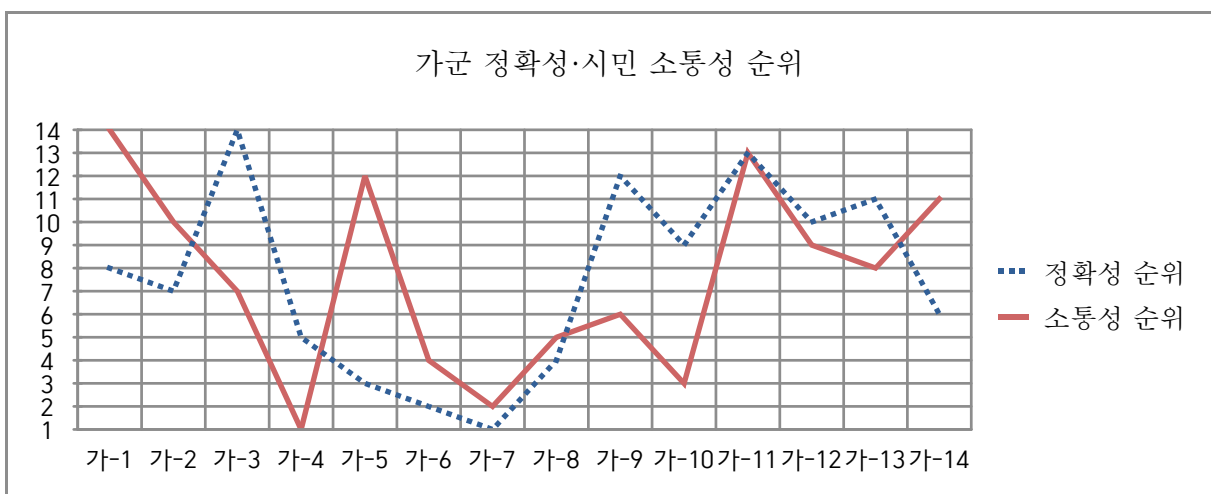
모듬	기관명	문서 개수	전체 음절 수	문서당 음절 수
	국가보훈처	31	35,216	1136
	국방부	32	37,459	1170
	국세청	29	57,825	1993
	대검찰청	20	49,961	2498
	방위사업청	32	33,748	1054
	법무부	32	63,389	1980
	보건복지부	32	61,658	1926
	식품의약품안전처	32	43,220	1350
	인사혁신처	32	40,825	1275
	조달청	32	33,132	1035
	해양수산부	32	36,375	1136
	행정자치부	32	54,744	1710
	환경부	32	43,064	1345
다군	고용노동부	32	58,887	1840
	관세청	32	30,488	952
	교육부	32	46,582	1455
	국토교통부	32	53,012	1656
	금융위원회	32	53,568	1674
	기획재정부	32	38,350	1104
	농림축산식품부	32	41,282	1290
	미래창조과학부	32	53,971	1686
	방송통신위원회	32	33,747	1054
	산업통상자원부	32	44,625	1394
	외교부	32	42,341	1323
	원자력안전위원회	32	28,129	879
	중소기업청	32	47,132	1472
	통계청	32	38,621	1206
	특허청	32	37,145	1160
평균		31.43	42,700.64	1,33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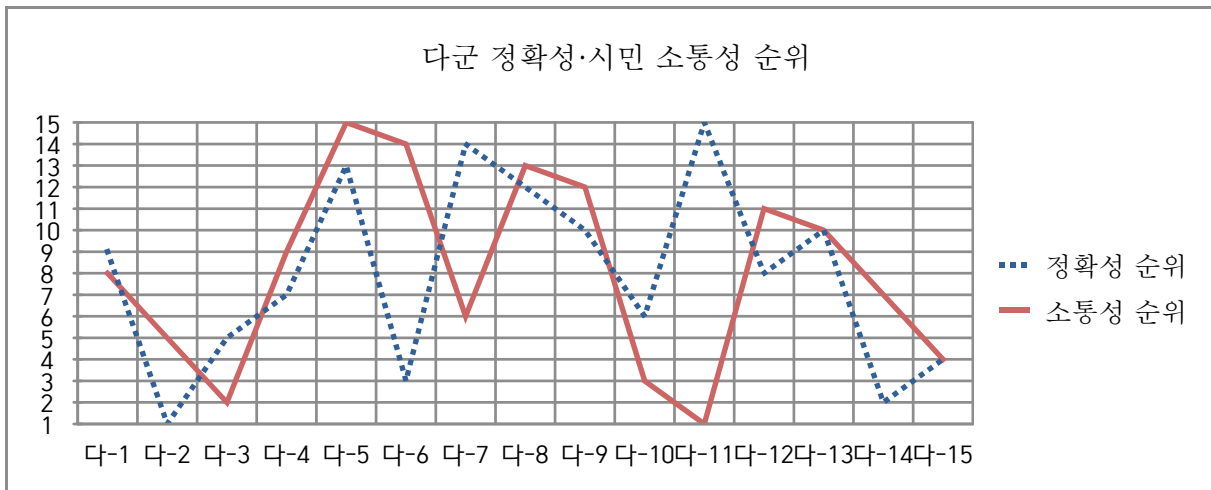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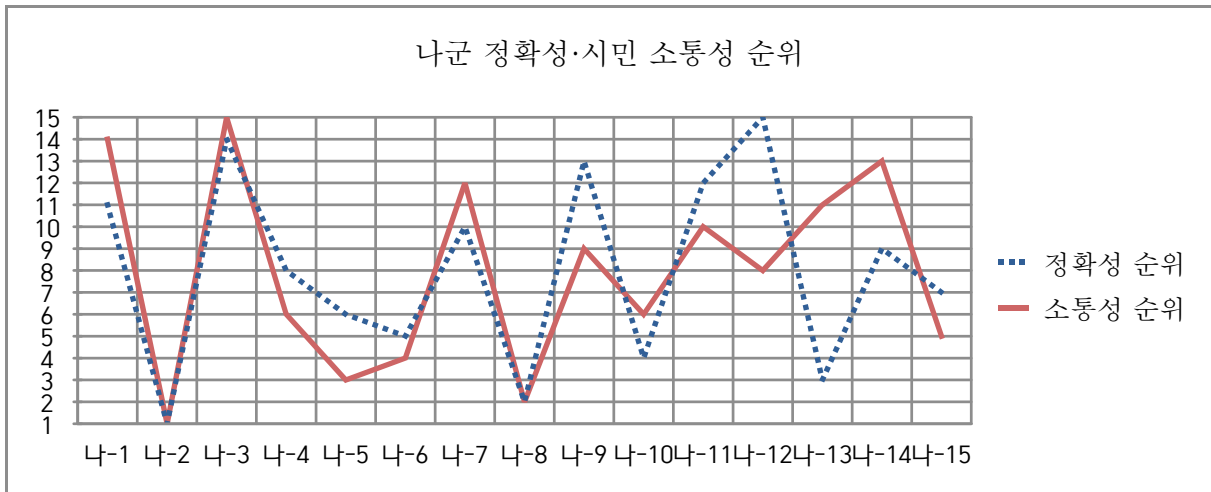
[표 45] 기관별 문서당 음절 수

2. 진단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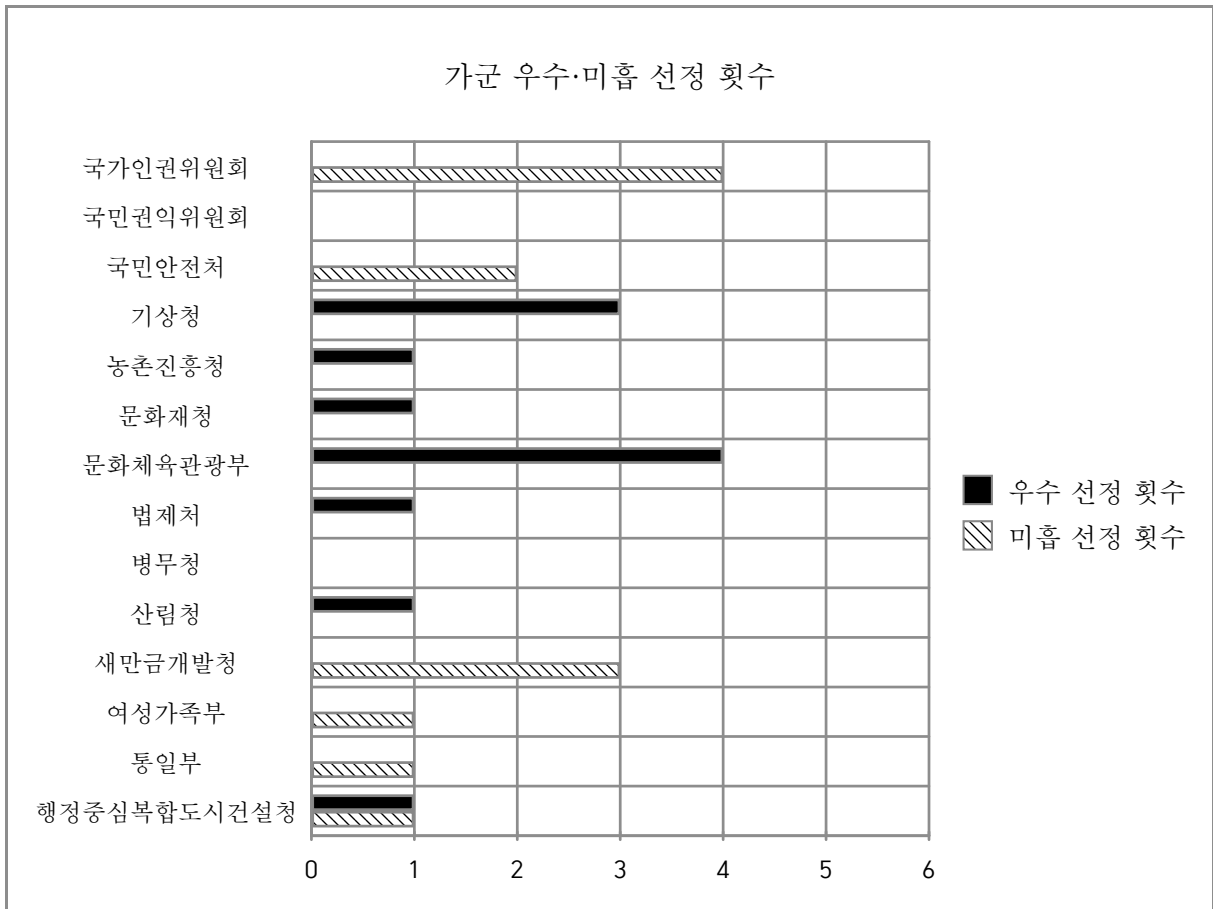
위 그래프는 모듬별 평균 점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정확성은 40점 만점이다. 그리고 가·나군은 37점대에 다군은 36점대에 분포하고 있다. 정확성 평균 점수의 경우 각 군별로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직선에 가까운 분포를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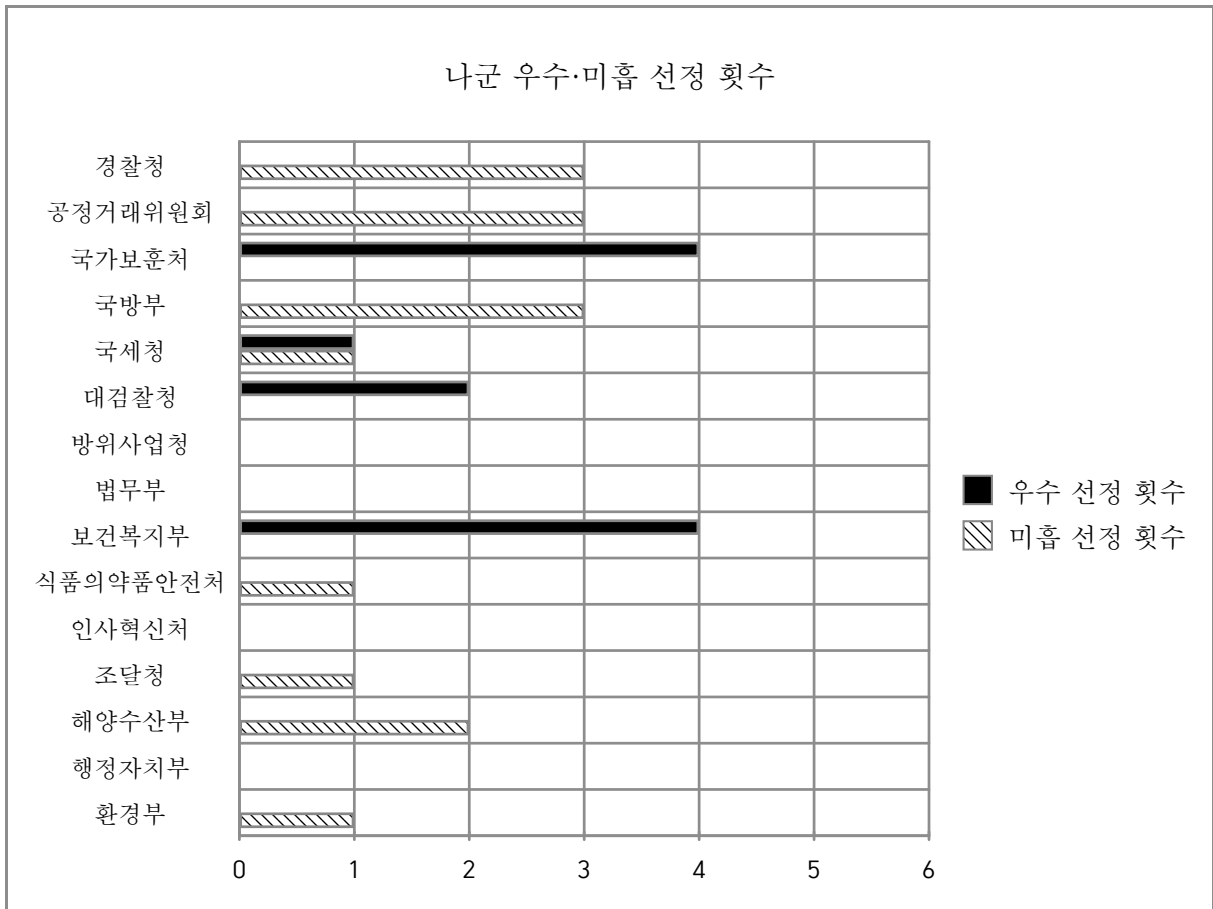
위 세 그래프는 각 군별로 정확성 순위와 시민 소통성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가로축의 1, 2, 3, ……은 각 군의 가나다순 기관명을 의미한다. 그리고 점선으로 된 정확성 순위와 실선으로 된 시민 소통성 순위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순위의 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그래프를 보면 가군은 몇몇 구간을 제외하고 정확성 순위와 시민 소통성 순위가 큰 차이를 보인다. 그에 반해 나·다 군은 그래프의 뒷부분을 제외하고 정확성 순위와 시민 소통성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가군 우수·미흡 선정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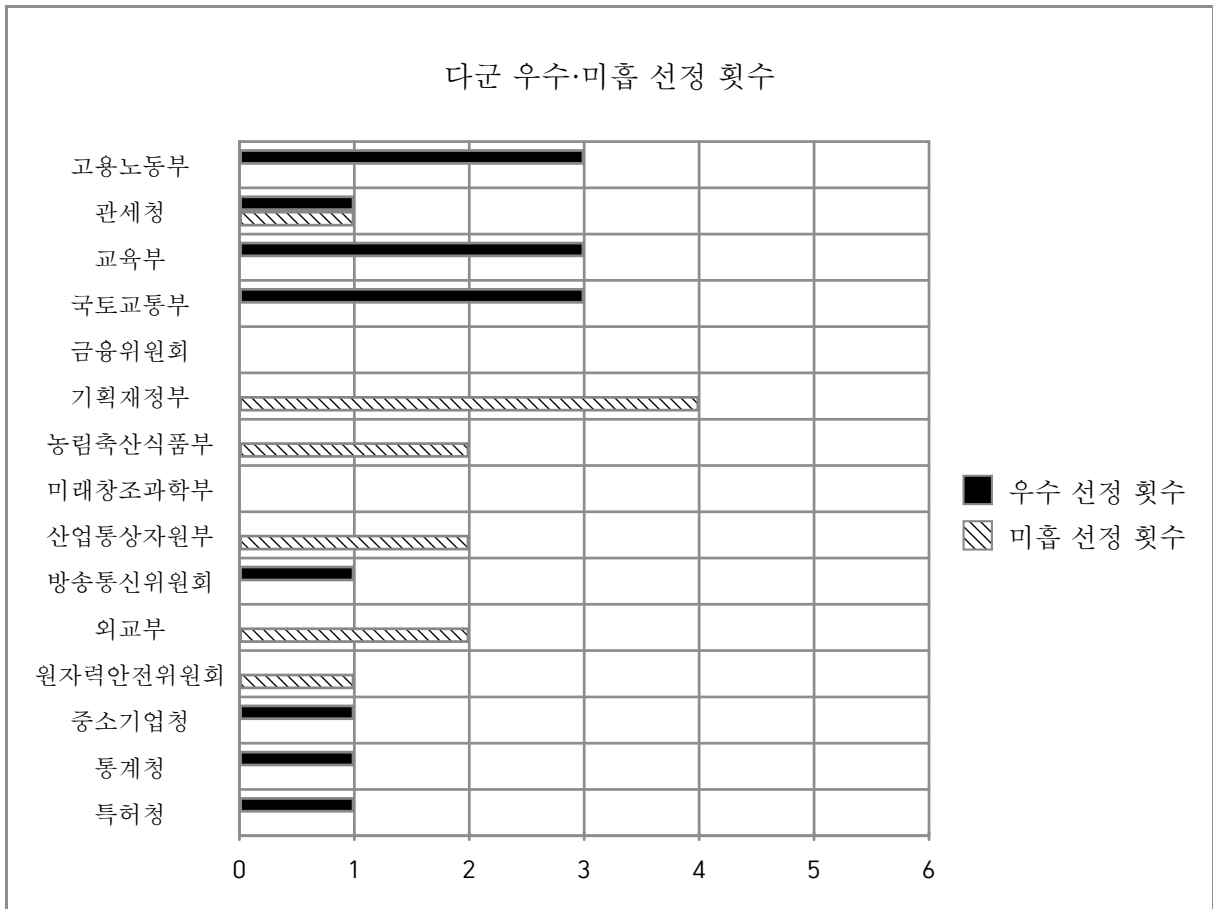
위 그래프는 가군의 기관이 우수 기관과 미흡 기관에 각각 얼마나 선정이 되었는가를 나타낸다. 가군에서 1위를 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네 달의 진단에서 모두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14위를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네 번 모두 미흡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13위를 한 새만금개발청은 네 번 중 세 번 미흡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나군 우수·미흡 선정 횟수



위 그래프는 나군의 기관이 우수 기관과 미흡 기관에 각각 얼마나 선정이 되었는가를 나타낸다. 나군에서는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가 진단이 진행되는 네 달 동안 모두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좋은 모습을 보였다. 3위를 한 대검찰청은 2회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방부는 각각 3회 미흡 기관에 선정되어 미흡 1위 기관의 불명예를 얻었다.

다군 우수·미흡 선정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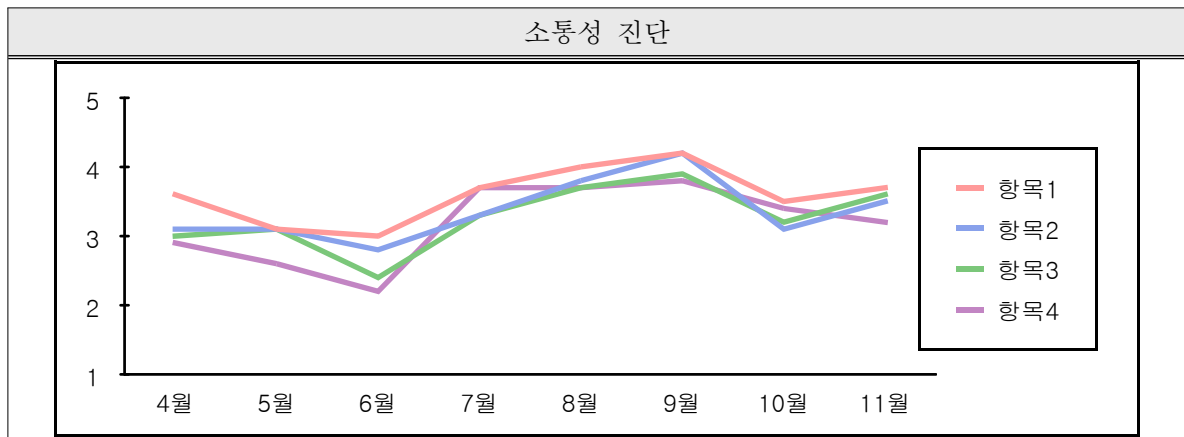


위 그래프는 다군의 기관이 우수 기관과 미흡 기관에 각각 얼마나 선정이 되었는가를 나타낸다. 다군의 1위는 공동으로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선정되었다. 특이할 점은 1위를 제외하고 고용노동부,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통계청, 특허청이 각각 1회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미흡 1위 기관은 네 달 내내 미흡기관으로 선정된 기획재정부가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가 각각 2회씩 미흡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3) 기관별 보도 자료 오류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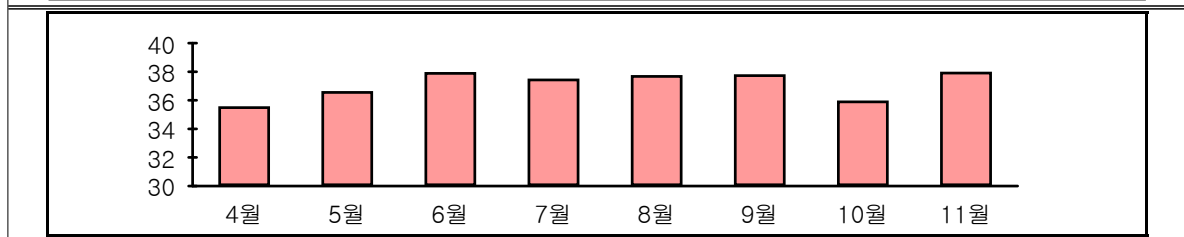
□ 가군

1. 국가인권위원회



정확성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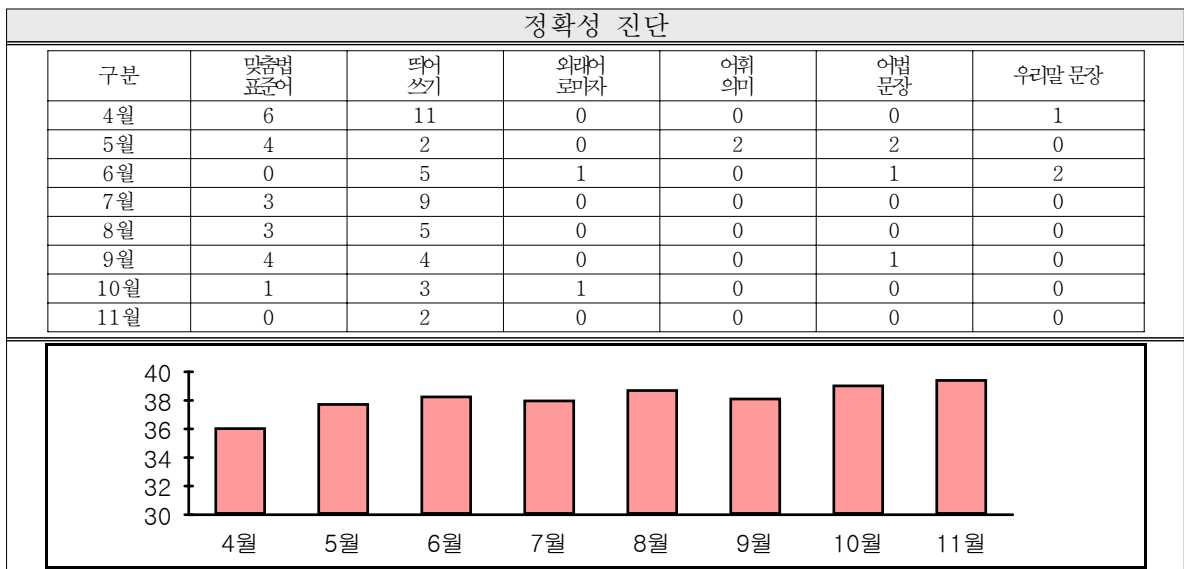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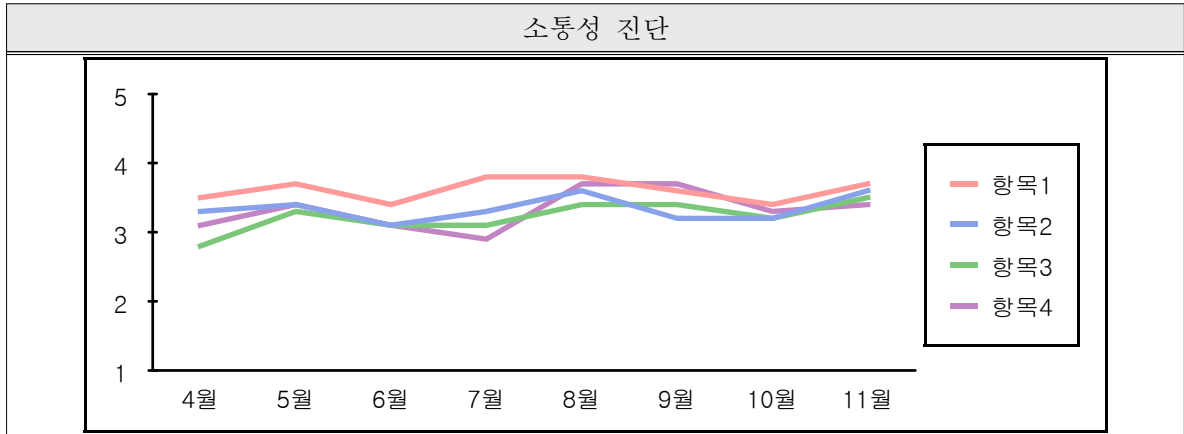
구분	맞춤법 표준어	띄어 쓰기	외래어 로마자	어휘 의미	어법 문장	우리말 문장
4월	1	19	0	0	1	1
5월	6	5	0	0	2	0
6월	4	4	0	0	2	0
7월	4	8	0	0	2	0
8월	5	5	0	0	1	1
9월	2	6	0	0	1	0
10월	5	16	0	0	0	0
11월	0	8	0	0	0	0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도 자료는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소통성 진단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소통성 평가 항목 중 3번 항목의 점수가 낮으며 진단 결과 공지 후에도 진단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관 차원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소통성 평가 3번 항목은 문장의 길이, 문장의 주술 호응, 문장의 복잡성 등을 평가하는 항목인데 이

는 단순한 단어 차원의 문제보다 개선이 어렵다. 따라서 기관 내부에서 개선의 노력을 가지고 꾸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소통성 평가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정확성 평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정확성 평가에서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에서 지속적인 오류가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주술 호응에 관한 문제가 많이 발견되었다. 정확성 평가 결과 이러한 오류는 과도한 문장 접속으로 인한 것으로써 문장을 보다 짧고 간결하게 구성하여 오류를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4회의 진단동안 4회 모두 미흡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전문가 평가단의 총평 역시 문장에 관련된 것이 많았다. 문장이 너무 길고 문체가 딱딱한 느낌을 준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한 소통성 평가를 보면 4번 항목의 진단 결과 역시 좋지 않은데 이는 보도 자료의 구성에 관련된 항목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도 자료는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시각적 자료가 부족하거나 예시 사례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도 자료가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문장을 구사하고 글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국민권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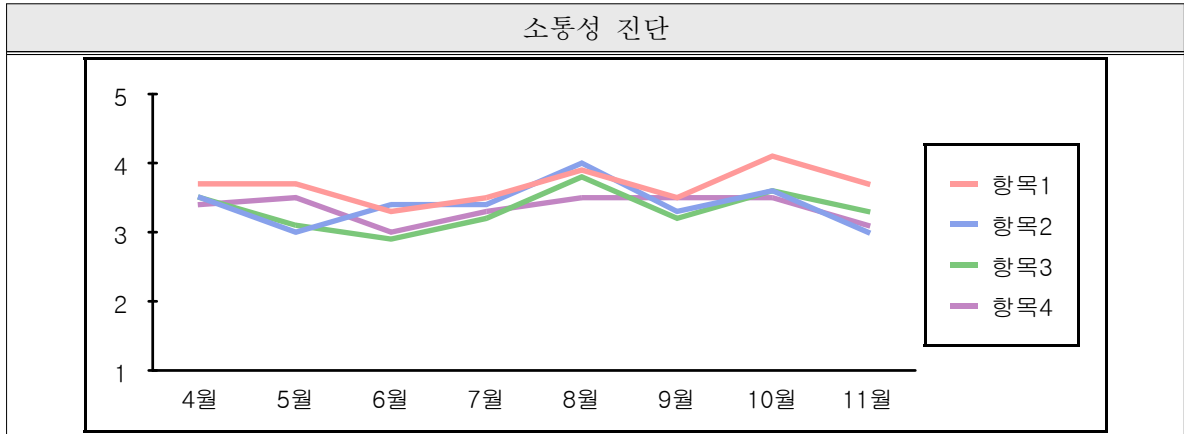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 진단 결과가 양호한 편이다. 대부분의 진단 항목에서 평가 결과가 전체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모습 역시 긍정적이다. 하지만 3번 항목인 문장의 길이, 문장의 주술 호응, 문장의 복잡성 등의 평가에서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문장의 길이가 다소 길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문장의 길이가 길어짐으로 인해 주술 호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견되는데 5월과 6월의 정확성 진단에서 어법에 맞는 문장 항목의 오류 문장들이 모두 주술호응에 오류가 있는 문장들이다. 앞으로 짧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오류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정확성 진단 결과 우리말다운 문장 구성에 대한 오류가 발견되었는데 다른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발견 횟수가 적지 않다. 능동형 문장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동형으로 구성된 문장들이 눈에 띄는데 번역투 문장이나 과도한 피동·사동형 문장은 피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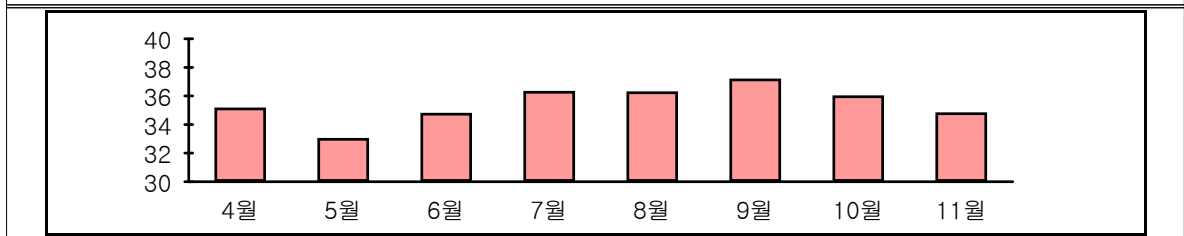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한 기관이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생산하는 보도 자료는 내부에서 유통되는 문서와 달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할 것이다.

3. 국민안전처



정확성 진단

구분	맞춤법 표준어	띄어 쓰기	외래어 로마자	어휘 의미	어법 문장	우리말 문장
4월	3	13	0	0	0	2
5월	10	13	0	2	2	3
6월	6	11	0	0	2	1
7월	3	7	0	0	0	0
8월	5	13	1	0	0	0
9월	3	10	0	0	2	0
10월	8	17	0	0	0	0
11월	6	21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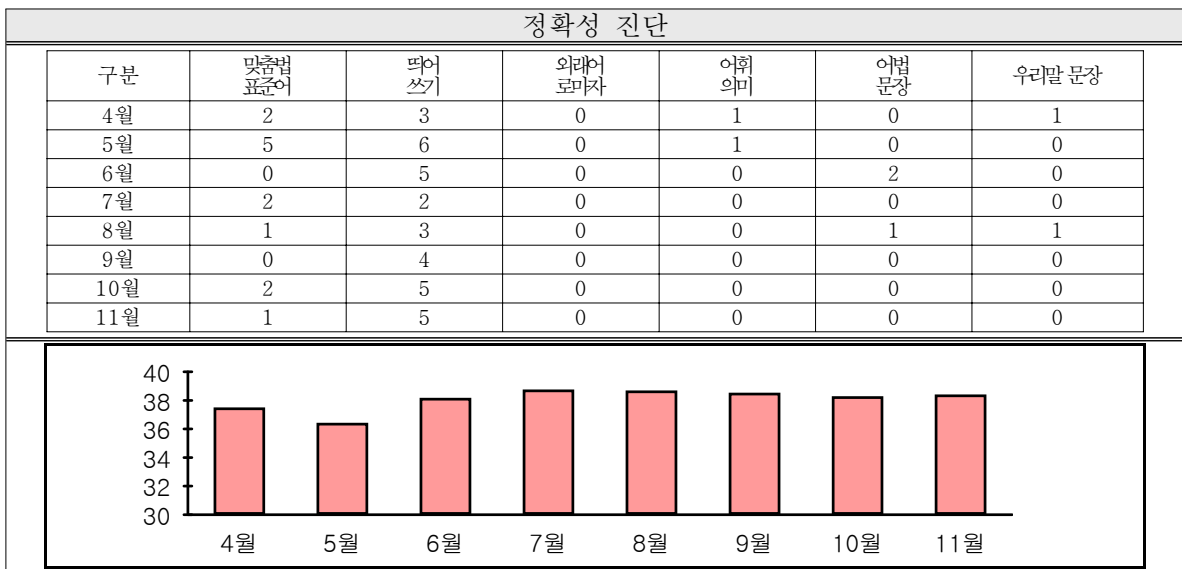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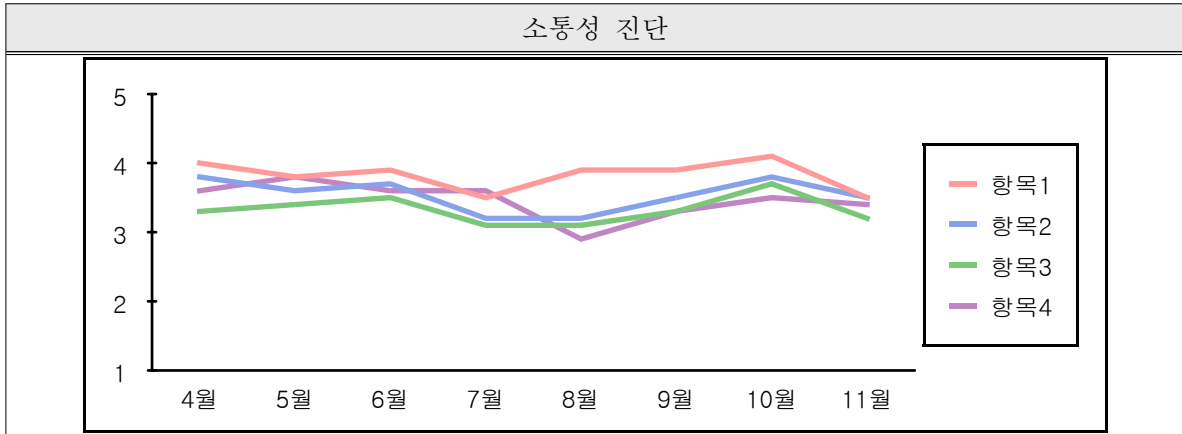
국민안전처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른다. 소통성의 경우 가군에 속한 14개의 기관 중에 6위를 차지했지만, 정확성의 경우에는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순위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소통성에서는 항목1을 제외한 항목2, 항목3, 항목4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네 항목 모두 개선되는 양상을 보여주지 못했다. 소통성 평가에서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네 항목 전반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안전처 보도 자료의 더욱 큰 문제점은 정확성에 있다. 국민안전처 보도 자료는 정확성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맞춤법과 띄어쓰기에서 많은 오류를 범했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의 오류는 보도 자료 되고

단계에서 꼼꼼하게 살펴보면 쉽게 개선할 수 있는 사항으로, 향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민안전처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에서도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국민안전처의 보도 자료는 정확성 평가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소통성 평가에서는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확성 평가에서 문제가 되었던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의 문제만 개선을 한다면, 상위권으로 도약할 잠재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4. 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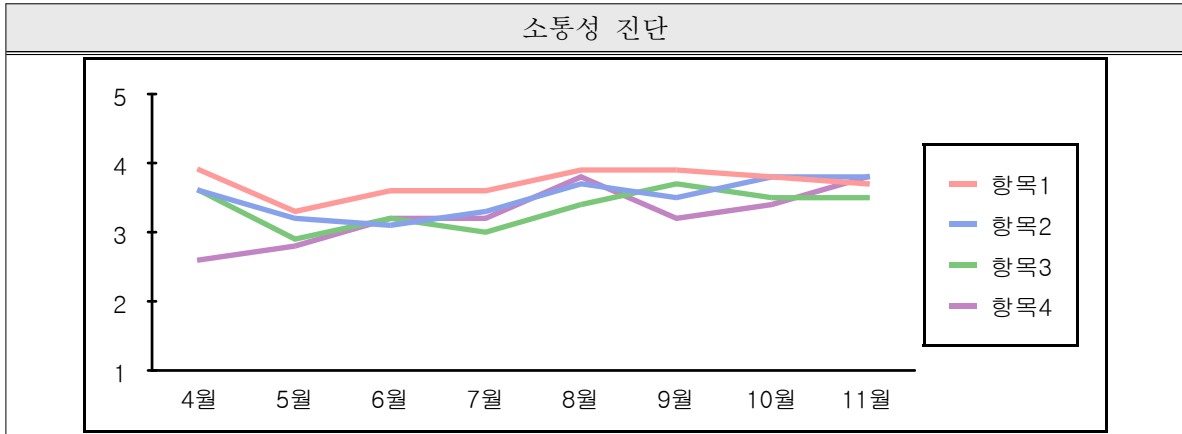


기상청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상당히 우수한 편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소통성의 경우 네 항목 모두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도 자료 작성 관계자들이 기상청의 보도 자료가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전달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확성의 경우에는 띄어쓰기에서 오류가 꾸준히 발견되었다. 이는 물론 개선해야 할 점이지만, 오류를 범한 횟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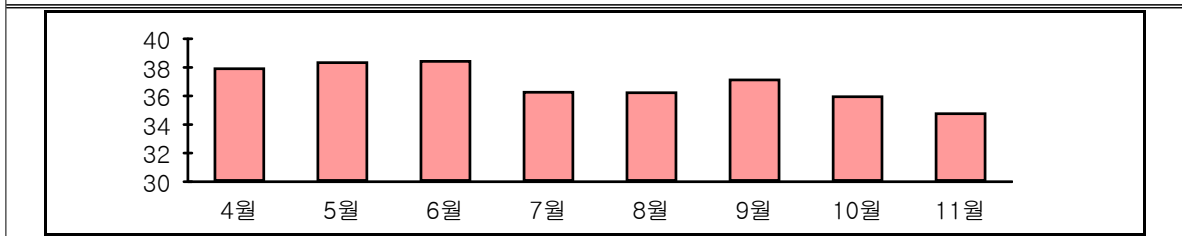
기상청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이는 기상청의 보도 자료 대부분이 균질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띄어쓰기 오류를 보완하여 정확성을 좀 더 높인다면, 가장 우수한 기관이 되리라 예상된다.

5. 농촌진흥청



정확성 진단

구분	맞춤법 표준어	띄어 쓰기	외래어 로마자	어휘 의미	어법 문장	우리말 문장
4월	1	6	0	0	0	0
5월	4	2	0	0	1	0
6월	1	3	0	1	0	1
7월	1	1	0	0	0	0
8월	0	7	0	0	0	0
9월	2	7	1	1	0	0
10월	1	9	0	0	0	0
11월	0	10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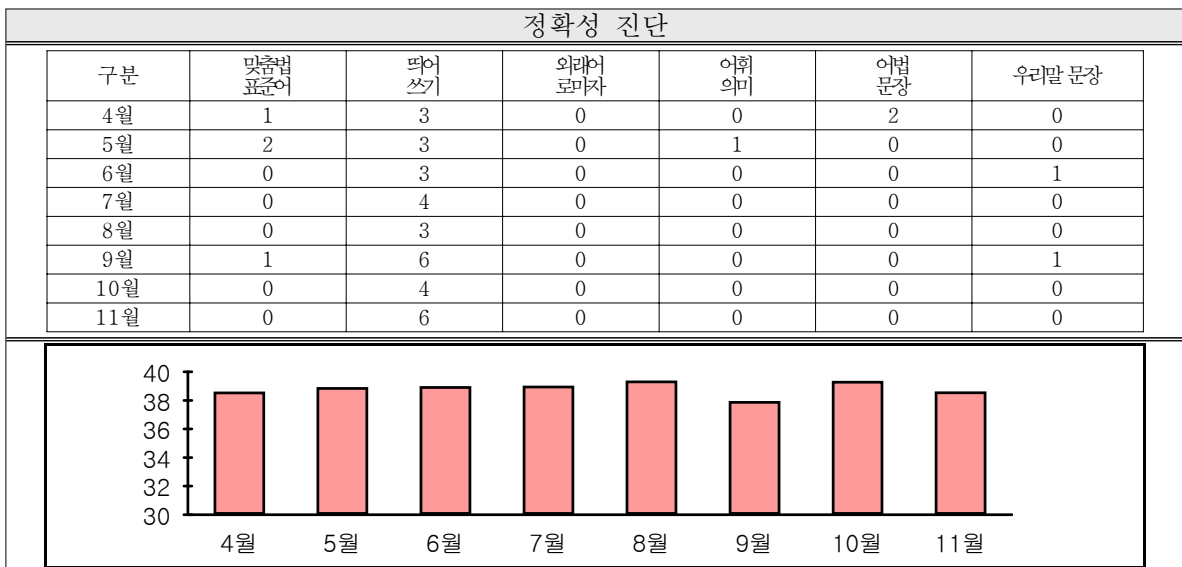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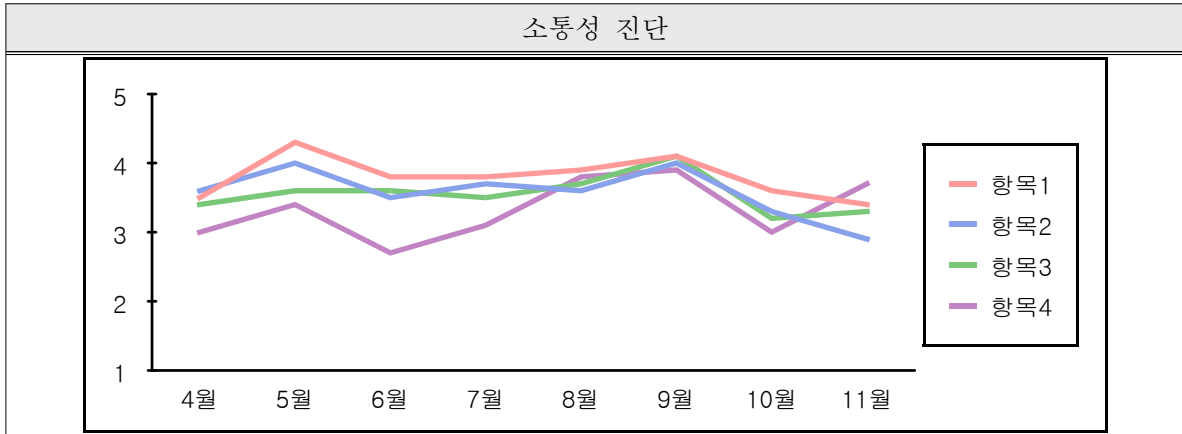
농촌진흥청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다소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소통성의 경우 가군에 속한 14개의 기관 중 11위를 차지했고, 정확성의 경우에는 4위를 차지했다.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순위에서는 중하위권인 8위에 머물렀다.

소통성 항목에서는 항목4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항목4는 보도 자료의 전체 구성에 대한 평가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농촌진흥청의 보도 자료가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항목1, 항목2, 항목3은 전반적으로 평가 점수가 저조하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전반적인 지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과의 소통성을 높인 보도 자료 작성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정확성의 경

우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띄어쓰기에서 꾸준히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보도 자료 작성 시 띄어쓰기 규정을 보다 유념할 필요가 있다.

농촌진흥청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에서 두 차례 우수 평가를 받았고, 한 차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여전히 보도 자료의 질적 수준이 불균질적인 것으로 보아, 보도 자료 작성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보도 자료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서 보다 모든 보도 자료가 균질적으로 작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6. 문화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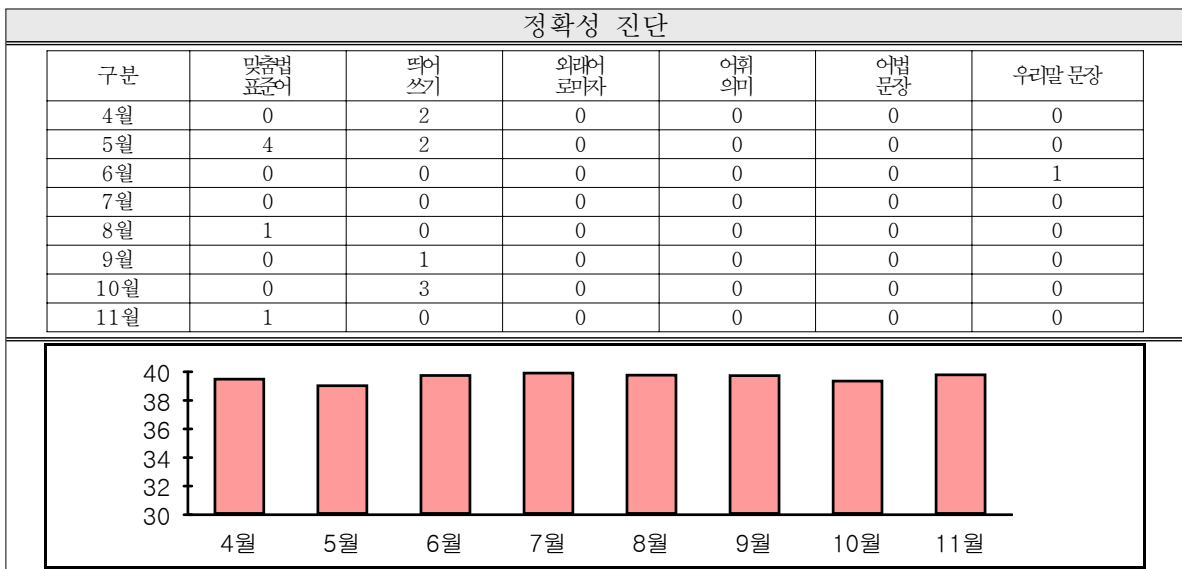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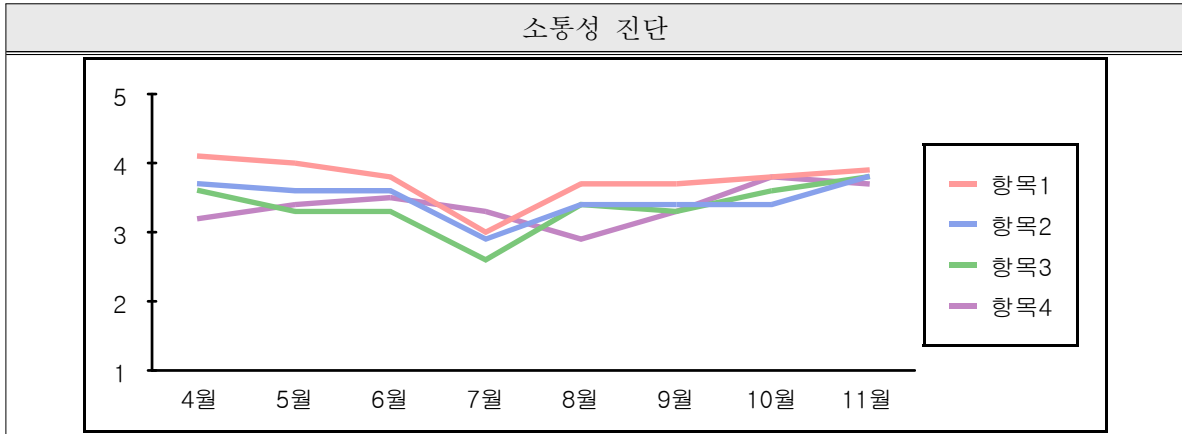
문화재청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질적으로 우수한 편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통성의 경우 가군에 속한 14개 기관 중 3위를 차지했고, 정확성의 경우 2위를 차지했다. 두 영역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순위에서도 3위에 올랐다.

소통성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대체로 모든 항목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가운데, 항목4의 평가 결과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6월과 10월의 평가 점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편이다. 항목4는 보도 자료의 전체적인 구성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항목의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항목4의 점수가 낮다면 개선의 여지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확성의 경우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다만 띄어쓰기에서 오류가 다소 발견되

었다. 띄어쓰기 오류가 전혀 없는 보도 자료를 위해 세심한 검토가 요청된다.

문화재청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에서 대체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종전과 같은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보도 자료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더 큰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

7.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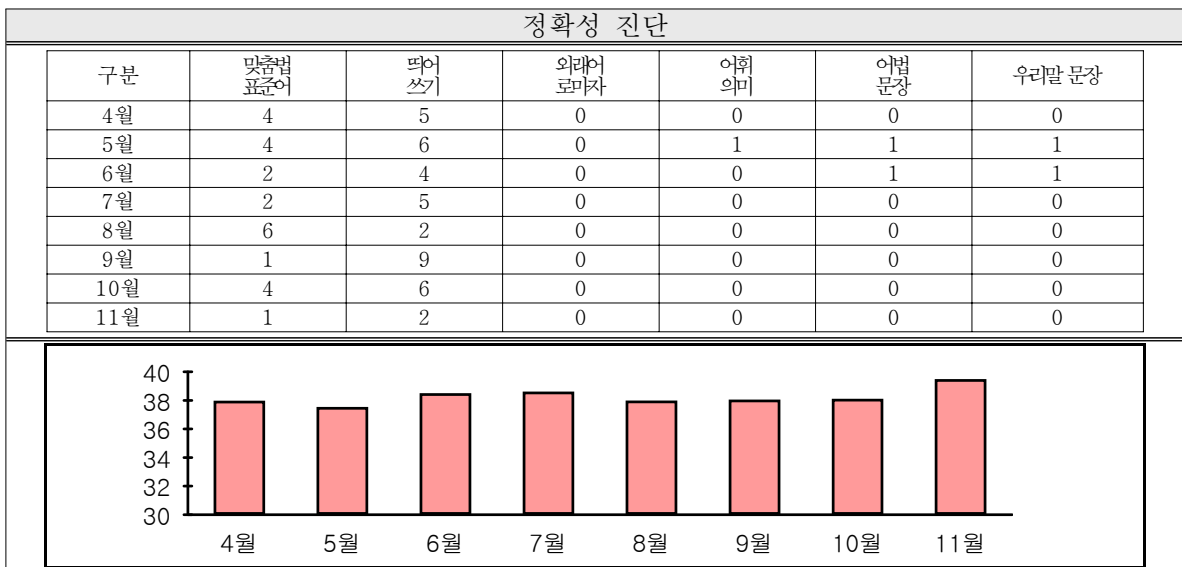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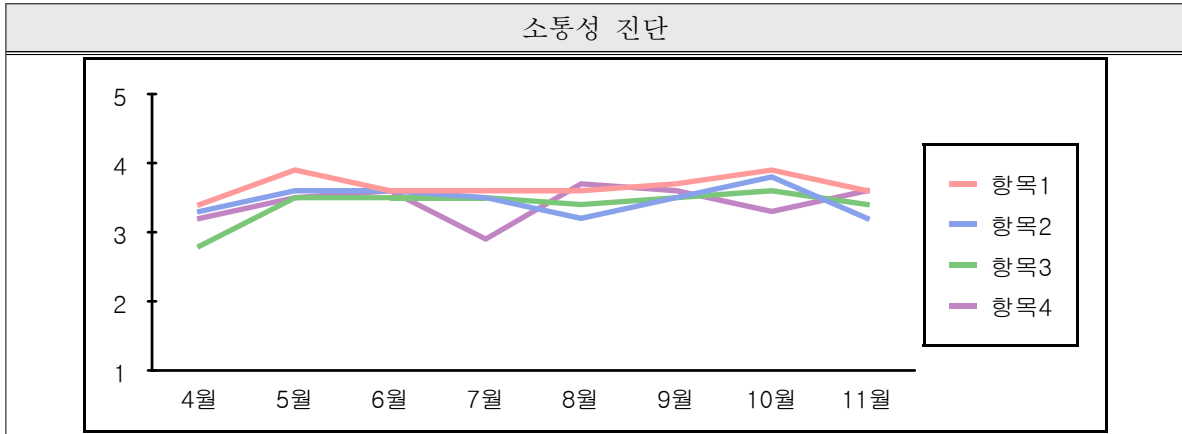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한 종합 결과에서도 매우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소통성의 네 항목들에서 모두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다만 7월 보도 자료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7월 보도 자료의 오류에 국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시기의 보도 자료들은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확성의 경우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하겠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서 간혹 오류가 발견되지만, 지속적인 오류라고 보기는 어렵다.

전문가 종합 평가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 자료가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앞으로도 보도 자료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한다. 그렇다면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공공기관 보도 자료의 표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8. 법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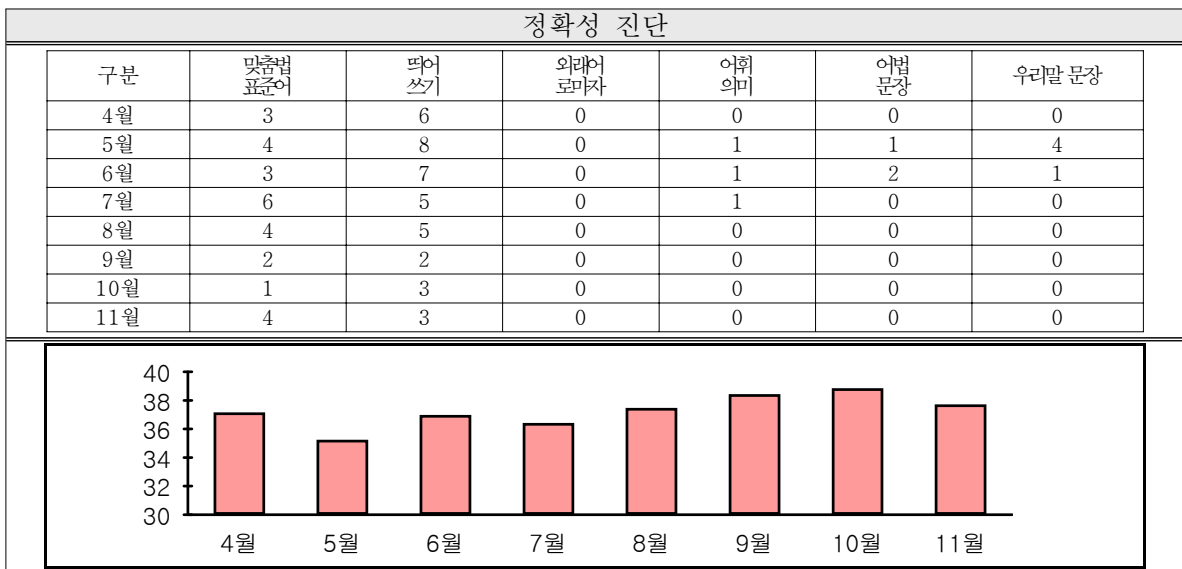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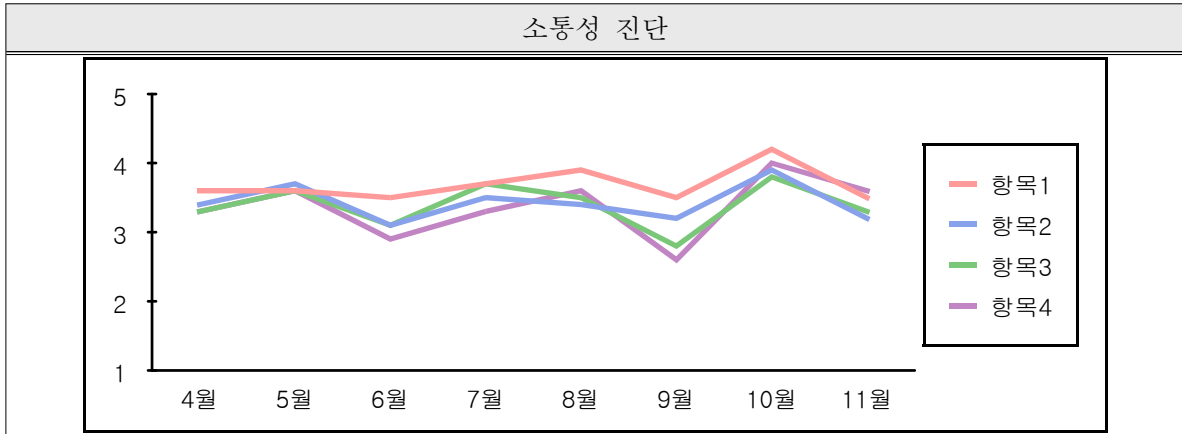
법제처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대체로 무난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통성의 네 항목 중에는 특별히 우수하다거나 미흡한 항목은 없었다. 전반적으로 네 항목이 비슷한 평가를 받았는데, 네 항목의 점수가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 기관의 특성 상 국민과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통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확성의 경우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맞춤법과 띄어쓰기에서 지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보도 자료 작성 시 맞춤법과 띄어쓰기 규정을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제처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에서 한 차례 우수 평가를 받았고, 미흡 평가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수준이 낮은 보도 자료를 작성한 사례는 없지만, 그렇다고 표준이 될 만한 보도 자료를 작성한 경우가 많지도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류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보다 완성도 높은 보도 자료 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문장 및 문단 구성의 사소한 오류들을 줄여나가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는 데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9. 병무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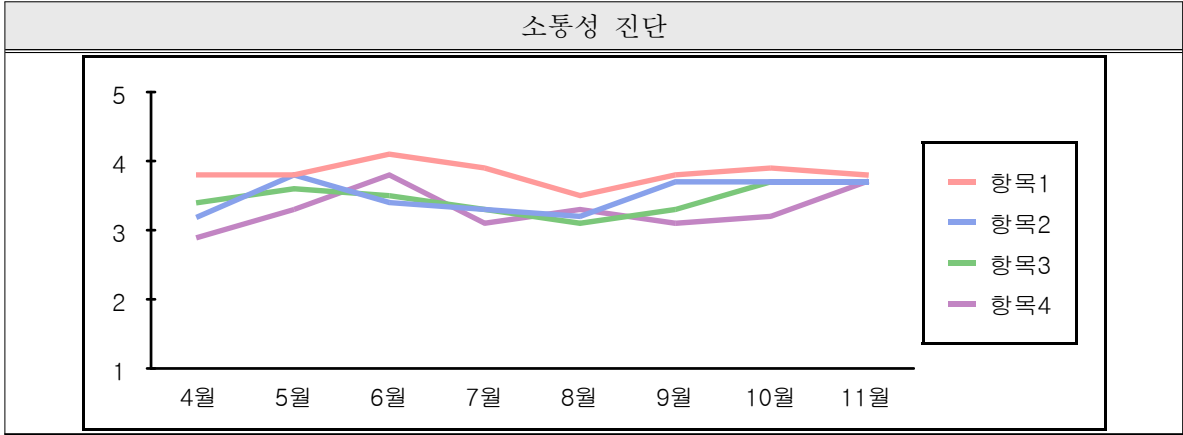
병무청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다소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소통성의 네 항목에서는 항목1을 제외한 항목2, 항목3, 항목4가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항목2는 어려운 단어의 사용 여부, 항목3은 문장의 완성도, 항목4는 보도 자료의 전체 구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점수가 낮은 항목들의 전반적인 수준을 끌어올려, 국민과의 소통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확성의 경우에는 개선의 여지가 많이 발견되었다. 여타 기관에서도 자주 확인되는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문제는 물론, 어휘, 어법, 우리말 문장 등의 항목에서도 오류가 발생했다.

병무청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에서 단 한 차례도 우수 평가를 받지 못했고,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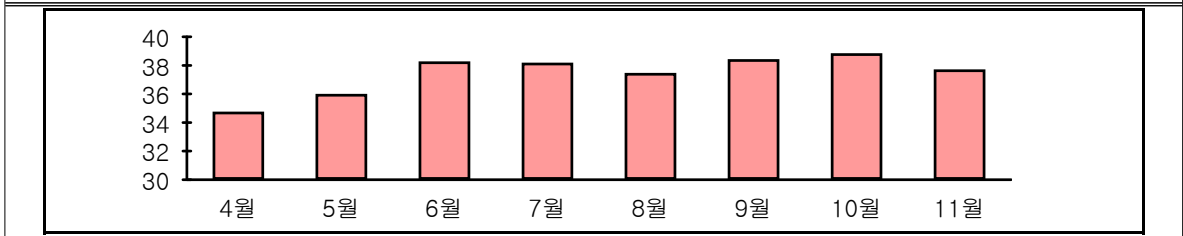
한 미흡 평가도 받지 않았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보도 자료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성도 높은 보도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닌 셈이다. 따라서 미흡한 영역에 대한 개선을 통해 완성도 높은 보도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10. 산림청



정확성 진단

구분	맞춤법 표준어	띄어쓰기	외래어 로마자	어휘 의미	어법 문장	우리말 문장
4월	7	9	0	0	0	0
5월	4	5	0	1	3	0
6월	2	1	0	0	1	1
7월	3	6	0	0	0	0
8월	2	10	0	1	0	0
9월	1	8	0	0	0	0
10월	0	7	0	1	0	0
11월	3	7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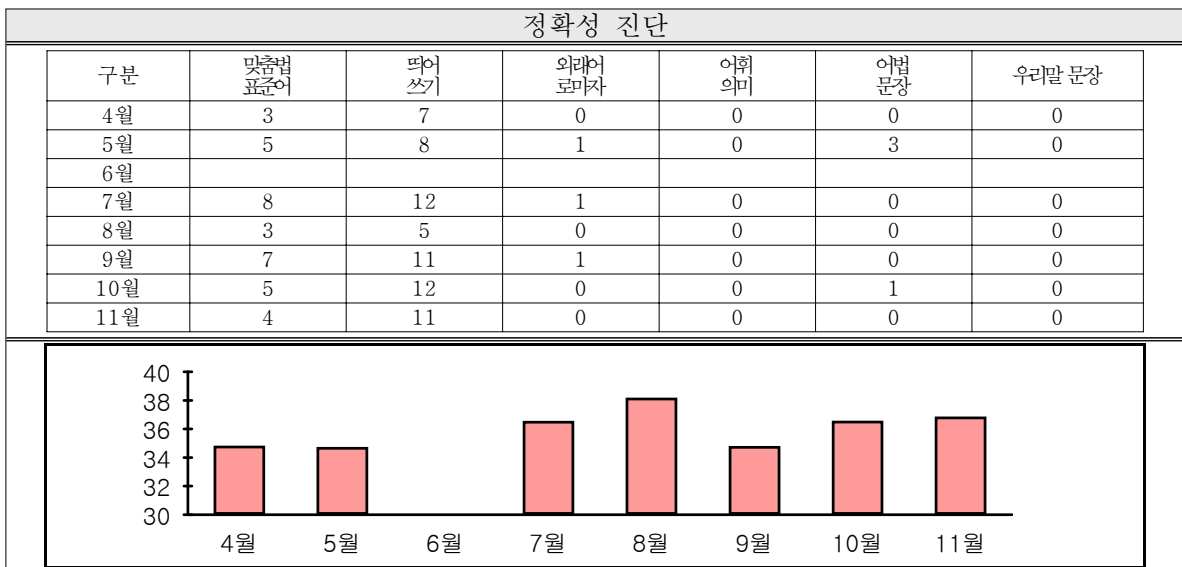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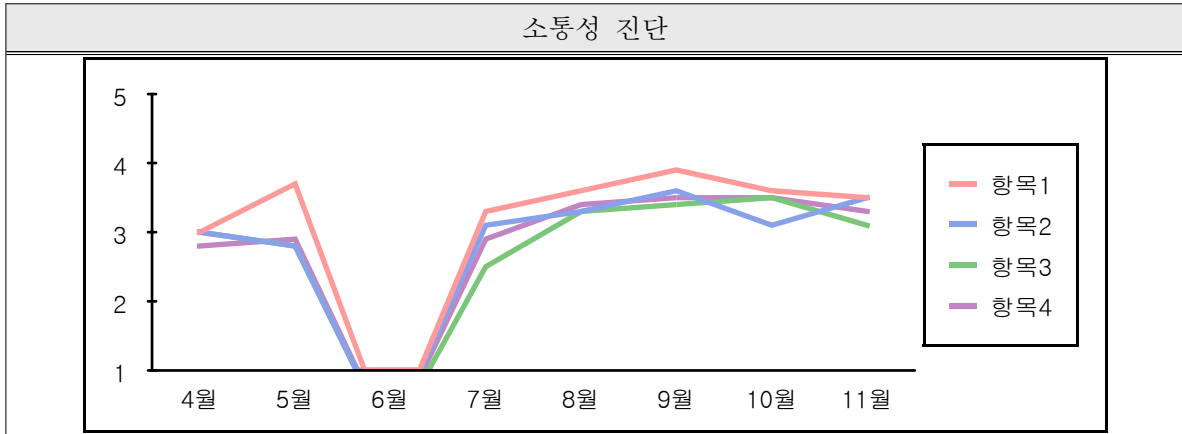


산림청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대체로 우수한 수준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통성의 네 항목들은 대체로 좋은 점수를 나타냈다. 특별히 나쁜 항목은 없었다. 그리고 항목4가 평가 기간 후반부에 점차 나아지는 모습이 고무적이었다. 항목4는 보도 자료의 전체적인 구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산림청이 국민과의 소통성을 높이기 위해 보도 자료의 구성에 좀 더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통성 평가에 비해 정확성 평가에서 다소 아쉬운 평가를 받았다.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문제는 물론, 어휘, 어법, 우리말 문장 영역 등에서 간헐적으로 오류를 범했다. 이는 보도 자료의 문장 구성에 전반적인 오류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산림청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에서 두 차례 우수 평가를 받았고, 미흡 평가는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전체적인 평가에서 중위권에 머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우수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 보도 자료의 수준이 균질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보도 자료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1. 새만금개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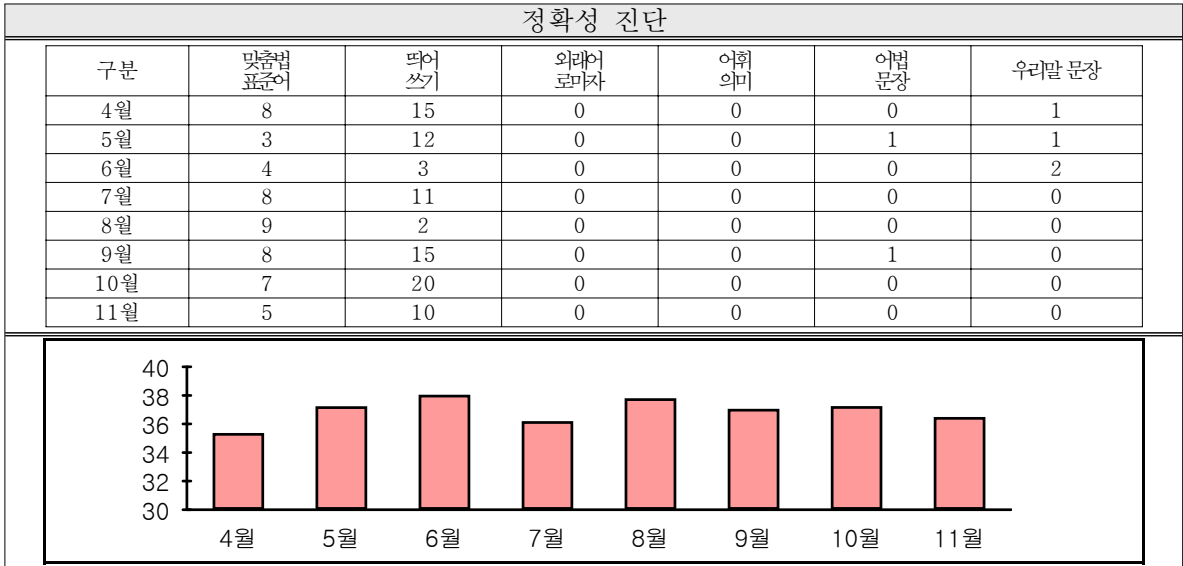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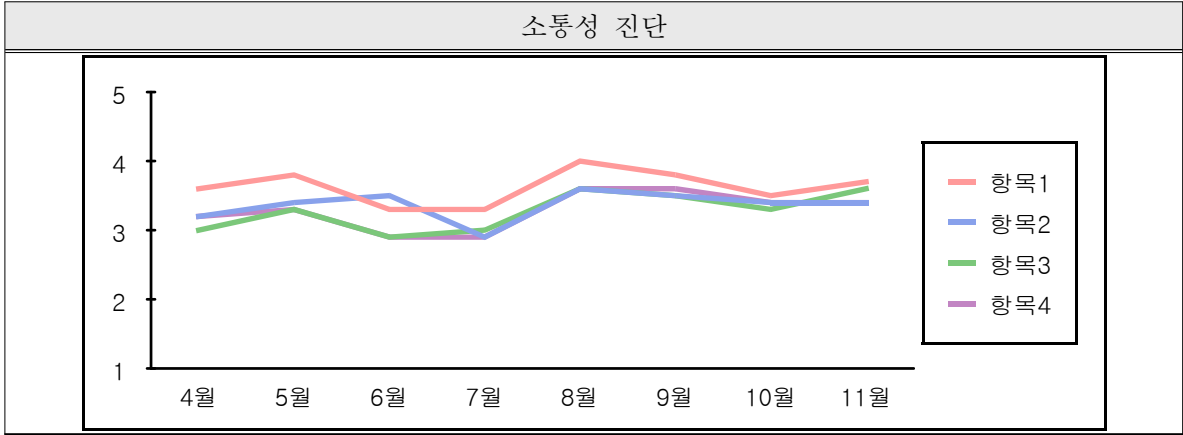


새만금개발청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상당한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모든 부분에서 아쉬운 평가를 받았다.

소통성의 네 항목들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기관의 업무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보도 자료는 그 생명이 소통성에 있다. 그러한 점에서 새만금개발청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확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여타 기관에 비해 맞춤법과 띄어쓰기에서 많은 오류가 발견되었으며, 외래어, 어법 등에서도 간헐적으로 오류가 확인되었다.

새만금개발청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 결과 상당한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도 자료의 질적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도 자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한 단계이다. 향후 보다 나은 보도 자료를 작성하기를 기대한다.

12. 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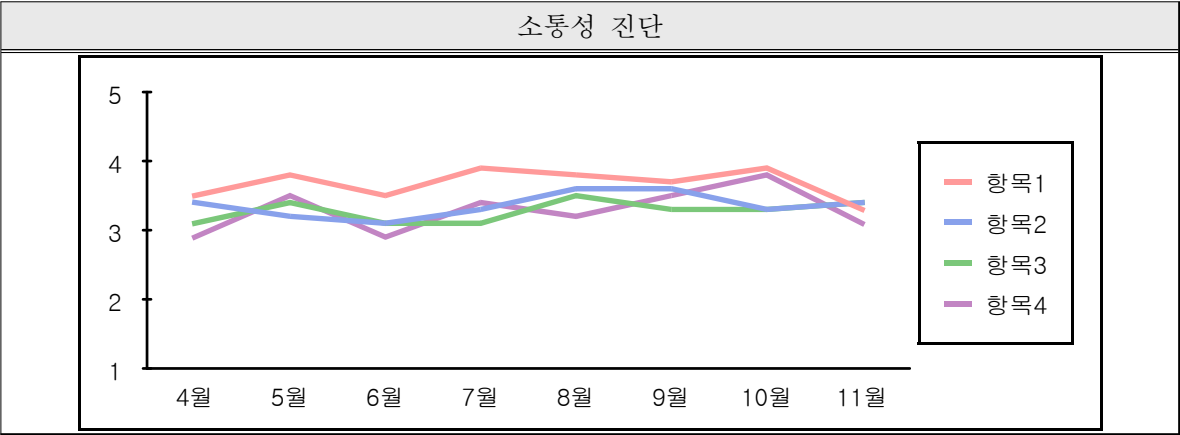


여성가족부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다소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통성의 네 항목들에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네 항목 모두 부분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문장 구성의 측면과 관련이 있는 항목3, 전체 구성과 관련이 있는 항목4에 대한 노력이 시급하다. 이는 정확성 영역과도 관련이 있다. 여성가족부의 보도 자료는 정확성 영역에서 더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오류가 상당했다. 타 기관에서 잘 발견되지 않았던 어법, 우리말 문장과 관련한 오류도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이 꼭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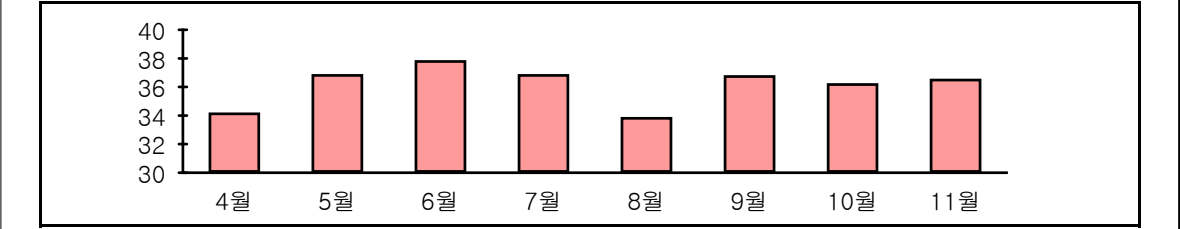
특히 보도 자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단어 선택, 문장 서술 및 구성의 문제부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13. 통일부



정확성 진단

구분	맞춤법 표준어	띄어 쓰기	외래어 로마자	어휘 의미	어법 문장	우리말 문장
4월	8	14	1	2	0	0
5월	2	7	0	0	3	1
6월	4	8	0	2	0	0
7월	3	8	0	0	0	1
8월	6	16	0	0	0	0
9월	3	8	1	0	0	0
10월	6	10	0	0	0	0
11월	4	11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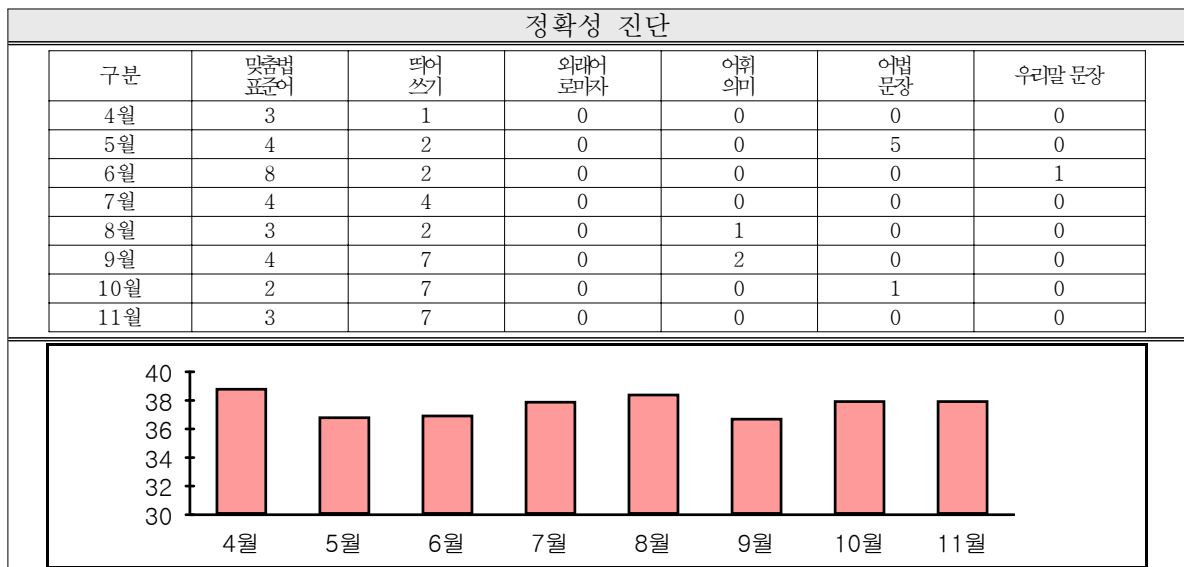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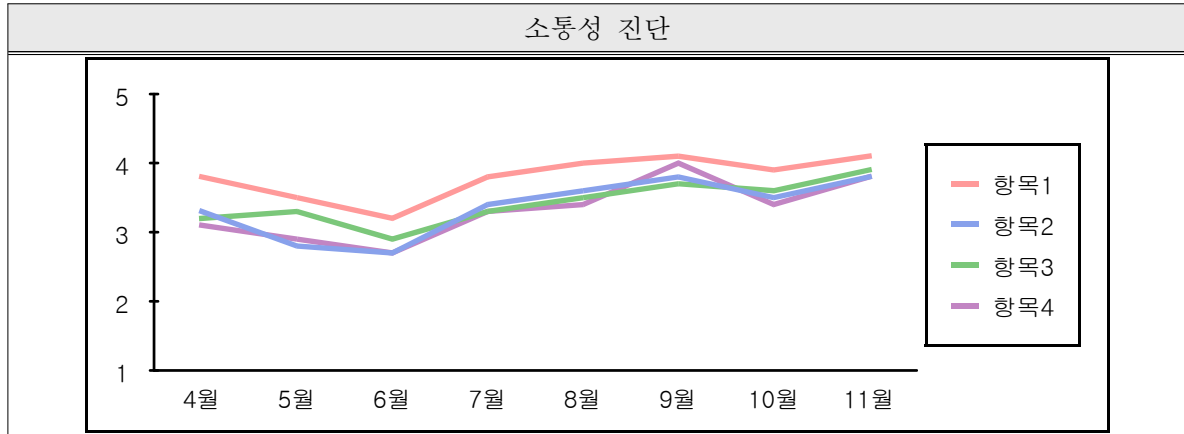
통일부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통성의 네 항목들에서 전반적인 문제가 발견되었다. 소통성의 네 항목은 내용, 단어 선택, 문장 구성, 전체 구성 등과 관련하여, 보도 자료가 읽는 이에게 얼마나 쉽게 이해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부의 보도 자료는 소통을 위한 전반적인 노력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정확성의 경우 더 많은 문제가 확인된다. 여타 기관에서도 종종 오류를 범하는 항목이 맞춤법과 띄어쓰기인데, 이 항목에서 통일부 보도 자료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오류를 범했다. 더욱이 외래어, 어휘, 어법, 우리말 문장 등 전 항목에서 오류를 범했다.

통일부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에서 미흡한 보도 자료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전반적으로 보도 자료의 수준이 높지 않으며, 수준 미달의 보도 자료가 적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보도 자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단어 선택, 문장 서술 및 구성의 문제부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1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적지 않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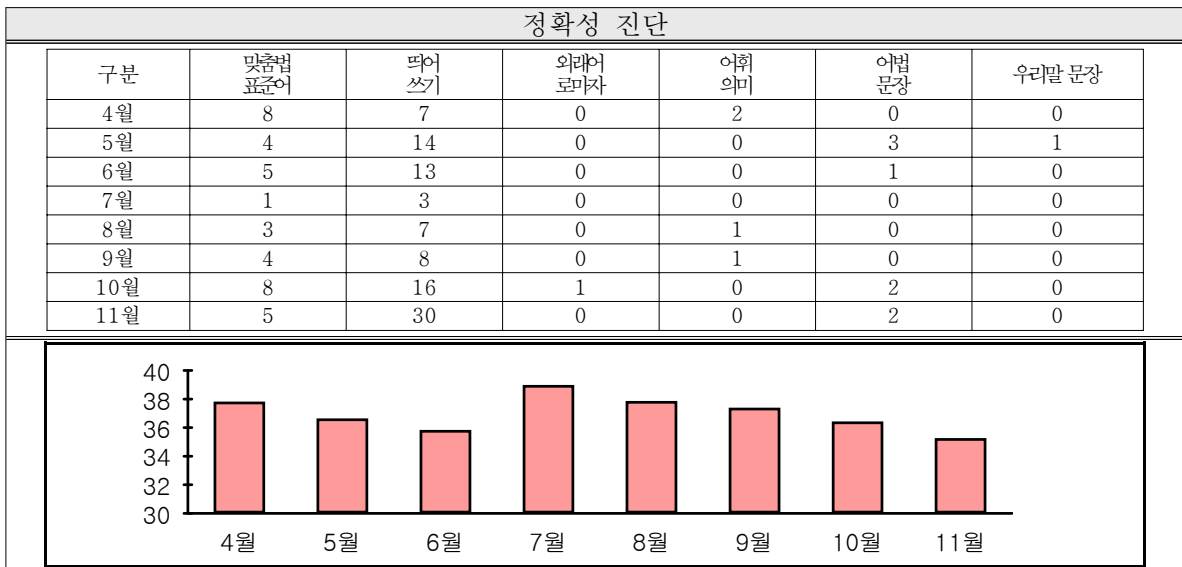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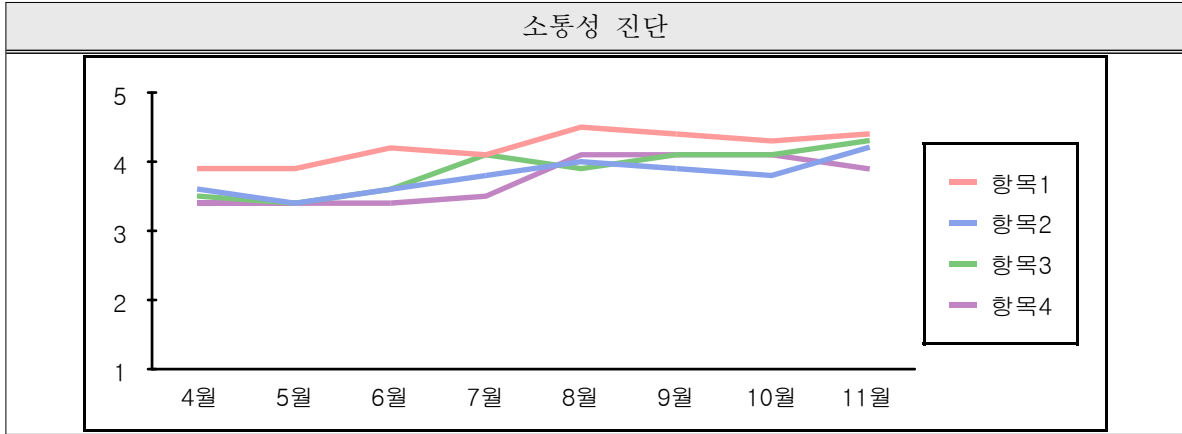
소통성의 네 항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적인 평가 점수가 낮으므로, 앞으로 소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도 자료 작성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확성의 경우 무난한 평가를 받았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오류가 확인되었고, 그 밖에 어휘, 어법, 우리말 문장 항목에서도 오류가 발견되었다. 어휘, 어법, 우리말 문장 항목의 오류는 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에서만 발견되는 오류이므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에서 우수하다는 평을 받기도 하

고 미흡하다는 평을 받기도 했는데, 이는 보도 자료의 질적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수 평가를 받은 보도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보도 자료의 전반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계획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 나군

15. 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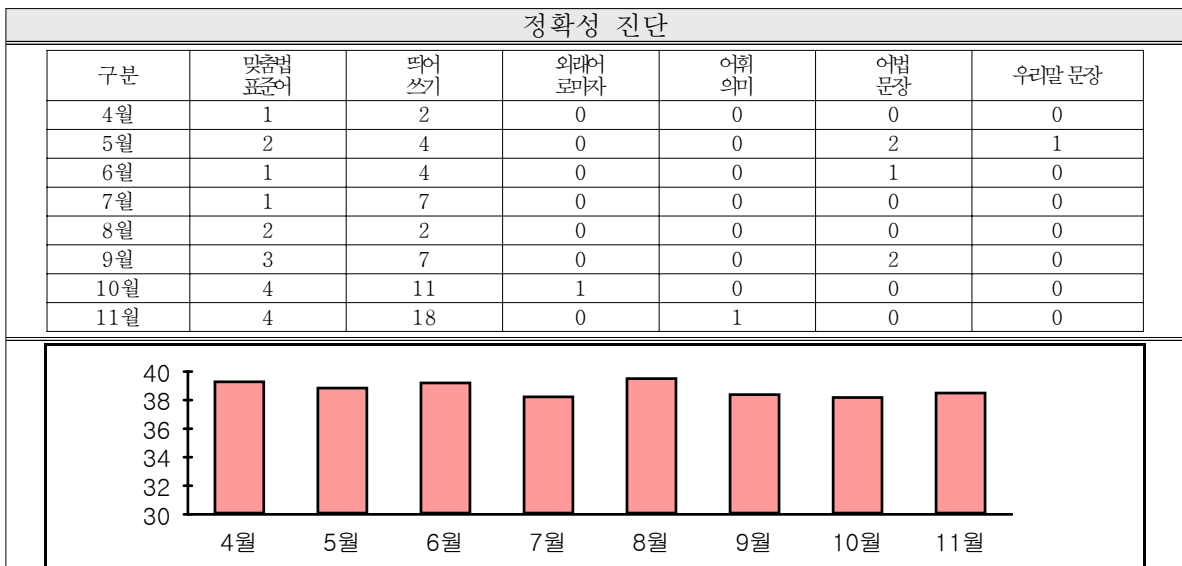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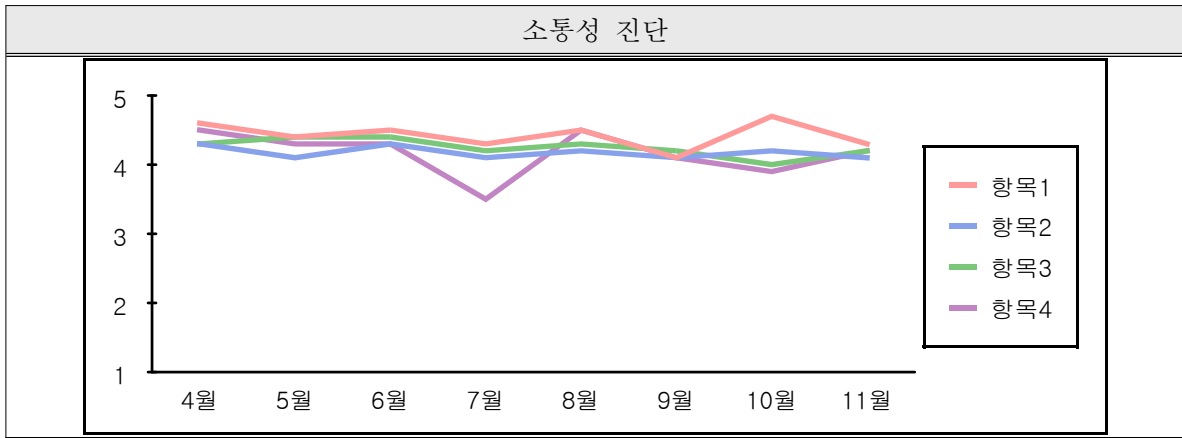


경찰청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적지 않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통성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네 항목 모두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소통성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평가 점수 상으로는 상위권과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정확성의 경우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외래어, 어휘, 어법, 우리말 문장 등의 항목에서 모두 오류가 발생했다. 이 항목들은 여타 기관에서 오류가 잘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또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경찰청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에서 우수하다는 평을 받기도 하고 미흡하다는 평을 받기도 했는데, 이는 보도 자료의 질적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수 평가를 받은 보도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보도 자료의 전반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계획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16. 공정거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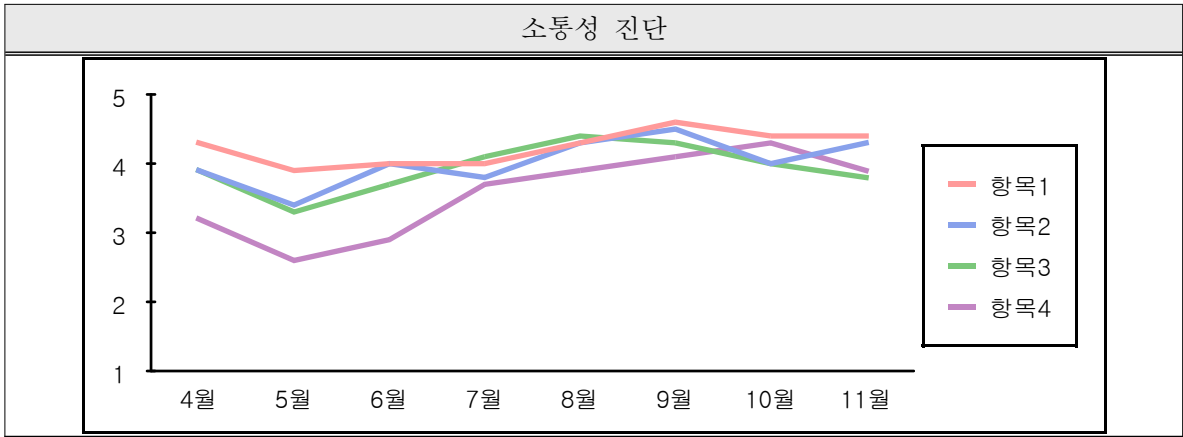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군의 수위에 오른 관세청과 더불어 공공기관 보도 자료 작성의 표준을 제시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소통성의 네 항목들은 모두 우수했다. 7월에 일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11월까지 꾸준히 높은 점수를 유지했다. 정확성의 경우에도 타 기관과 비교하면 나무랄 데 없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10월과 11월 보도 자료의 정확성 평가에서는 띄어쓰기의 오류가 많이 발견되었다. 보도 자료를 작성할 때마다 항상 기본적인 문장 구성의 측면부터 꼼꼼히 따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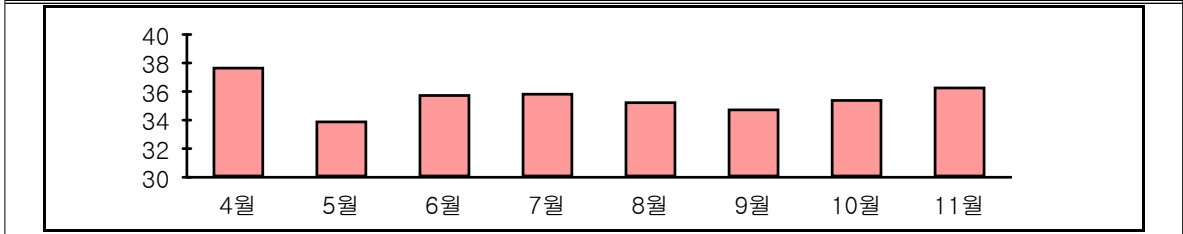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에서 매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이 기관의 보도 자료가 질적으로 매우 우수하며 또한 그 수준이 균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보도 자료의 표준으로서 질적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줄 것을 당부한다.

17. 국가보훈처



정확성 진단

구분	맞춤법 표준어	띄어 쓰기	외래어 로마자	어휘 의미	어법 문장	우리말 문장
4월	1	2	0	0	0	0
5월	2	4	0	0	2	1
6월	1	4	0	0	1	0
7월	9	8	0	0	0	0
8월	10	13	1	1	0	0
9월	5	13	2	0	0	0
10월	4	18	1	0	0	0
11월	4	11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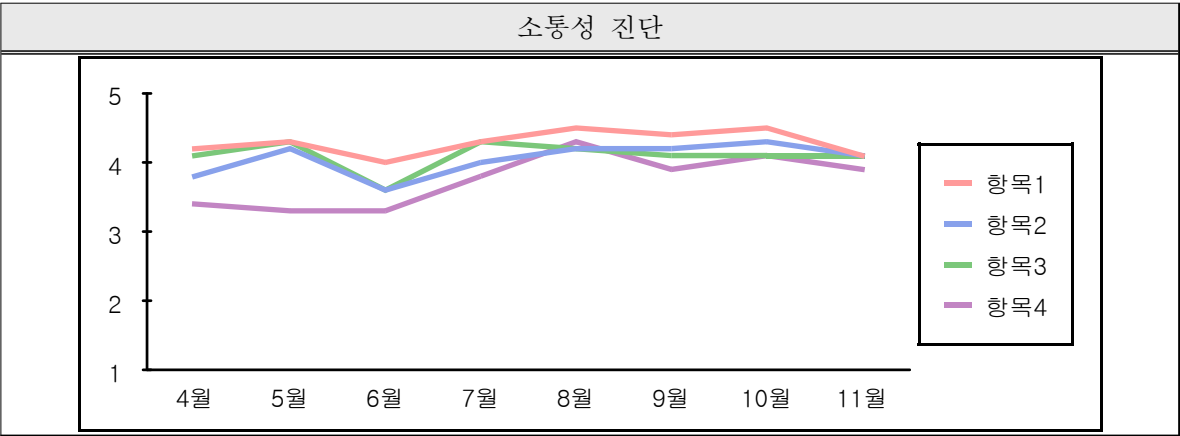


국가보훈처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상당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순위 또한 최하위였다.

소통성의 네 항목에 대해 이 기관은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개선되는 면모를 보여준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네 항목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확성의 경우 맞춤법과 띄어쓰기에서 적지 않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 외 외래어, 어휘, 어법, 우리말 문장 항목에서도 오류가 확인되었다. 이 항목들은 타 기관에서 오류가 잘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보도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계획적인 노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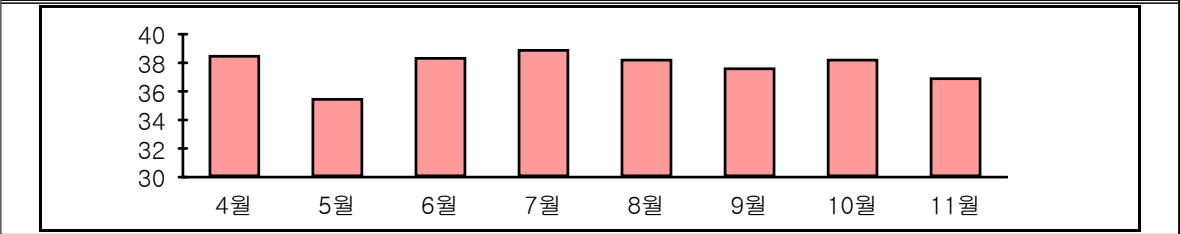
국가보훈처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 이는 이 기관의 보도 자료가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으며 완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보도 자료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나갈 필요가 있다.

18. 국방부



정확성 진단

구분	맞춤법 표준어	띄어쓰기	외래어 로마자	어휘 의미	어법 문장	우리말 문장
4월	3	7	0	0	0	0
5월	7	8	0	2	5	1
6월	1	3	0	0	3	0
7월	2	4	0	0	0	0
8월	1	6	0	0	0	0
9월	2	7	0	0	0	0
10월	2	3	2	0	0	0
11월	4	6	0	0	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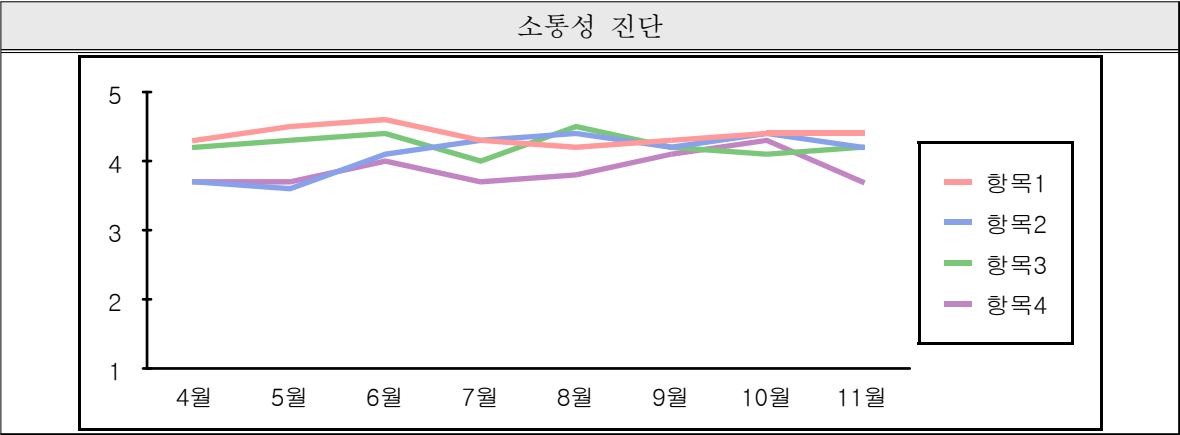


국방부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대체로 무난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소통성의 네 항목들에 대해서는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도 자료의 전체 구성을 평가한 항목4에서는 개선의 양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정확성의 경우에도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항목은 없었다. 그러나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서 꾸준히 오류가 발견되고, 외래어, 어휘, 어법, 우리말 문장 등의 항목에서 종종 오류가 발견된다는 점은, 앞으로 이 기관이 정확성의 측면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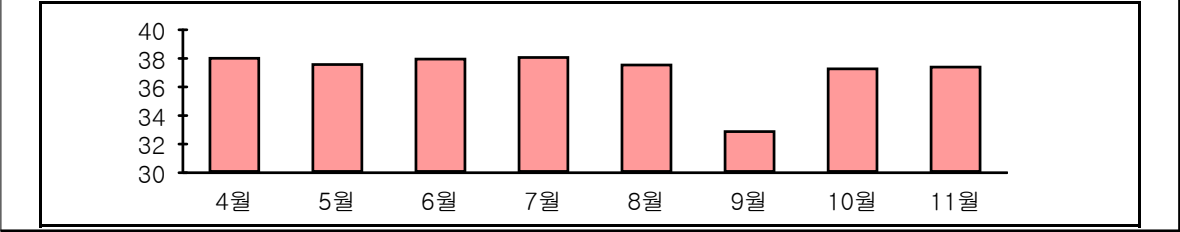
국방부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이는 국방부 보도 자료의 질적 수준에 다소간의 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수 평가를 받은 보도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보도 자료의 전반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19. 국세청



정확성 진단

구분	맞춤법 표준어	띄어 쓰기	외래어 로마자	어휘 의미	어법 문장	우리말 문장
4월	0	8	0	0	0	0
5월	2	11	0	0	2	0
6월	0	21	0	0	1	0
7월	2	6	0	0	0	0
8월	4	17	0	1	0	0
9월	0	4	0	0	1	0
10월	1	24	0	0	0	0
11월	3	19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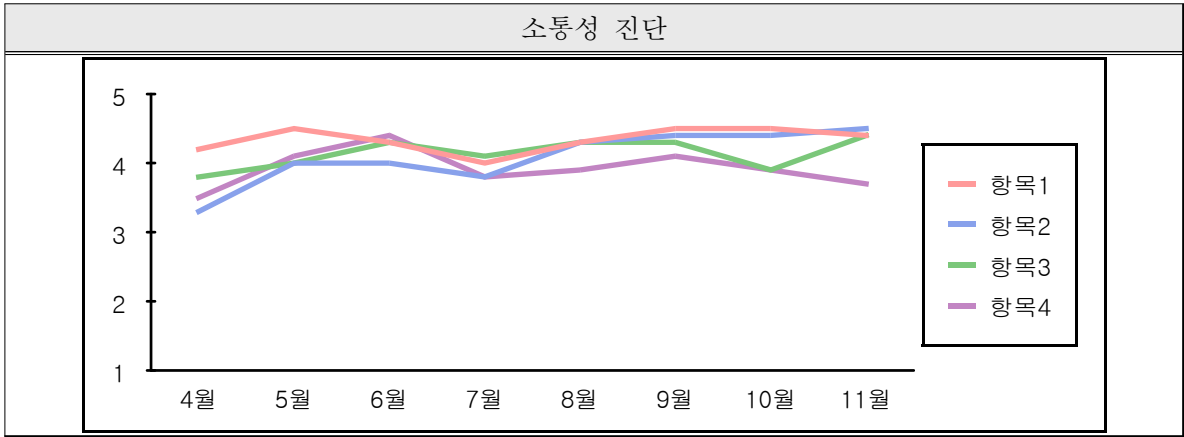


국세청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통성의 네 항목들에 대해서 국세청의 보도 자료는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군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 자료와도 점수 상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따라서 국민과의 소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도 자료의 소통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다면,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확성의 경우 소통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띄어쓰기에서 상당한 오류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이밖에도 맞춤법, 어휘, 어법 항목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에 대한 점검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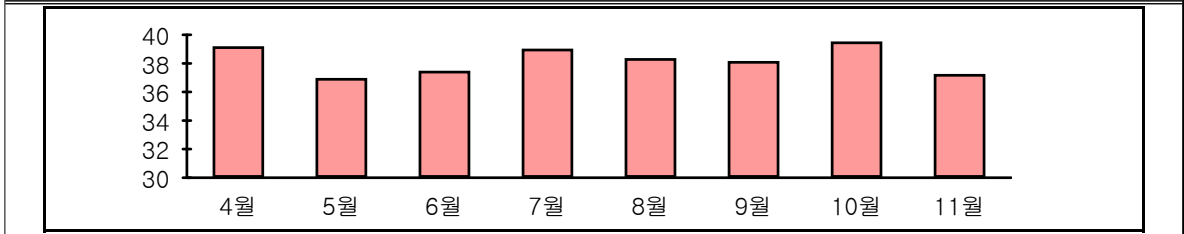
국세청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에서 매번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보도 자료의 수준이 균질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상위 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향후 우수 평가를 받는 보도 자료를 늘리기 위해 좀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공공언어와 관련하여 최상위 기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0. 대검찰청



정확성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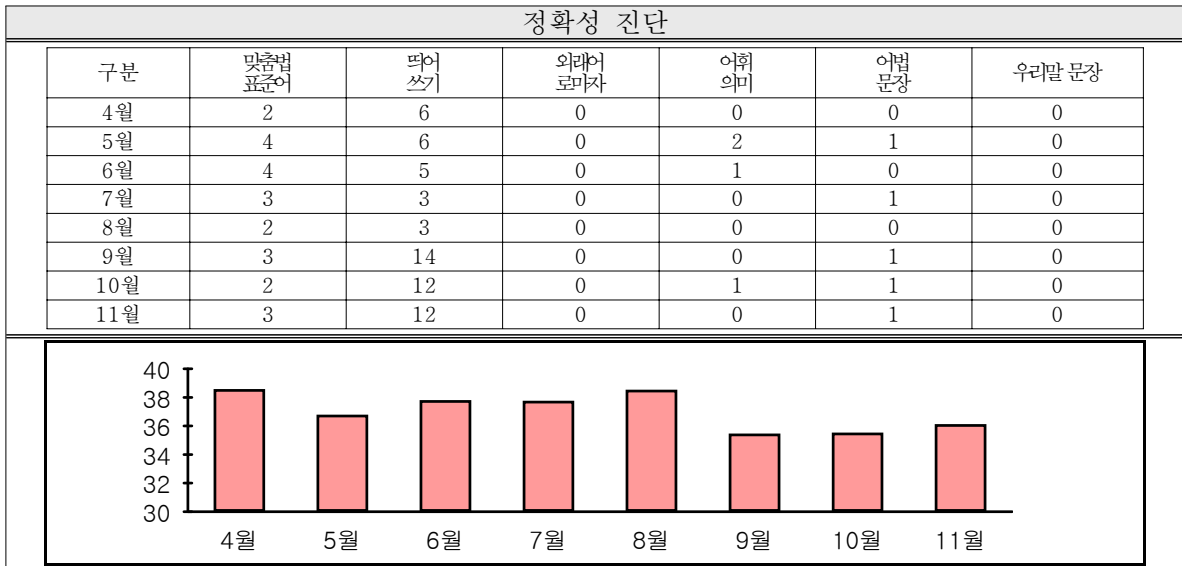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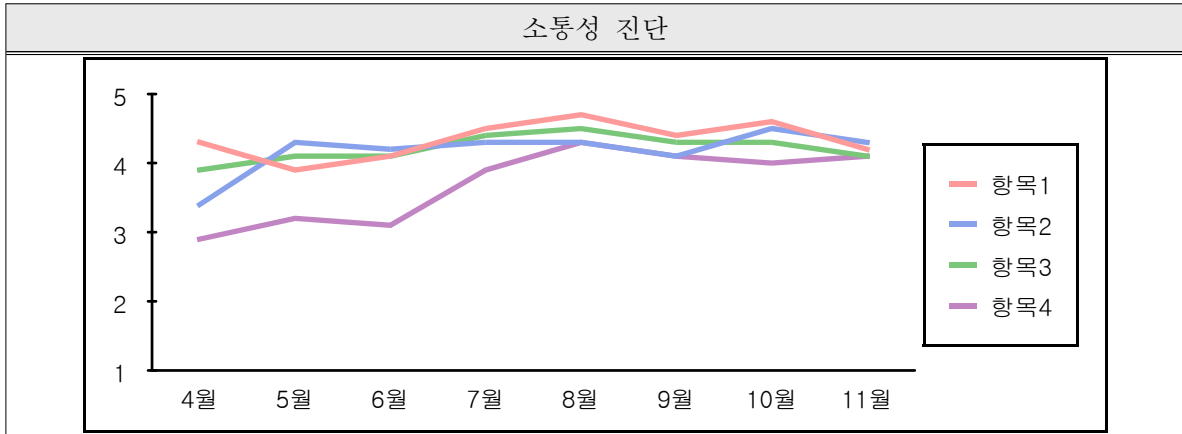
구분	맞춤법 표준어	띄어 쓰기	외래어 로마자	어휘 의미	어법 문장	우리말 문장
4월	5	8	0	0	0	0
5월	2	5	0	1	0	0
6월	1	5	0	1	0	0
7월	0	2	0	0	0	0
8월	0	3	0	0	0	0
9월	0	18	0	1	1	0
10월	5	3	0	0	0	0
11월	1	6	0	0	0	0



대검찰청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우수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소통성의 네 항목들에 대해서 대검찰청의 보도 자료는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미세한 변화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개선의 경향성을 보인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정확성의 경우 띄어쓰기에서 많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 외 맞춤법, 어휘, 어법의 항목 등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오류의 수가 그리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도 자료 작성 시 문장 서술에 유의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질적 수준의 균질적인 향상을 염두에 두면서, 좋은 평가를 받은 타 기관의 보도 자료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21. 방위사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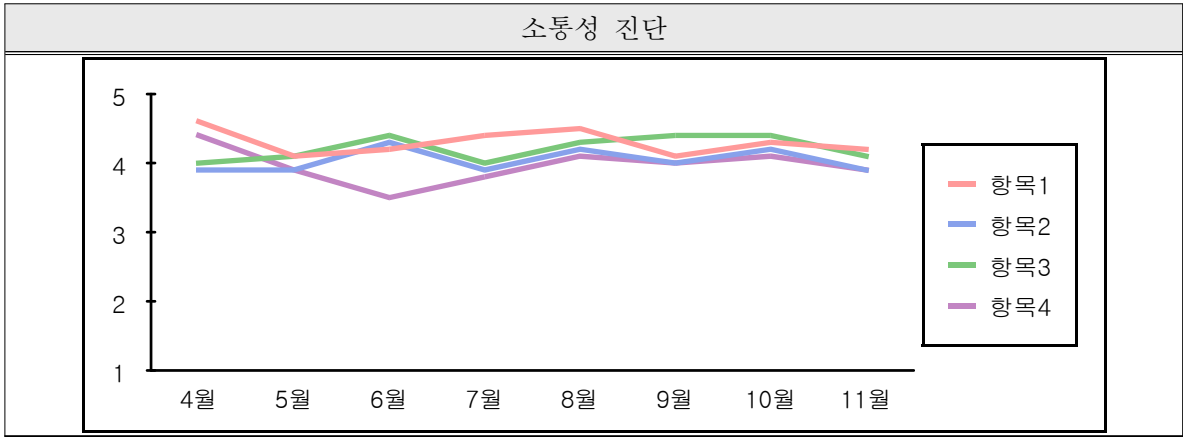
방위사업청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적지 않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통성의 네 항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항목4에 대한 평가는 그 점수가 현저히 낮았다. 항목4는 보도 자료의 전체 구성과 관련되어 있다. 소통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다만, 항목4에 대한 평가 결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내년도 보도 자료에 대해서는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정확성의 경우 맞춤법과 띄어쓰기에서 많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밖에 어휘, 어법 항목에서도 오류가 발견되었다. 문장 서술의 기본적인 원칙을 어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통성도 떨어지게 된다. 정확성과 소통성을 모두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장 서술의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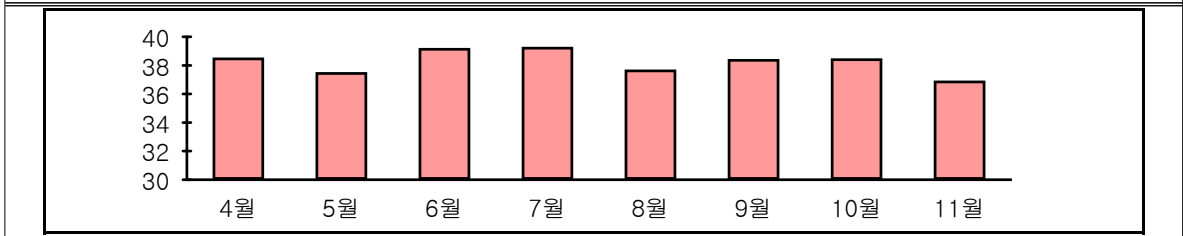
방위사업청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에서 미흡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는 보도 자료의 질적 수준이 타 기관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 기관의 우수 사례를 참조하여 보도 자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2. 법무부



정확성 진단

구분	맞춤법 표준어	띄어 쓰기	외래어 로마자	어휘 의미	어법 문장	우리말 문장
4월	3	7	0	0	1	0
5월	4	8	0	0	3	0
6월	1	1	0	0	1	0
7월	1	6	0	0	0	0
8월	4	6	0	0	0	2
9월	1	17	0	0	0	0
10월	1	9	0	0	0	0
11월	4	11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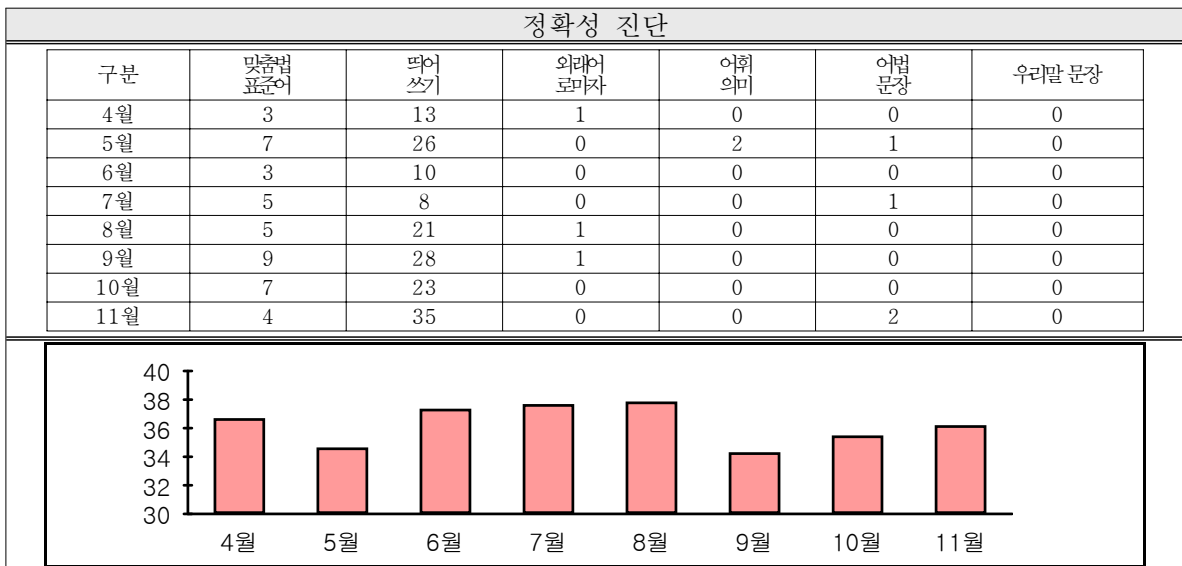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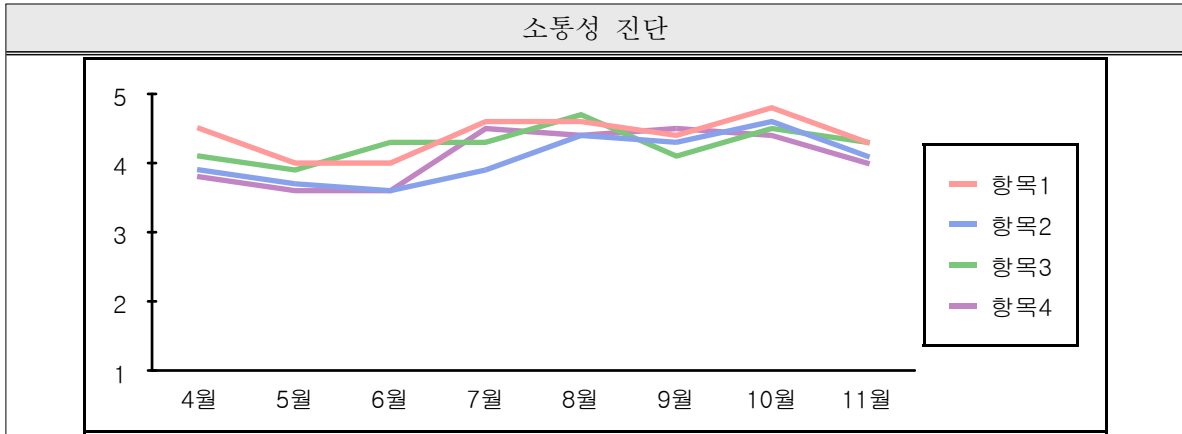


법무부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무난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소통성의 네 항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개선할 점도 있었다. 항목4가 이에 해당하는데, 항목4에 대한 평가 중 그 결과가 다소 낮게 나온 경우가 확인되었다. 보도 자료의 전체 구성과 관련이 있는 항목4는 보도 자료에 대한 평가를 좌우하는 중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보도 자료 전체 구성의 수준을 균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확성의 경우 법무부의 보도 자료는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띄어쓰기에서 지속적으로 오류가 발견되었지만, 타 기관에 비해서는 오류 건수가 적은 편이었다. 여타 항목들에서도 심각한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법무부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보도 자료의 질적 수준이 높으며 균질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많은 보도 자료가 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수 보도 자료를 표본으로 하는 보도 자료 작성 지침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3.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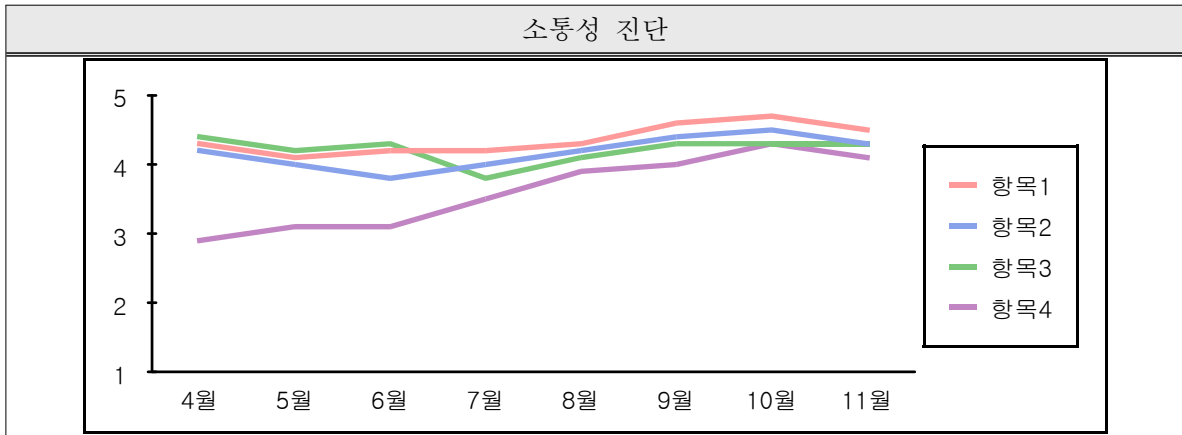


보건복지부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상당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통성의 네 항목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다행인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평가 점수가 미세하게나마 상승했다는 점이다. 이는 고무적인 일이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확성의 경우 맞춤법과 띄어쓰기에서 상당한 오류가 발견되었다.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타 기관에서도 맞춤법과 띄어쓰기에서 주로 오류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오류 건수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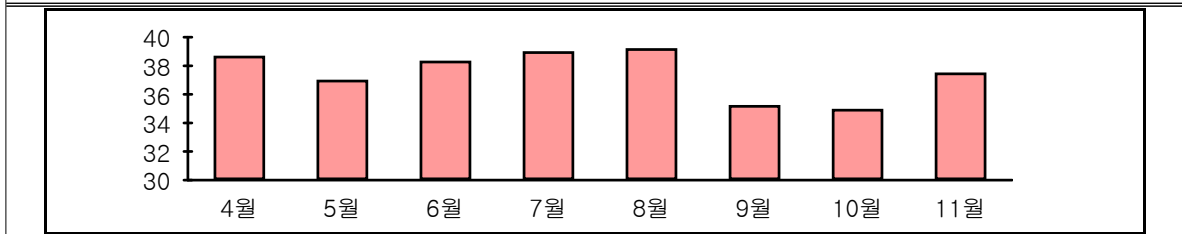
보건복지부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에서 전체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보도 자료가 전반적으로 질적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보도 자료의 전반적인 수준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다.

24. 식품의약품안전처



정확성 진단

구분	맞춤법 표준어	띄어 쓰기	외래어 로마자	어휘 의미	어법 문장	우리말 문장
4월	2	4	0	0	0	0
5월	6	10	0	0	1	0
6월	3	4	0	0	2	0
7월	2	5	0	0	0	0
8월	2	3	0	0	0	0
9월	2	15	0	0	1	0
10월	4	13	0	0	0	0
11월	2	9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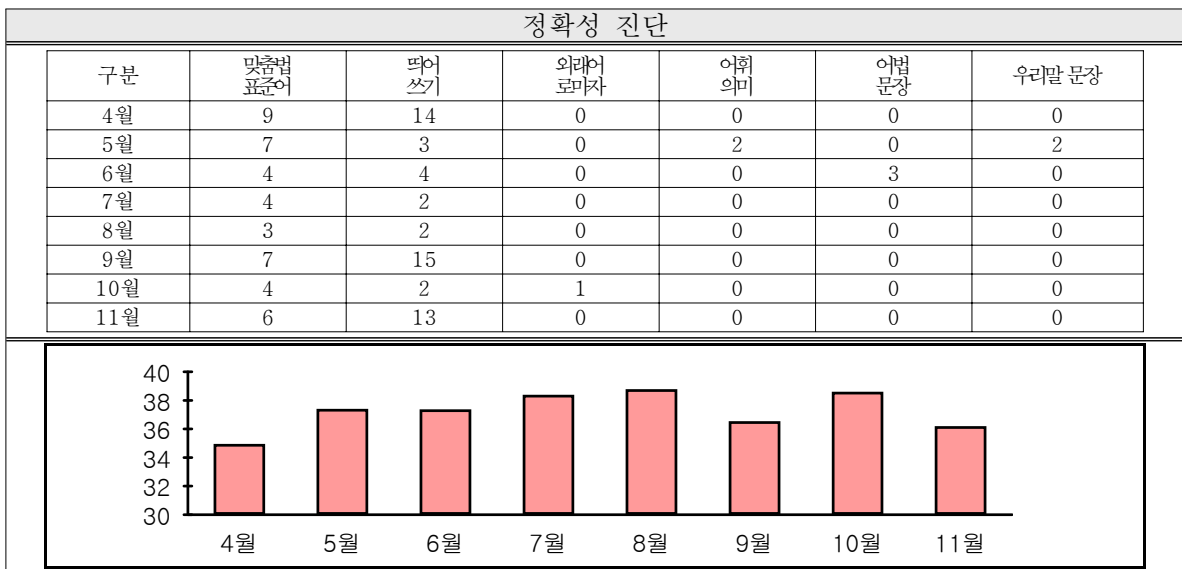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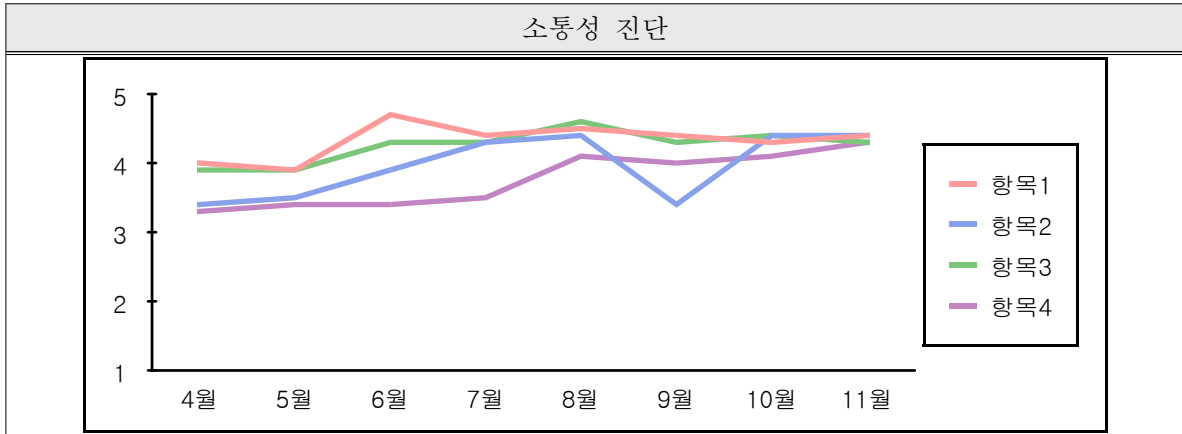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대체로 무난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통성의 네 항목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항목4에 대한 평가 결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향상되어 간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네 항목에서 모두 개선해야 할 여지가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정확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맞춤법과 띄어쓰기에서 꾸준히 오류가 발견된다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 결과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보도 자료 중 질적 수준이 낮은 경우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 수준 높은 보도 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보도 자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계획적 실천이 요구된다.

25. 인사혁신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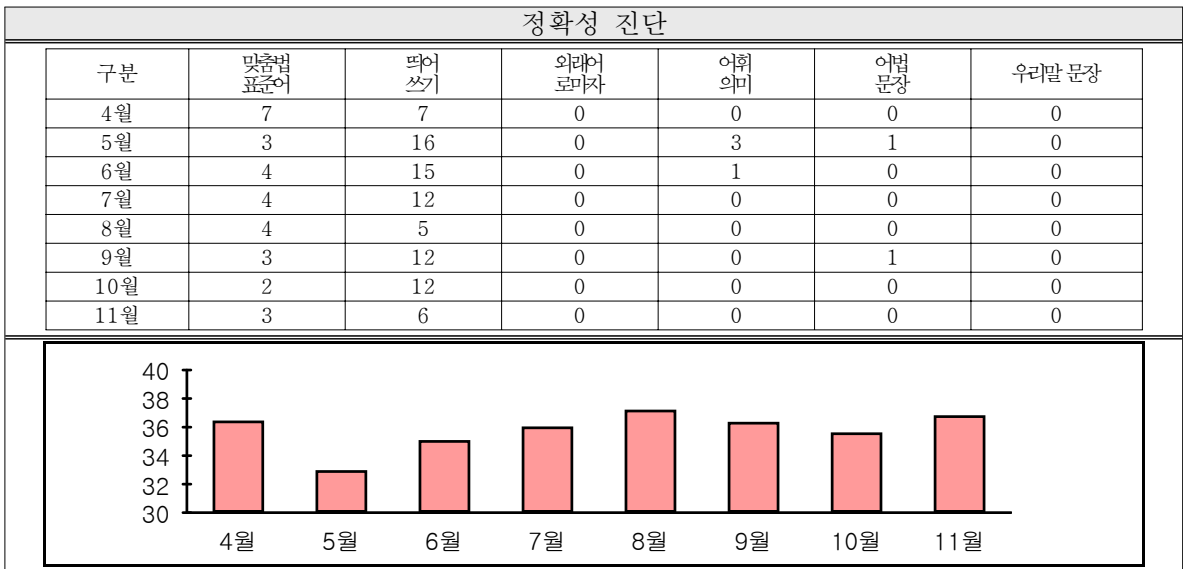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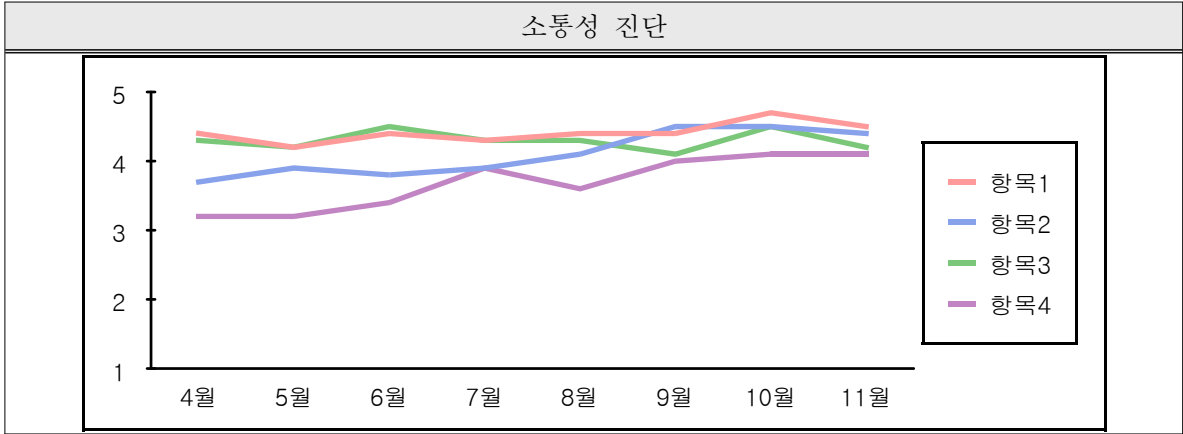
인사혁신처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부분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소통성의 네 항목들에 대해 이 기관의 보도 자료는 대체로 부분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개별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의 폭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보도 자료의 질적 수준이 균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보도 자료의 질적 수준을 균질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정확성의 경우 맞춤법과 띄어쓰기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 타 기관에 비하면 맞춤법의 오류가 많이 발견된 편이다. 이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인사혁신처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을 때도 있었다. 이는 보도 자료 간의 질적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수 평가를 받은 보도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보도 자료의 전반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계획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26. 조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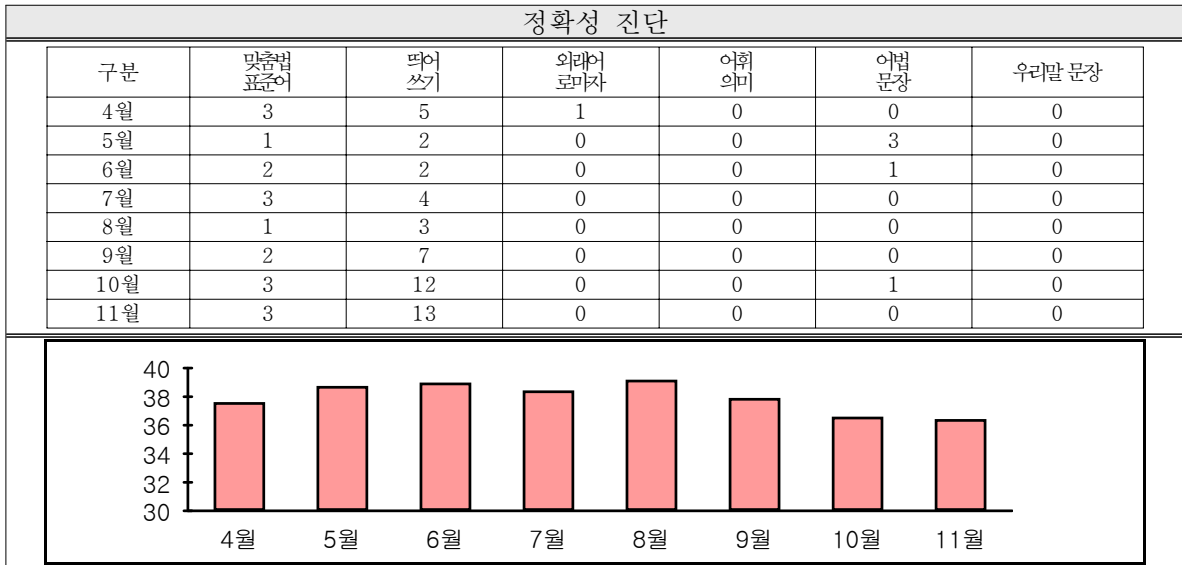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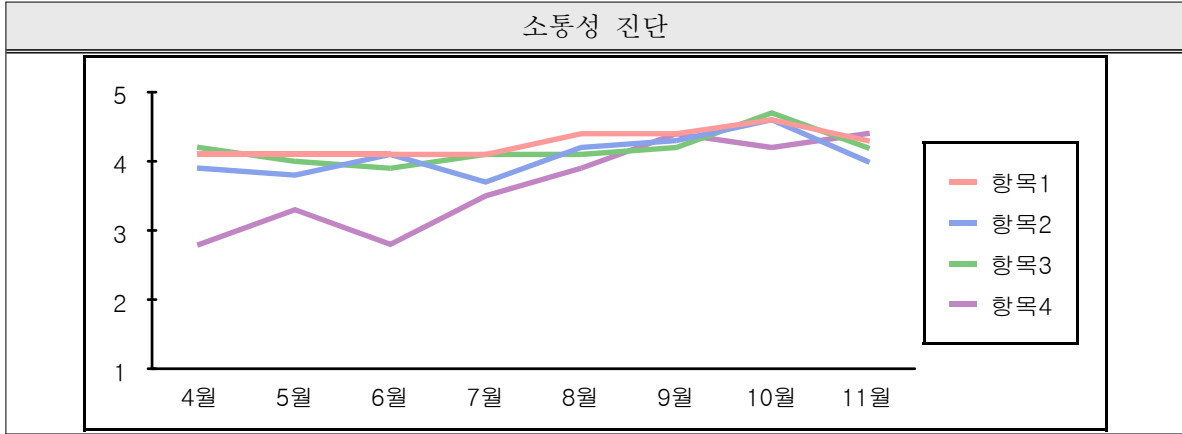


조달청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적지 않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통성의 네 항목들에 대해서 이 기관은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전히 소통성 항목의 점수가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정확성의 경우 맞춤법과 띄어쓰기에서 많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타 기관 또한 이 항목에서 주로 오류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조달청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 아울러 어휘, 어법 항목의 오류도 고려해야 한다.

조달청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에서 매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보도 자료가 전반적으로 질적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보도 자료의 전반적인 수준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다.

27.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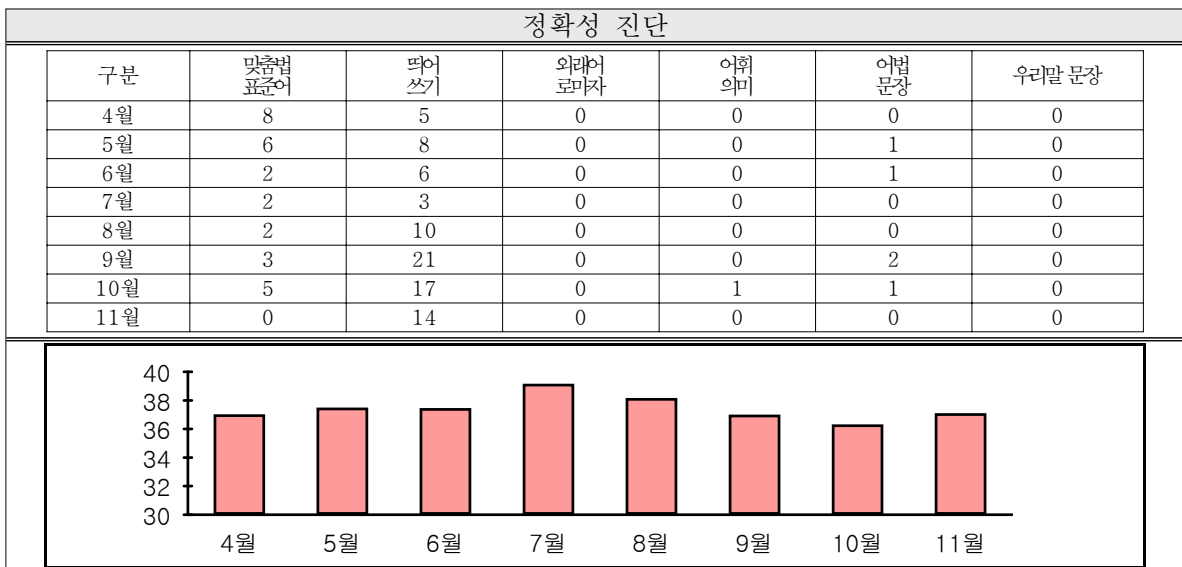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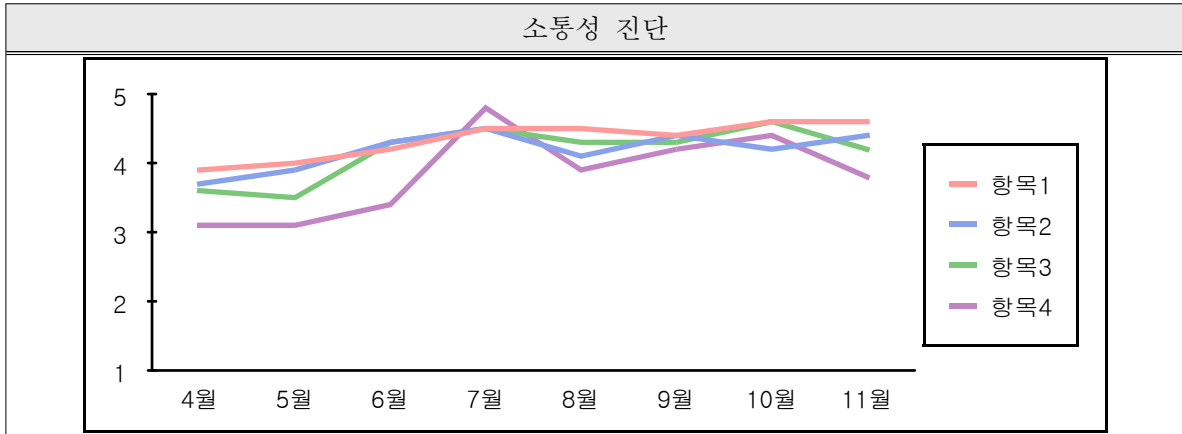


해양수산부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소통성의 네 항목들에 대해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적인 평가 점수가 높지 않으므로, 앞으로 소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반면 정확성의 경우에는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맞춤법과 띄어쓰기에서 오류가 발견되기는 했지만,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그러나 오류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어법 항목에서도 간헐적으로 오류가 발견된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해양수산부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전체적으로는 보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우수 평가를 받은 보도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보도 자료의 전반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계획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28.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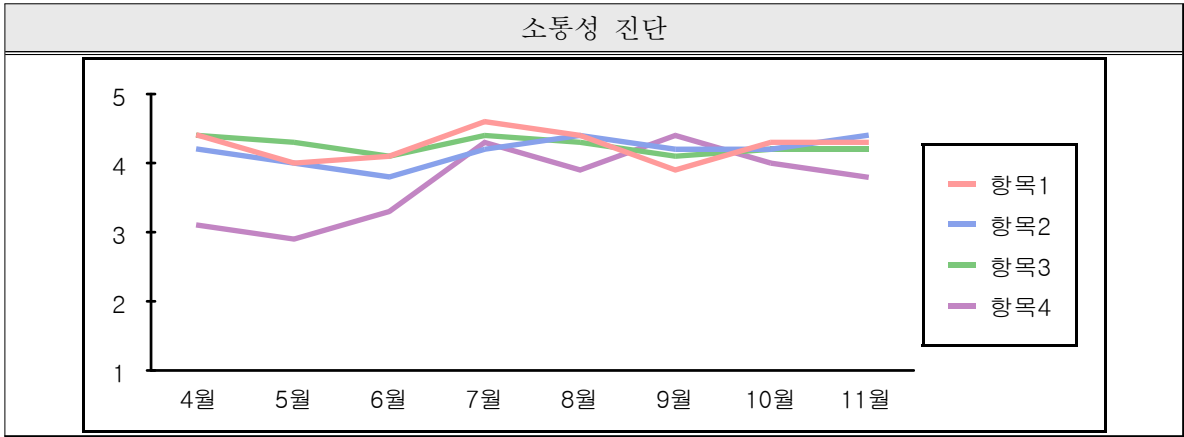


행정자치부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통성의 순위와 정확성의 순위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여타 기관 평가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결과이다.

소통성의 네 항목들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의 보도 자료는 모두 낮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적인 평가 점수가 낮으므로, 앞으로 소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도 자료 작성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확성의 경우 무난한 평가를 받았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오류가 확인되었고, 그 밖에 어휘, 어법 항목에서도 오류가 발견되었다. 어휘, 어법 항목의 오류는 주로 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에서 발견되는 오류이므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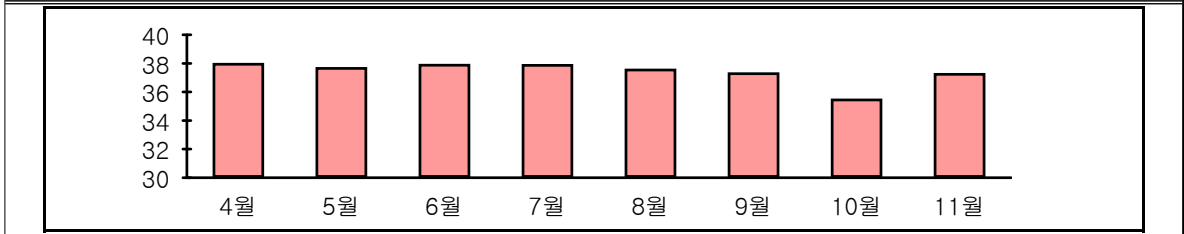
행정자치부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보도 자료의 질적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수 평가를 받은 타 기관의 보도 자료를 참조하여, 보도 자료의 전반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계획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29. 환경부



정확성 진단

구분	맞춤법 표준어	띄어 쓰기	외래어 로마자	어휘 의미	어법 문장	우리말 문장
4월	5	4	0	0	0	0
5월	3	8	0	0	1	0
6월	3	8	0	0	0	0
7월	3	7	0	0	0	0
8월	5	9	0	0	0	0
9월	4	9	0	0	2	0
10월	8	18	0	0	1	0
11월	4	8	1	0	0	0



환경부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부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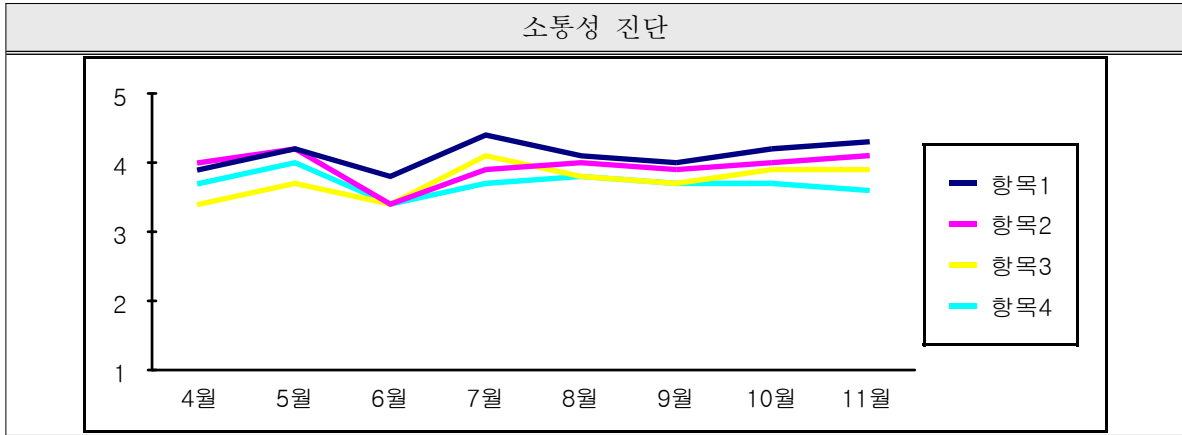
소통성의 네 항목들에 대해서 그 평가 결과가 좋지지는 않았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적인 평가 점수가 높지 않으므로, 앞으로 소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도 자료 작성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확성의 경우도 심각한 문제는 없지만, 그렇다고 평가 결과가 좋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오류가 확인되었고, 그 밖에 외래어, 어법 항목에서도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환경부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에서 한 차례 우수 평가를 받았고, 미흡 평가는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도 자료의 수준이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보도 자료의 전반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보도 자료 작성 지침과 같은 기준안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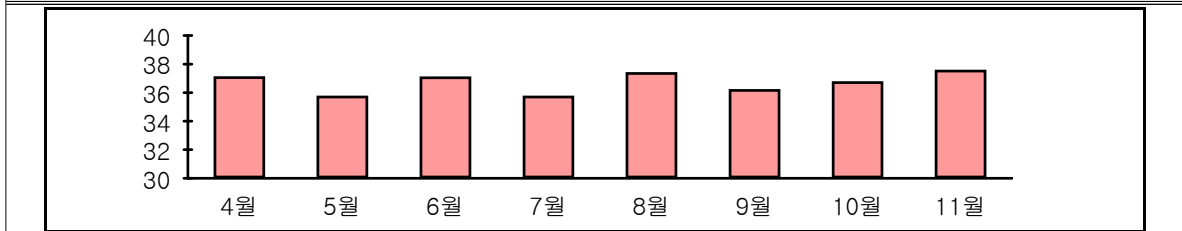
□ 다균

30. 고용노동부



정확성 진단

구분	맞춤법 표준어	띄어쓰기	외래어 로마자	어휘 의미	어법 문장	우리말 문장
4월	9	5	0	0	0	0
5월	12	23	0	0	5	0
6월	6	6	1	0	5	1
7월	8	12	0	0	0	0
8월	6	11	0	0	1	0
9월	5	29	1	0	0	1
10월	6	12	0	0	1	0
11월	5	10	0	0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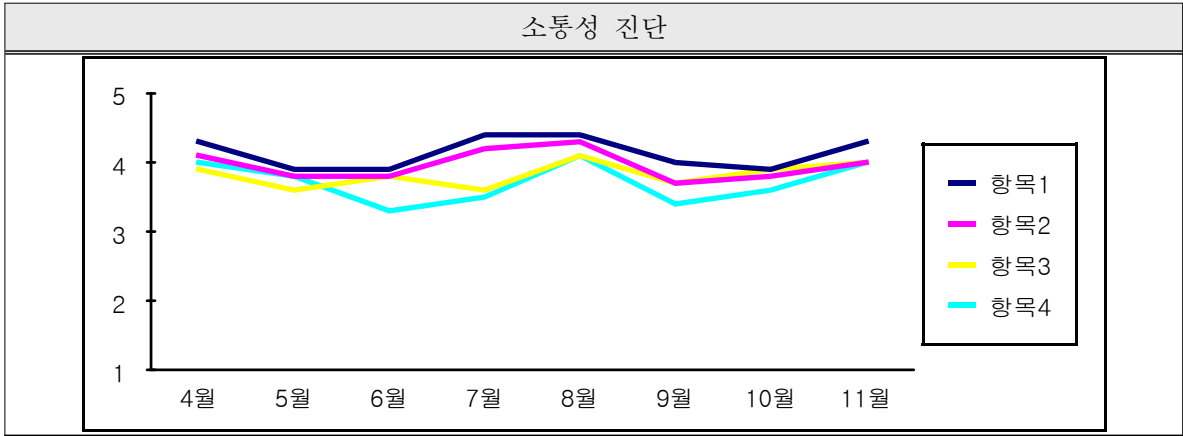


고용노동부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우수한 편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통성의 네 항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항목 별 편차도 크지 않았고, 평가 기간 별 편차도 크지 않았다. 정확성의 경우 맞춤법과 띄어쓰기에서 주로 오류가 발견되었다. 순위 상으로는 상위에 속하지만 오류의 건수는 적지 않았다. 더불어 어법 항목에서도 적지 않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주의를 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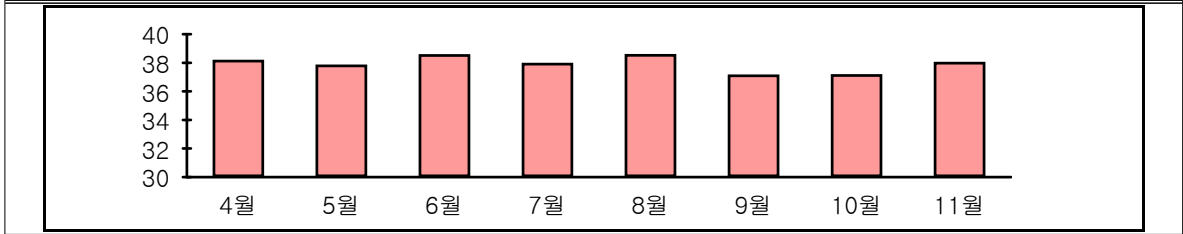
고용노동부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에서 우수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렇게 평가에 일관성이 없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보도 자료의 전반적인 수준을 균질하게 유지하기 위해 보도 자료 작성 지침과 같은 기준안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1. 관세청



정확성 진단

구분	맞춤법 표준어	띄어 쓰기	외래어 로마자	어휘 의미	어법 문장	우리말 문장
4월	1	5	0	0	0	0
5월	2	5	0	0	1	0
6월	2	2	0	0	1	0
7월	3	4	0	0	1	0
8월	2	1	0	0	2	0
9월	0	9	0	0	2	0
10월	3	8	1	0	0	0
11월	1	3	0	0	2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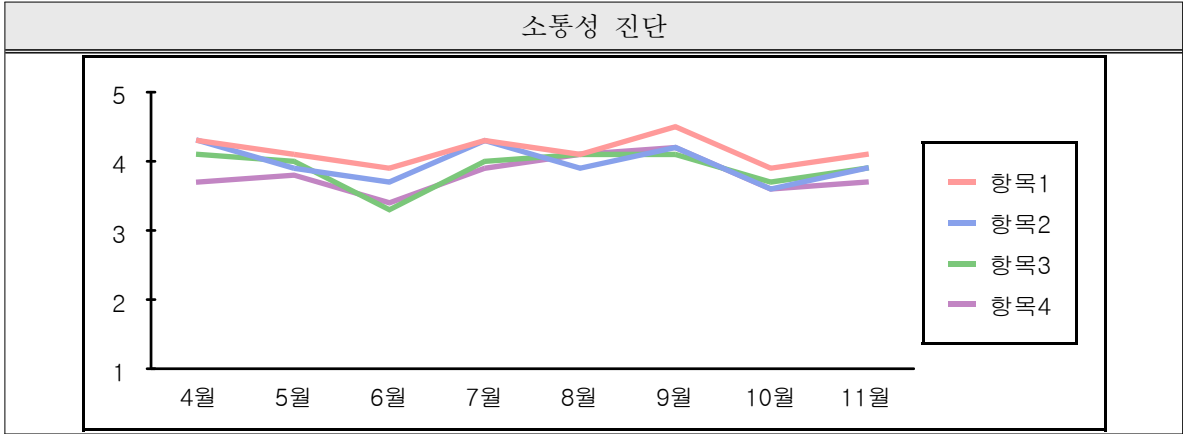


관세청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군의 수위에 오른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 공공기관 보도 자료 작성의 표준을 제시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소통성의 네 항목들은 모두 우수했다. 6월과 9월의 일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11월까지 꾸준히 높은 점수를 유지했다. 정확성의 경우에도 타 기관과 비교하면 나무랄 데 없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9월과 10월 보도 자료의 정확성 평가에서는 띄어쓰기의 오류가 많이 발견되었다. 보도 자료를 작성할 때마다 항상 기본적인 문장 구성의 측면부터 꼼꼼히 따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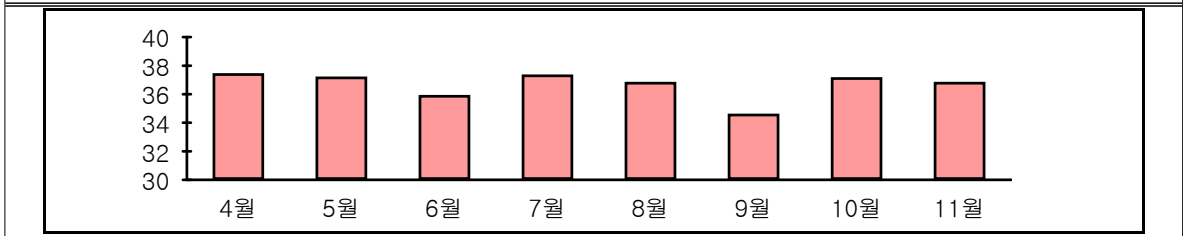
관세청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에서 매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이 기관의 보도 자료가 질적으로 매우 우수하며 또한 그 수준이 균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보도 자료의 표준으로서 질적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줄 것을 당부한다.

32. 교육부



정확성 진단

구분	맞춤법 표준어	띄어 쓰기	외래어 로마자	어휘 의미	어법 문장	우리말 문장
4월	5	10	0	0	1	0
5월	4	12	1	0	0	0
6월	9	9	1	0	1	2
7월	2	8	0	0	1	1
8월	4	12	0	0	0	1
9월	4	22	0	0	5	0
10월	3	12	0	0	1	1
11월	5	13	0	0	2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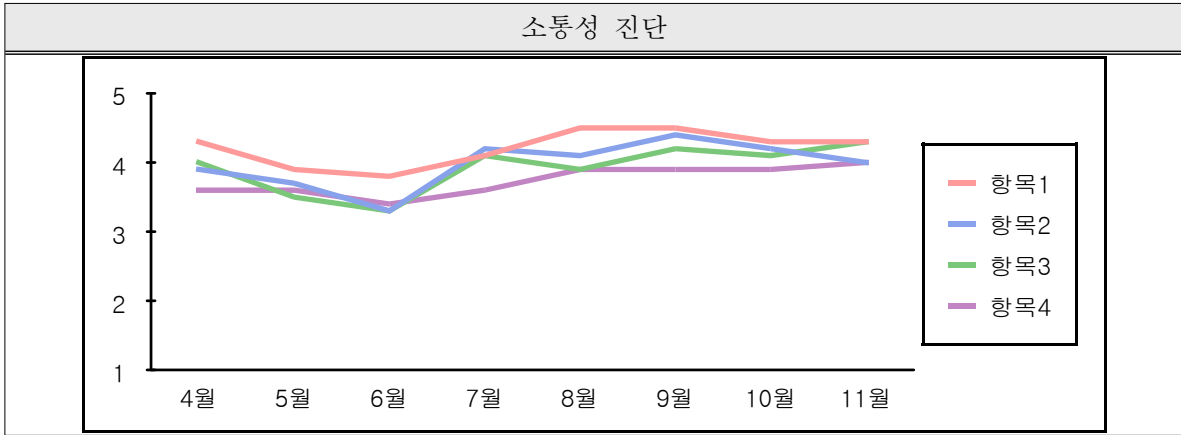


교육부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무난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소통성에서는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정확성 평가에서 다소 오류가 발견된 점은 아쉽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통성의 네 항목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별히 지적할 점이 없다. 그러나 정확성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정확성 진단 항목 대부분의 영역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 대체로 상위권 기관들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제외하면 오류가 잘 발견되지 않는데, 교육부 보도 자료의 경우 외래어, 어법, 우리말 문장 등의 항목에서도 오류가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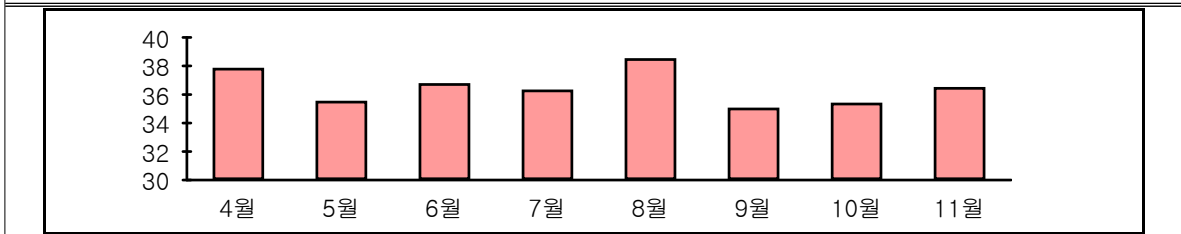
교육부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에서 우수하다는 평이 많았다. 이는 보도 자료의 질적 수준이 높으며 균질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많은 보도 자료가 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수 보도 자료를 표본으로 하는 보도 자료 작성 지침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33. 국토교통부



정확성 진단

구분	맞춤법 표준어	띄어쓰기	외래어 로마자	어휘 의미	어법 문장	우리말 문장
4월	6	5	0	0	0	0
5월	10	21	0	1	2	1
6월	7	7	0	0	2	0
7월	7	8	0	0	2	0
8월	2	5	0	0	5	0
9월	9	29	0	0	0	1
10월	9	16	0	0	0	1
11월	6	10	0	0	3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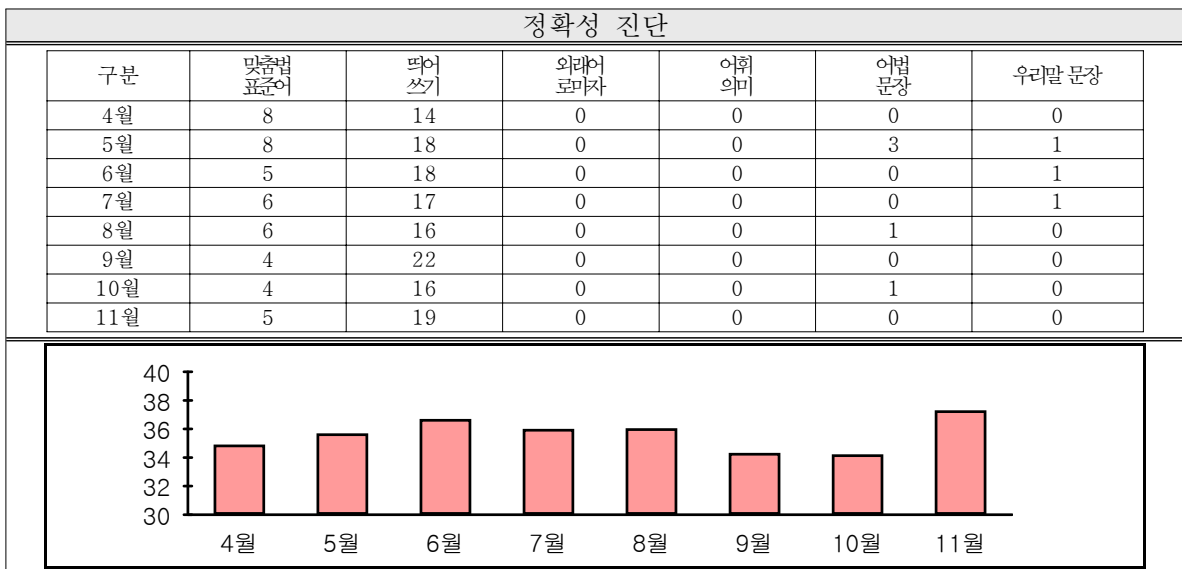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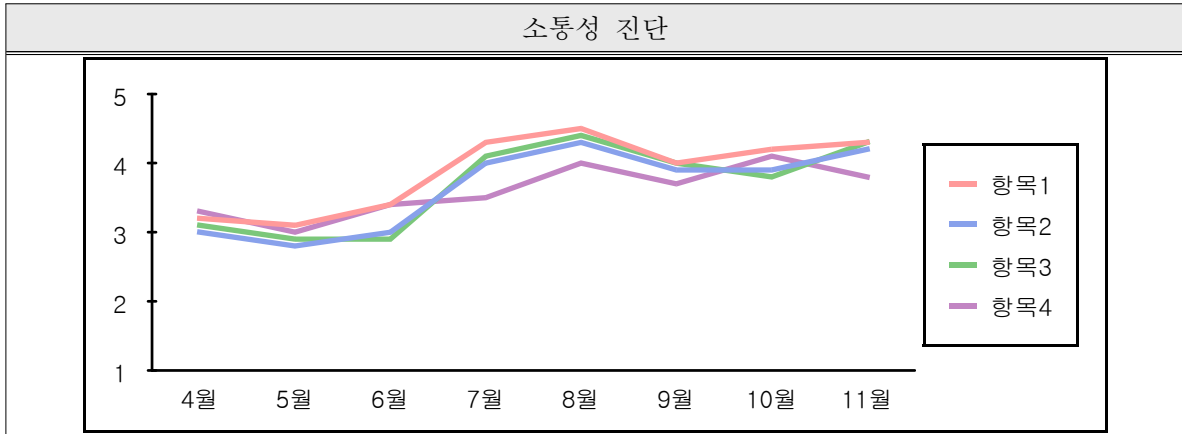


국토교통부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통성의 네 항목들에 대해서 국세청의 보도 자료는 평균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 항목 별 편차는 크지 않았으나, 기간 별로 비교해보면 6월 보도 자료가 평균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는 대체로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 정확성의 경우 소통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쁜 평가를 받았다. 띄어쓰기에서 상당한 오류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이밖에도 맞춤법, 어법 항목에서 오류가 많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한 점검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전체적으로는 보통 수준에 그친 것이 아쉽다. 하지만 이는 보도 자료의 수준이 균질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우수 평가를 받는 보도 자료를 늘리기 위해 좀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공공언어와 관련하여 최상위 기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34.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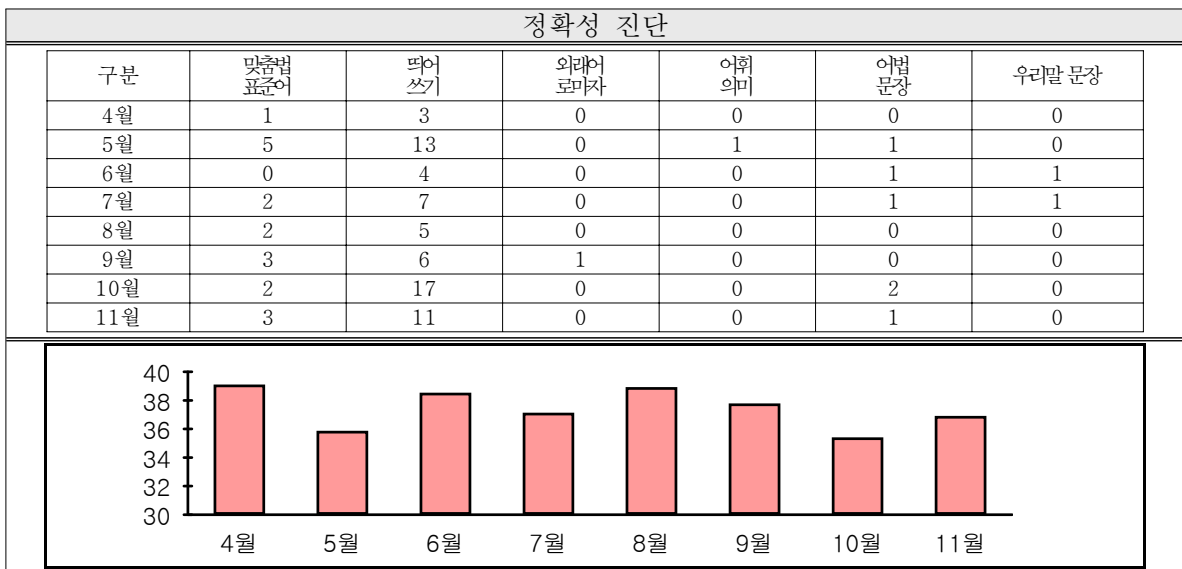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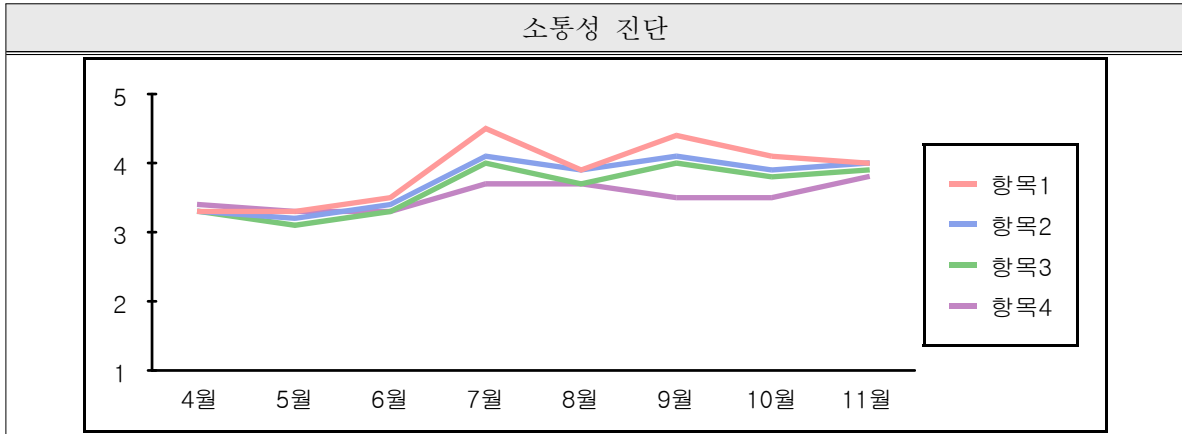


금융위원회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상당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통성과 정확성 면에서 보도 자료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소통성의 네 항목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대체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개선되는 면모를 보여준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네 항목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확성의 경우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적지 않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 외 어법, 우리말 문장 항목에서도 오류가 확인되었다. 이 항목들은 타 기관에서 오류가 잘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보도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계획적인 노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에서 매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기관 보도 자료의 수준이 심각하게 낮으며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관의 특성 상 보도 자료로 쉽게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히 보도 자료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나가야 한다.

35.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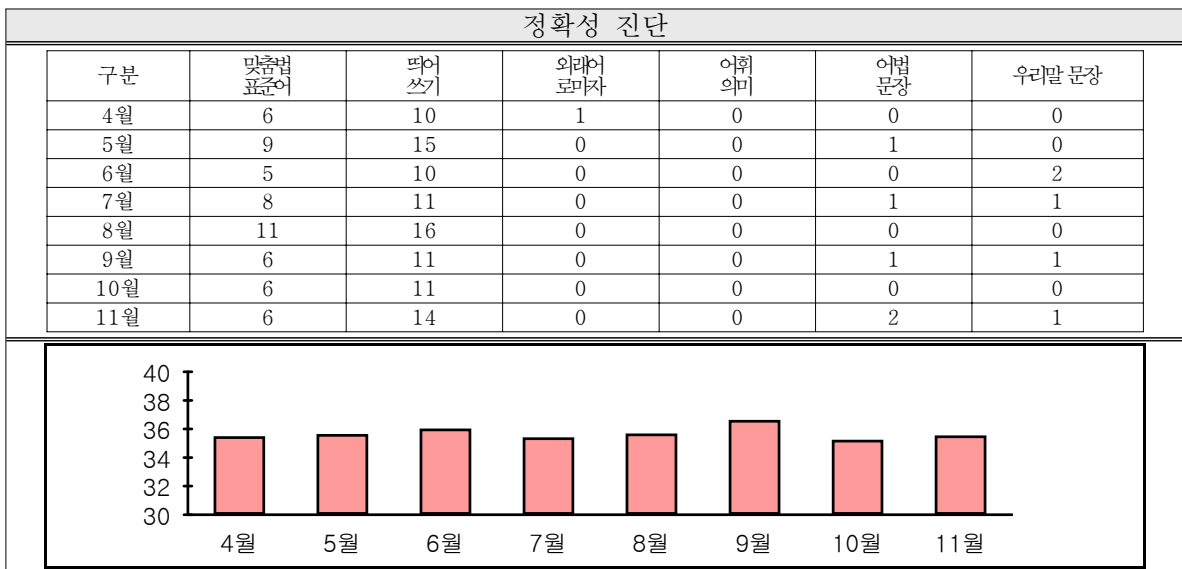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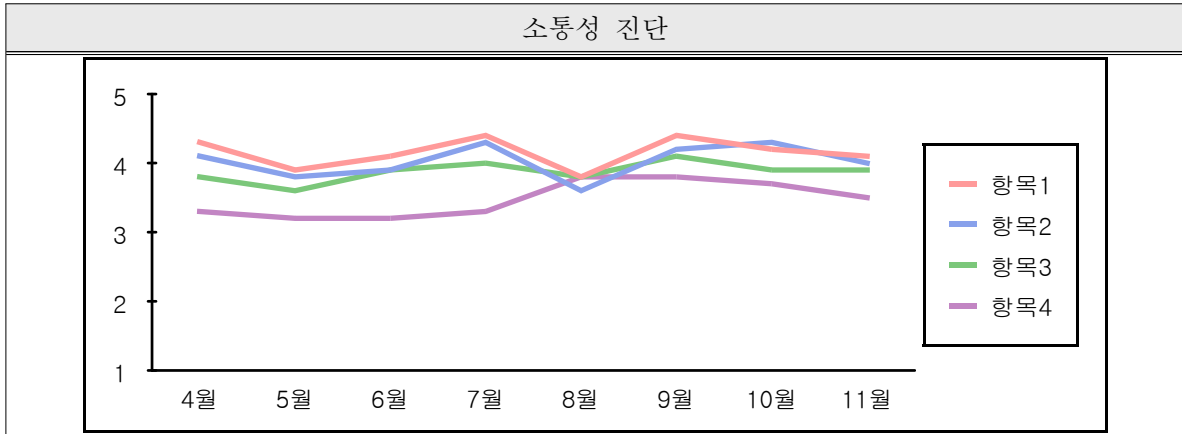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상당한 수준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통성의 네 항목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이 되는 모습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여전히 네 항목 전반에 걸쳐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의외인 것은 종합 평가에서 낮은 순위에 그쳤음에도 정확성은 매우 높다는 것이다. 타 기관과 비교할 때, 비록 오류 건수가 여러 항목에 걸쳐 두루 발생하기는 했지만, 특정 항목에 오류 건수가 집중되어 있지 않은 편이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기본적으로 보도 자료 작성의 원칙을 잘 준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통성만 강화한다면 단기間に 순위 상승이 이루어지리라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정확성과 소통성에서 일관된 평가였는데 앞으로 미흡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완성도 높은 보도 자료 작성을 위해 노력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필히 보도 자료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36.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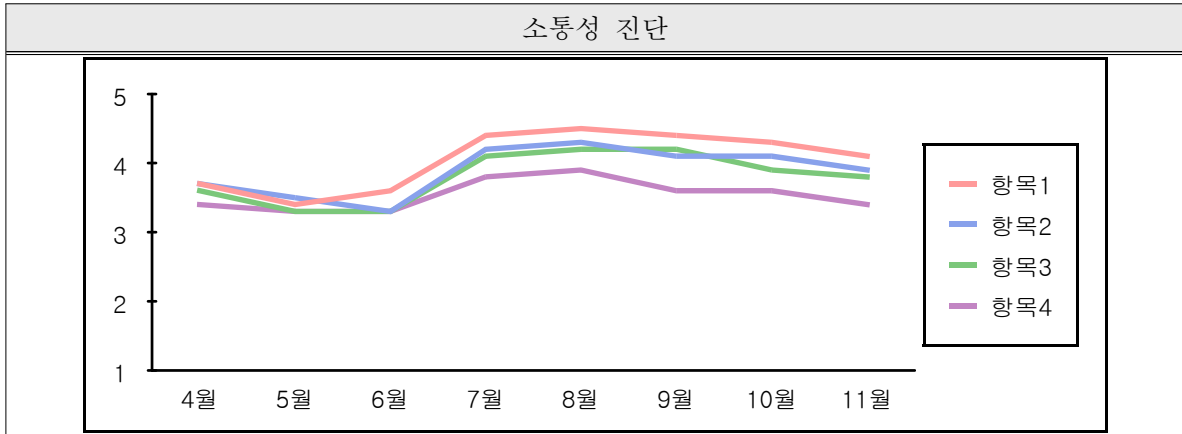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고 판단할 수 있다.

소통성의 네 항목들에 대해서 이 기관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지도 않는다. 앞으로 소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반면 정확성은 소통성에 비해 조금 나은 평가를 받았다. 맞춤법과 띄어쓰기에서 오류가 발견되기는 했지만, 타 기관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오류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어법 항목에서도 간헐적으로 오류가 발견된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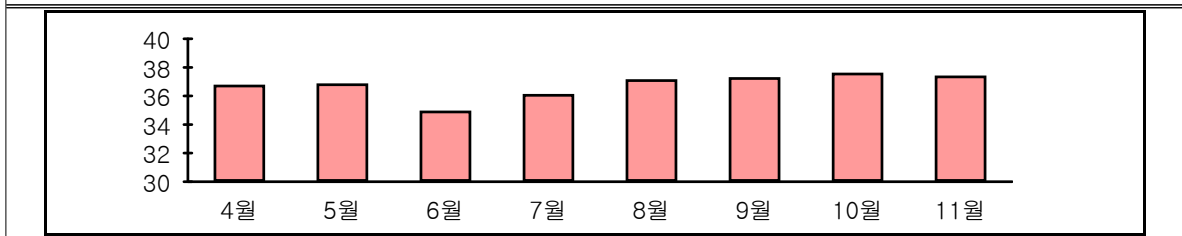
우수 평가를 받은 타 기관의 보도 자료를 참고하여, 보도 자료의 전반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계획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37. 미래창조과학부



정확성 진단

구분	맞춤법 표준어	띄어 쓰기	외래어 로마자	어휘 의미	어법 문장	우리말 문장
4월	9	10	0	0	0	0
5월	5	11	0	0	2	0
6월	8	14	0	0	1	3
7월	8	15	1	0	2	1
8월	8	18	0	0	2	0
9월	4	10	1	0	2	0
10월	6	5	1	0	2	1
11월	4	10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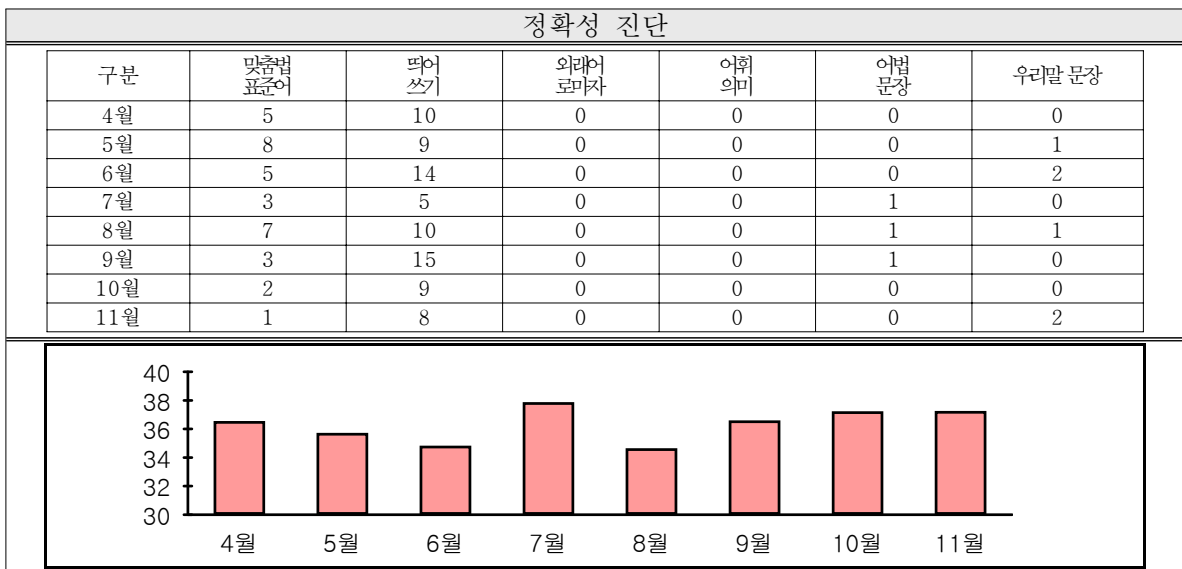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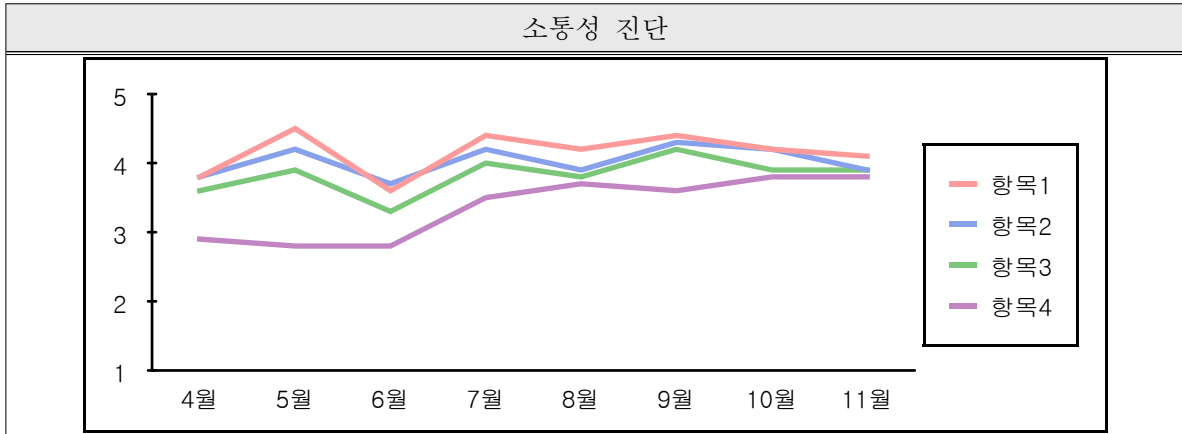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확성은 평균 이상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나 소통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소통성의 순위와 정확성의 순위가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여타 기관 평가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결과이다.

소통성의 네 항목들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 자료는 대체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초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통성이 개선되었지만, 7월 이후에는 소통성 개선이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소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도 자료 작성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확성의 경우 무난한 평가를 받았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오류가 확인되었고, 그 밖에 외래어, 어법, 우리말 문장 항목에서도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들 항목의

오류는 주로 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에서 발견되는 것이므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보도 자료의 질적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수 평가를 받은 타 기관의 보도 자료를 참조하여, 보도 자료의 전반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계획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38. 방송통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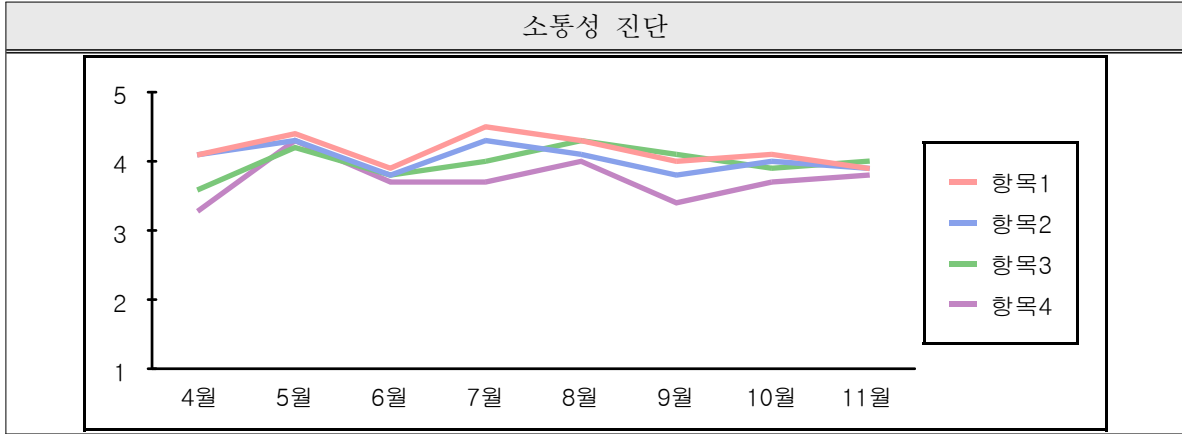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부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소통성 평가보다 정확성 평가에서 소통성의 네 항목들에 대해서 그 평가 결과가 나쁘지는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또한 고무적이다. 그러나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소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도 자료 작성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확성의 경우는 평가 결과가 좋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오류가 확인되었고, 그 밖에 어법, 우리말 문장 항목에서도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는 이 기관 보도 자료의 질적 수준이 균질하지 못하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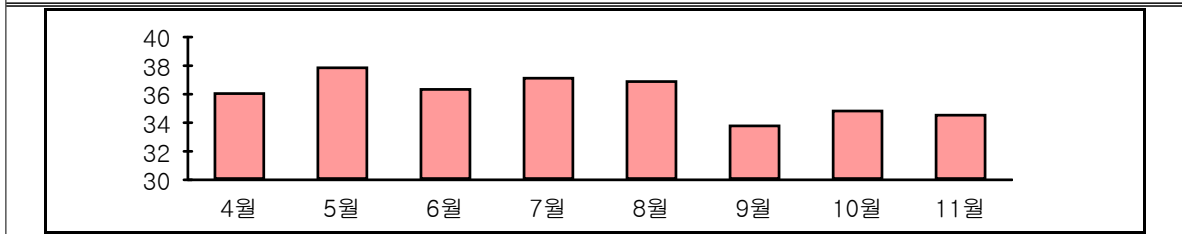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인 수준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보도 자료에 따라 질적 수준에 차이가 나는 현상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보도 자료의 전반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보도 자료 작성 지침과 같은 기준안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9. 산업통상자원부



정확성 진단

구분	맞춤법 표준어	띄어 쓰기	외래어 로마자	어휘 의미	어법 문장	우리말 문장
4월	10	15	0	0	0	0
5월	2	7	0	1	1	0
6월	6	13	0	0	1	0
7월	6	5	0	0	4	1
8월	5	7	0	0	2	0
9월	6	24	7	0	7	1
10월	9	14	0	0	3	0
11월	7	14	0	0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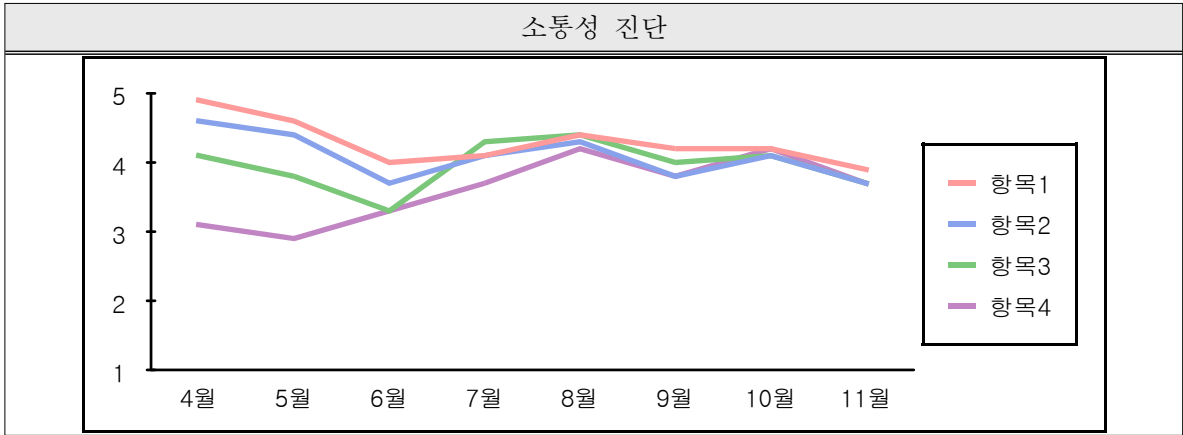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부분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확성과 소통성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소통성의 네 항목들에 대해 이 기관의 보도 자료는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보도 자료의 질적 수준을 균질하게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정확성의 경우 맞춤법과 띄어쓰기에서 오류가 많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타 기관에 비해 외래어, 어법 항목에서의 오류가 빈번한 점 또한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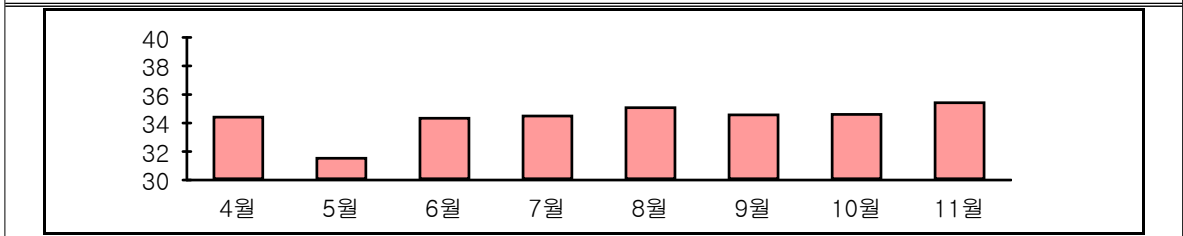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는 보도 자료 간의 질적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수 평가를 받은 보도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보도 자료의 전반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계획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40. 외교부



정확성 진단

구분	맞춤법 표준어	띄어쓰기	외래어 로마자	어휘 의미	어법 문장	우리말 문장
4월	6	15	0	0	0	0
5월	8	19	0	0	0	0
6월	5	24	1	0	0	0
7월	3	15	0	0	4	2
8월	3	17	2	0	1	1
9월	10	25	2	0	2	0
10월	7	24	0	0	0	1
11월	5	17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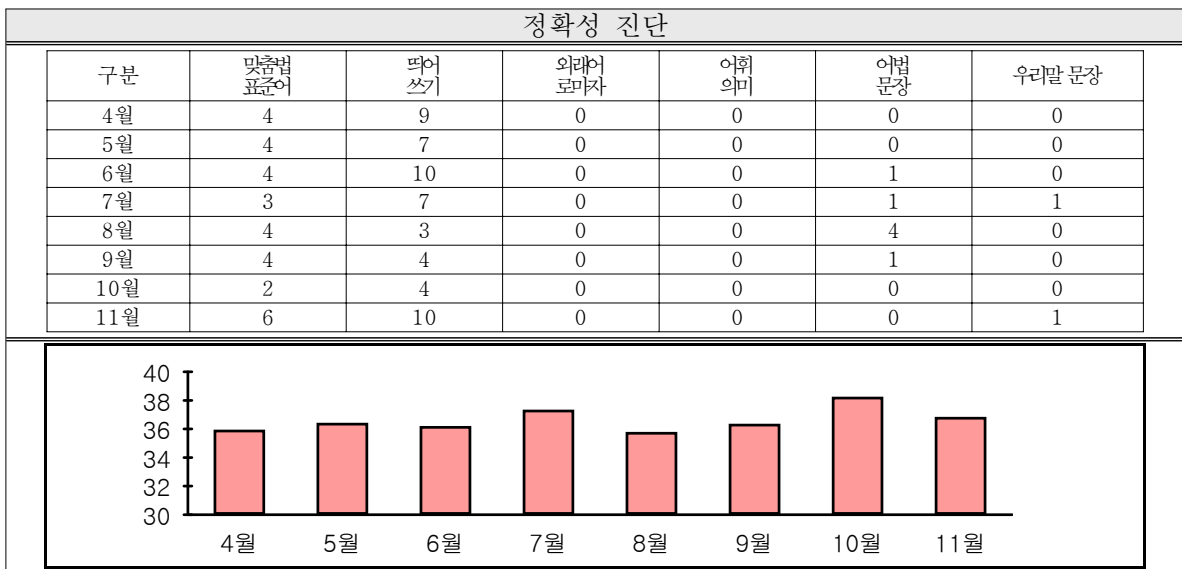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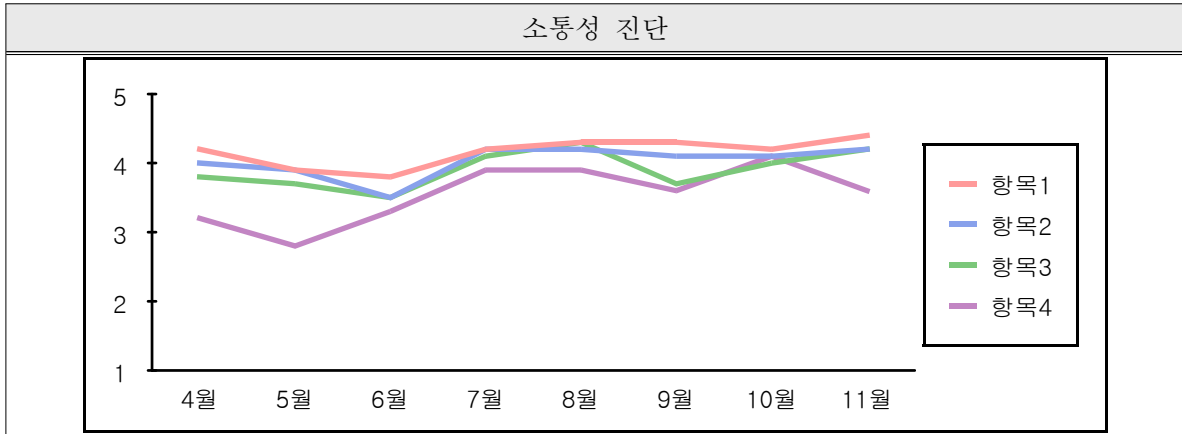


외교부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상당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통성의 네 항목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다행인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평가 점수가 상승했다는 점이다. 이는 고무적인 일이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정확성의 경우 맞춤법과 띄어쓰기에서 상당한 오류가 발견되었다.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타 기관에서도 맞춤법과 띄어쓰기에서 주로 오류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외교부의 경우에는 오류 건수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기타 항목에서도 오류가 적지 않다. 이 또한 항상 경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에서 전체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이는 보도 자료가 전반적으로 질적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보도 자료의 전반적인 수준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다.

41. 원자력안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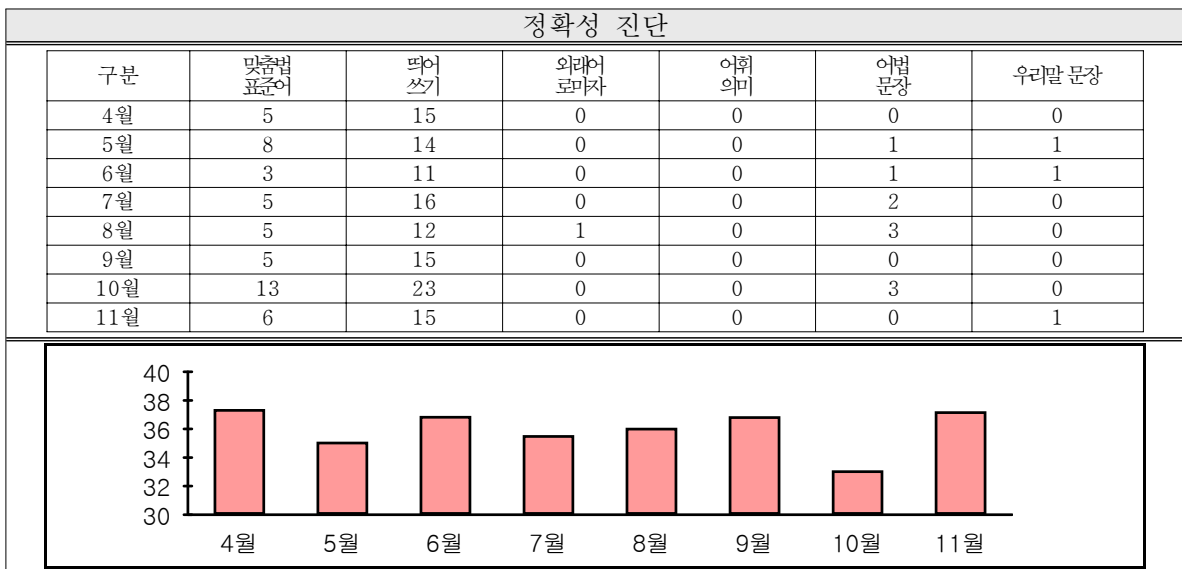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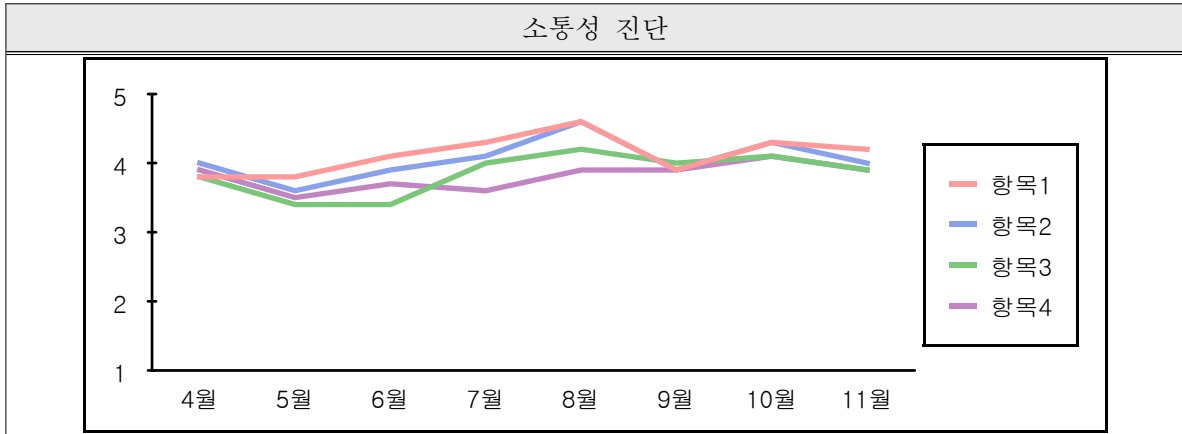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적지 않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소통성의 경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소통성의 네 항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항목4에 대한 평가는 그 점수가 현저히 낮았다. 항목4는 보도 자료의 전체 구성과 관련되어 있다. 소통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항목4에 대한 평가 결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진다는 점이다. 내년도 보도 자료에 대해서는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정확성의 경우 맞춤법과 띄어쓰기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밖에 어법, 우리말 문장 항목에서도 오류가 발견되었다.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여러 항목에 고루 걸쳐 있다. 오류 건수를 줄이는 노력이 요청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나 반대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는 보도 자료 간의 질적 수준에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수 평가를 받은 보도 자료와 타 기관의 우수 사례를 참조하여 보도 자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42. 중소기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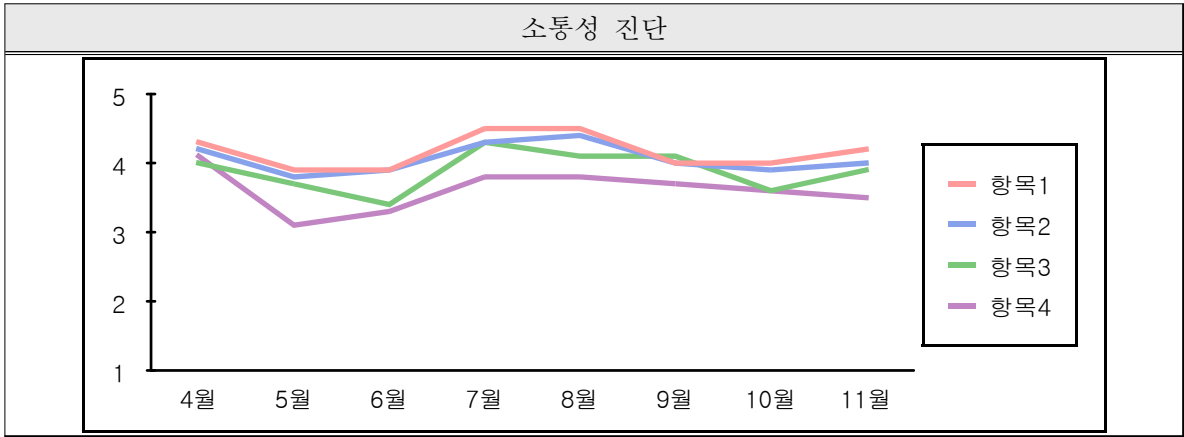
중소기업청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통성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네 항목 모두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미세하게나마 소통성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정확성의 경우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외래어, 어법, 우리말 문장 등의 항목에서 모두 오류가 발생했다. 특히 어법 항목에 해당하는 오류가 많았다. 이 항목들은 여타 기관에서 오류가 잘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또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청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에서 두 차례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한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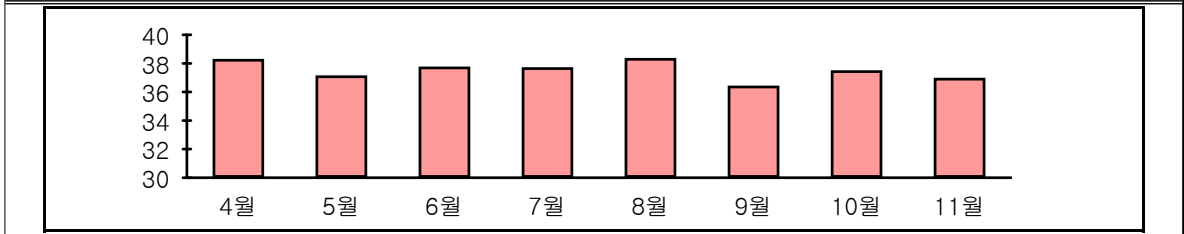
레 미흡 평가를 받았다. 보도 자료의 질적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수 평가를 받은 보도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보도 자료의 전반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계획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43. 통계청



정확성 진단

구분	맞춤법 표준어	띄어 쓰기	외래어 로마자	어휘 의미	어법 문장	우리말 문장
4월	3	14	0	0	0	0
5월	3	4	0	0	2	1
6월	1	6	0	0	0	0
7월	3	3	0	0	0	2
8월	2	1	0	0	1	0
9월	3	19	0	0	2	0
10월	0	6	0	0	2	0
11월	4	8	0	0	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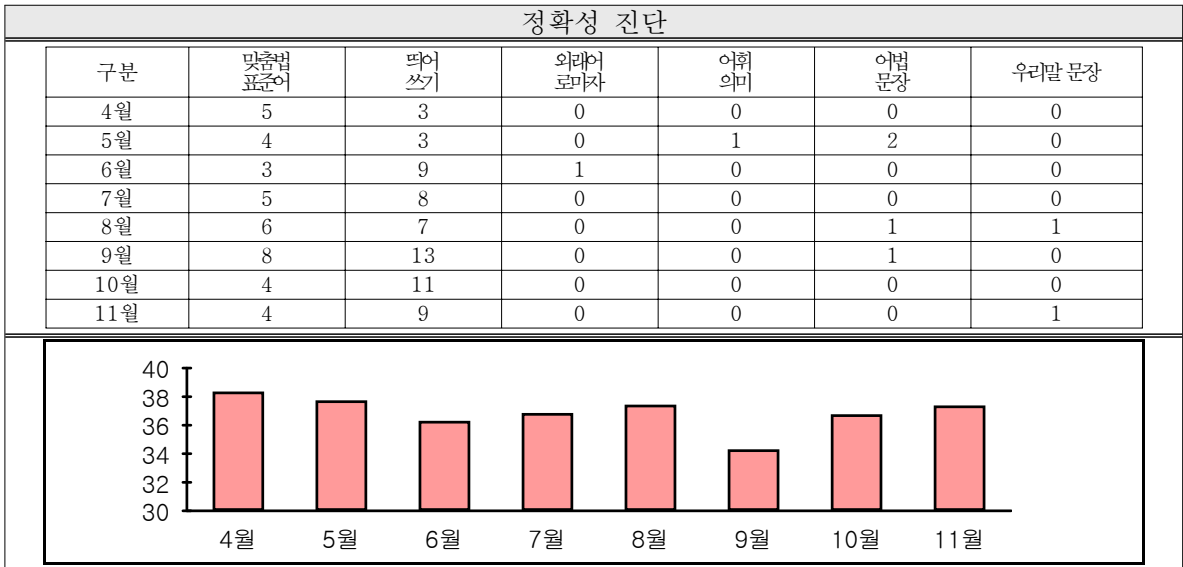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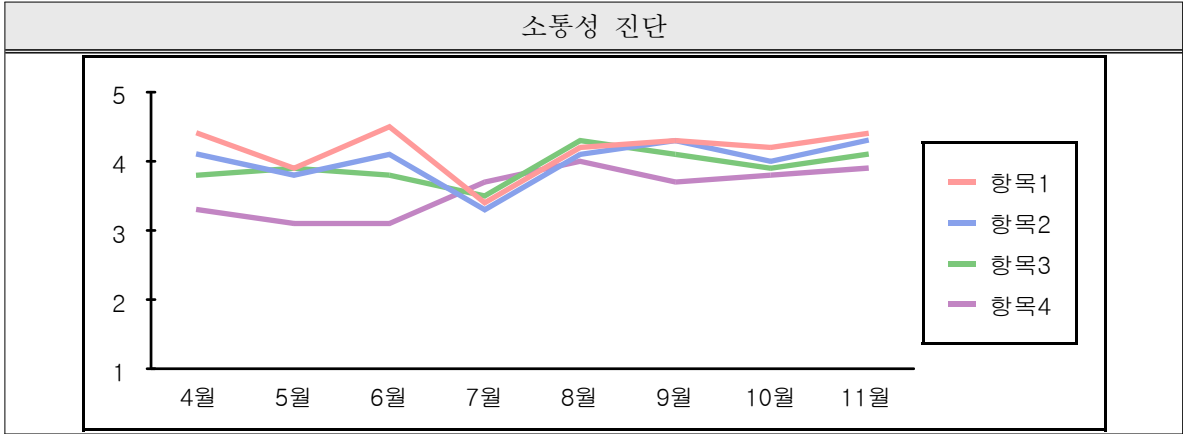
통계청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우수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소통성과 정확성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질적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소통성의 네 항목들에 대해서 통계청의 보도 자료는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항목4, 즉 보도 자료의 전체 구성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확성의 경우 띄어쓰기에서 많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 외 맞춤법, 어법, 우리말 문장 등의 항목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오류의 수가 그리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도 자료 작성 시 문장 서술에 유의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통계청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에서 우수한 보도자료로 평가되었다. 이는 이 기

관의 보도 자료가 질적으로 평균 이상이며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도 자료 전반의 질적 수준을 균질하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질적 수준의 균질적인 향상을 염두에 두면서, 최상위 평가를 받은 타 기관의 보도 자료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44. 특허청



특허청의 보도 자료는 소통성과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대체로 무난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통성의 네 항목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항목4에 대한 평가 결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향상되어 간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네 항목에서 모두 개선해야 할 여지가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정확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맞춤법과 띄어쓰기에서 꾸준히 오류가 발견된다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특허청의 보도 자료는 전문가 최종 진단에서 비교적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보도 자료 중 질적 수준이 낮은 경우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 수준 높은 보도 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보도 자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계획적 실천이 요구된다.

V. 보고서 활용방안 및 정책 제언

1. 보고서 활용 방안

본 사업은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 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의 보도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소통성을 진단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사업의 결과인 보고서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2014년에 처음으로 추진되었던 공공언어의 소통성 평가가 올해도 이어져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 평가단들이 직접 공문서를 읽고, 해당 보도 자료에 대한 소통성의 문제를 직접 진단하였다. 전문가 평가단의 역량을 강화하여 진단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였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각 공공기관들이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국민들의 지적 사항과 요구 사항을 내년 공문서 쓰기에 잘 반영한다면 공문서와 공공언어의 품격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공문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문서에 사용하는 공공언어는 표준어를 맞춤법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쉽고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공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공공언어의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관습적으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공문서를 읽게 되는 국민들 또한 어려운 공공언어로 인해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문서와 공공언어에 대한 의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의식 개선을 위해서는 문제점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는 실제 공문서에 쓰인 공공언어를 진단하였기 때문에 공공언어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단순히 ‘공공언어를 바르게 써야한다.’로 그치지 않고 ‘공문서에서 불필요한 외래어나 외국어가 평균 0건이 쓰였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 쉽고 친숙한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있다.’든지 ‘0명의 시민 평가단들이 공통적으로 사무적이고 고압적인 문장이라고 지적하였으므로 보다 친절하고 쉬운 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든지 ‘문서 당 평균 0건의 문

장 부호 띄어쓰기가 틀리고 있으므로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문장 부호 표기 방법을 숙지하여 사용해야 한다.’처럼 구체적인 문제 제기 및 해결 방안 제시가 가능하다.

공공언어에 대한 의식 개선은 실제 공공언어 사용에 있어 올바른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우선 공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본 보고서를 활용한 자료를 통해 자주 틀리는 부분과 개선 방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사업 기간 내의 진단 대상이 된 문서에 대해 오류의 종류와 개수, 수정 사항, 순위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를 가공하여 활용한다면 공공언어를 어떻게 올바르게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자료는 공공언어를 사용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본 보고서를 활용하면 위에 언급한 항목들을 기관별로 구분하여 가공할 수 있다. 실제 본 사업을 통해 진단한 결과 다수의 기관에서 오류로 지적된 공통적인 사항들도 있었지만 특정 기관에서 반복되는 특징적인 오류들도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기관에서는 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자주 틀리는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공공언어 순화에 대한 의지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개별 문서에 대한 순위와 기관별 순위가 산출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권에 속한 기관은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반성하고 고쳐나갈 수 있다. 상위권에 속한 기관 역시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고쳐야 할 부분을 알게 됨으로써 공공언어를 더욱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의식 개선에서 나아가 본 보고서는 각 현장에 직접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우선 국립국어원을 비롯한 국어 정책 시행기관에서는 본 보고서를 활용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국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어 사용과 개선에 관한 정책은 ‘우리말 바꾸기’, ‘공공언어 바로 쓰기’ 등 비교적 추상적인 부분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국어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국어 사용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공공언어 개선 정책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선 방안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많은 오류가 일어나는지, 그 오류는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지, 나아가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고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실제 진단 자료를 활용한다면 이러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실제 공공언어를 다루는 기관의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열람용 자료 제작이 가능하다. 현재 이와 유사한 자료는 있지만 공공언어 오류 사례집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본 보고서를 가공하면 자주 범하는 오류를 유형별로 묶을 수도 있고, 빈도별로 나열할 수도 있다. 기관에서 공문서를 작성할 때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면 현장에서 올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한층 수월

해질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작된 자료는 기관에서 담당자의 열람용 자료에 그치지 않고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공문서 바로쓰기’ 등 교육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에도 공무원 을 비롯하여 공문서를 다루는 담당자에게 이러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띄어쓰기의 원칙이나 올바른 문장 쓰기 등 원론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본 보고서를 가공한 교육용 자료를 활용한다면 ‘공문서에서 자주 발견되는 띄어쓰기 오류’, ‘공문서에서 발생하는 문장 오류와 오류 방지하기’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기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시행될 교육은 지금까지의 교육과는 다르게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문서를 1차적으로 생산하는 문서 작성자뿐만 아니라 이를 배포하는 기자나 언론사의 교육도 가능하다. 보도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사의 경우 ‘정보의 전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느냐가 중심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1차 생산된 공문서에서 발생한 오류를 그대로 기사에 옮겨, 최종적으로 기사문을 접하는 독자로 하여금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여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띄어쓰기나 맞춤법, 문장의 오류로 인해 공문서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렵고 낯선 용어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적지 않았다. 문서를 1차 생산하는 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문서를 접하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하지만 이를 가공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배포하는 대중매체의 기자들도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쉬운 글로 옮겨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를 활용하면 각 기관의 정책명이나 사업명, 전문 용어의 외래어·외국어 남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그것들을 어떻게 수정하여 쉽고 친숙한 용어로 쓸 수 있을지 알 수 있다. 기자들에게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을 하고 동시에 그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올바른 기사문을 작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보도 자료를 기사화하는 기자들은 단지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사를 써야 할 것이다.

위처럼 본 보고서를 활용한 열람·교육 자료를 통해 공문서를 작성하는 기관과 개인, 공문서를 기사화하는 기자가 공공언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바르게, 쉽게 쓰려고 노력한다면 기관과 민원인 사이의 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이자 정책 중 하나인 ‘정부 3.0’의 경우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던 기존의 일방적인 정책 제시가 아닌 양방향 소통을 중심으로 정책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볼 수 있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공문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단순히 국민들을 대

상으로 정보 공개 수준에 그쳤던 공문서가 이제는 국민과의 소통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각 공공기관에서 본 보고서를 통해 국민들의 지적 사항과 요구 사항에 귀 기울이고, 전문가 평가단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내년 공문서 쓰기에 잘 반영한다면, 공문서의 질적 개선은 물론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국민과의 소통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 제안

1) 공무원 교육 과정 개설 및 진단 도구 배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문서 바로쓰기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면 이번에 생성된 자료들이 더욱 더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기존에도 이러한 교육 과정이 있긴 하지만 좀 더 실질적인 교육 과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자주 틀리는 내용들을 책으로 묶어 교육용으로 배포하며, 이를 바탕으로 왜 틀렸는지를 설명하고 이를 고쳐서 다시 써 보는 등의 교과목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발된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교육을 시행하되, 선택제가 아닌 필수적인 요건으로 제시한다면 좀 더 빨리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입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넣어 시행한다면 공공언어 개선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그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의 정착도 빠르게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지금까지 개발된 공공언어 진단 자동화 도구를 좀 더 보완하고 정밀화 하여 각 공공기관에 배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각 공공기관에서 공문서를 완성한 후 자동화 도구를 통해 미리 진단해 보고,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잘못 된 부분을 수정한 뒤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면, 지금보다 공문서의 질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

2) 국어책임관(공문서 담당자) 확충 및 행정적 권한 부여

현재 각 기관에는 ‘국어책임관’이 배정되어 있으며 그 기관의 모든 국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은 매우 광범위하나 그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국어책임관이라는 직책을 국어전문가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책에 해당하는 인원이 겸직으로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어책임관은 전문지식이 거

의 전무한 상태에서 본인의 업무 이외의 과중한 업무를 맡게 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부담은 국어책임관 역할 소홀로 이어진다.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어책임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기관당 1명이었던 국어책임관을 기관당 다수로 확충하고 나아가 부서당 1명으로 확충한다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어책임관이 가질 수 있는 권한(보도 자료 및 보고서 수정 지시, 포상 등)을 확대하여 국어책임관 업무가 하나의 부수적인 업무가 아닌 주업무의 하나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민원문서로의 확대

이번 진단 사업은 여러 가지 물리적인 한계로 인하여 각 정부기관에서 올린 보도 자료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도 자료보다는 일반인들의 생활에 밀접한 공문서부터 진단을 시작하고 이를 올바르게 고쳐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누구나 열람 가능한 ‘등기부 등본’이나 ‘주민등록 등본’의 문서 형식과 어휘 등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물리적인 접근성은 매우 뛰어나나 그 내용적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문서들의 경우 하루 빨리 고쳐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 사업부터는 보도 자료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공문서를 바탕으로 공공언어 진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겠지만 이 사업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결국 이 사업의 목적은 올바르게 쓰인 공문서를 통해 우리 국민의 국어 생활을 올바르게 이끄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보도 자료에 국한하지 말고 더욱 더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진단의 대상이 된 공문서의 경우 단순히 진단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고쳐진 공문서가 실제 생활에 적용되도록 하는 일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실 일반인들이 접하는 공문서가 읽기 쉽고, 바르게 되어 있다면 이를 대행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10대의 어린 학생이든 70대의 할머니든, 외국인 노동자든 누구나 공문서를 보고 이를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4) 포상 제도

위와 같이 좋은 도구와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용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공문서 바로쓰기에 앞장서야 하는 각 기관과 실무자들이 개발된 도구를 외면한다면

현재의 상태에서 더 나아지는 점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각 기관과 실제 공문서를 작성하는 공무원들에게 일정한 포상을 제공하여 올바른 공문서 쓰기를 실천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위해 이들에게 편리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 또한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단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와 보고서를 활용하여 공문서 바로쓰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 교육에 참여하는 공무원 개개인에게 ‘상점 부여’, ‘포상금 지급’, ‘휴가 지급’, ‘인사 고과에 반영’ 등의 포상을 제공한다. 그러면 좀 더 공무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 실질적이고 개선 가능성이 높은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을 적용한다면 눈에 띄는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포상은 개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으로까지 확대하여 기관에도 일정한 포상을 지급한다면 더욱 더 그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혜택을 주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책임자: 최홍열(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공동 연구원: 김학수(강원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엄태웅(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최 윤(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홍단비(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최맹식(강원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보조 연구원: 박광길(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 연구원)
오유라(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 연구원)
박정모(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 연구원)
이장현(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안진심(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한 훈(강원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담당 연구원: 이윤미(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2015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발행인 송철의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인쇄일 2015년 12월 15일
발행일 2015년 12월 15일